

삭제페이지

2018년 보훈선양 학술회의

# 새롭게 밝히는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 평택지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8년 8월 10일(금) 13:00~18:00
- 장소 : 평택시립도서관

주최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평택문화원

후원 : 국가보훈처, 평택시

# 행사 일정

## ▶ 등록(13:00~13:30)

## ▶ 기념식(13:30~13:50)

개 회	.....	사회자
국민의례	.....	사회자
개 회 사	.....	한국민족운동사학회장
축 사	.....	평택시장
기념촬영	.....	학회 회원 및 내빈

## ▶ 학술연구발표회(13:50~18:00)

1) 제1부 발표(13:50~15:05) ..... 사회: 박종연(수원대학교)

- 주제 1 : 평택지역 3·1운동의 특징 '17  
발 표 : 이 승 원(수원대)    토 론 : 황 수 근(평택문화원)
- 주제 2 : 평택지역 3·1운동의 시·공간적 검토 '27  
발 표 : 진 주 완(숭실대)    토 론 : 박 성 복(평택시사신문)
- 주제 3 :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학생운동 '43  
발 표 : 박 경(서강대)    토 론 : 최 혜 주(한양대)
- 휴식(15:05~15:15)

2) 제2부 발표(15:15~16:30) ..... 사회: 서태정(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제 4 :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청년운동 '61  
-진위청년회를 중심으로-

발 표 : 성 주 현(청암대)      토 론 : 김 해 규(한광중학교)

- 주제 5 : 민족대표 48인 김세환의 생애와 민족운동 '83

발 표 : 황 민 호(숭실대)      토 론 : 한 동 민(수원화성박물관)

- 주제 6 : 권태휘의 생애와 민족운동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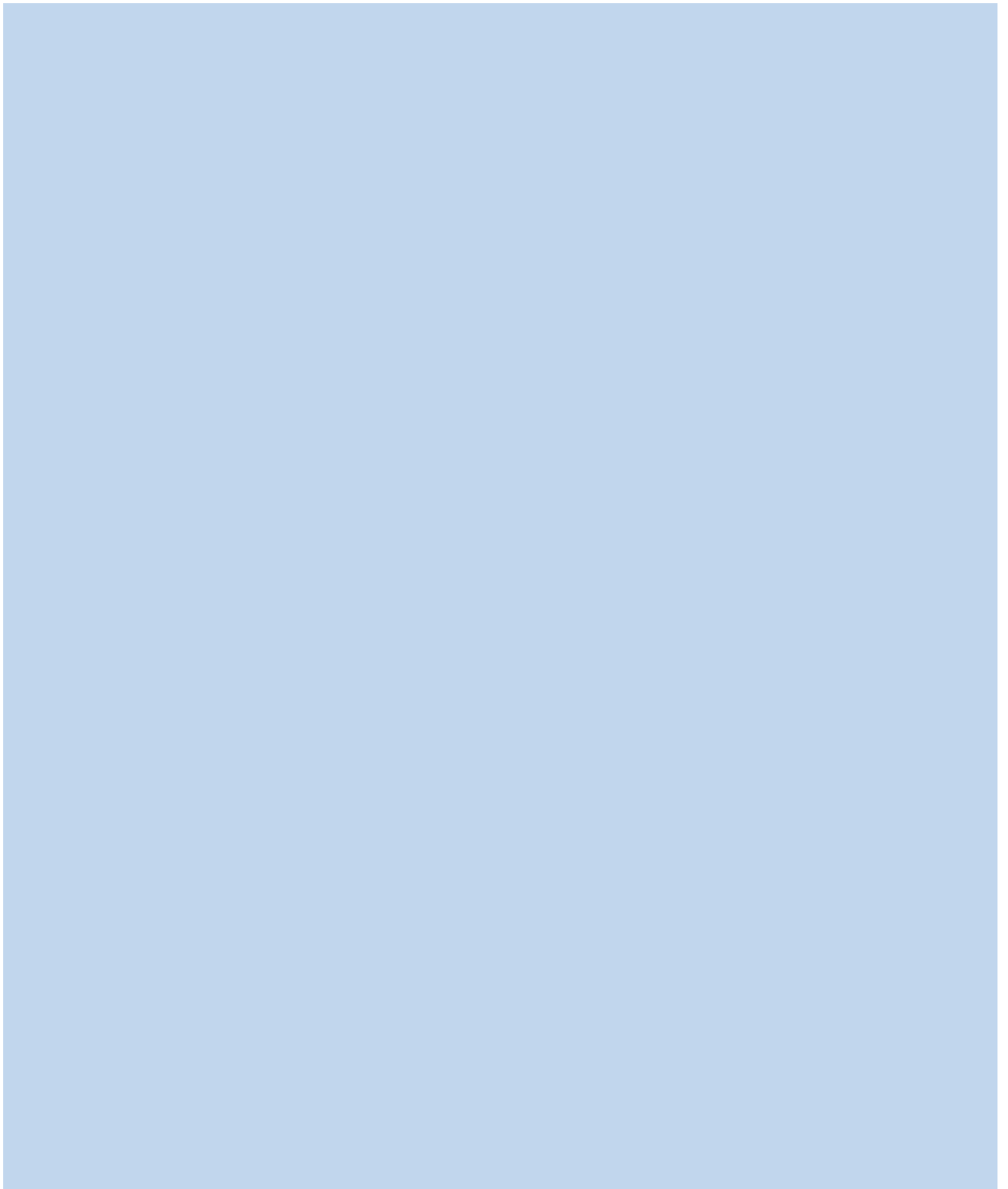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발 표 : 조 규 태(한성대)      토 론 : 이 동 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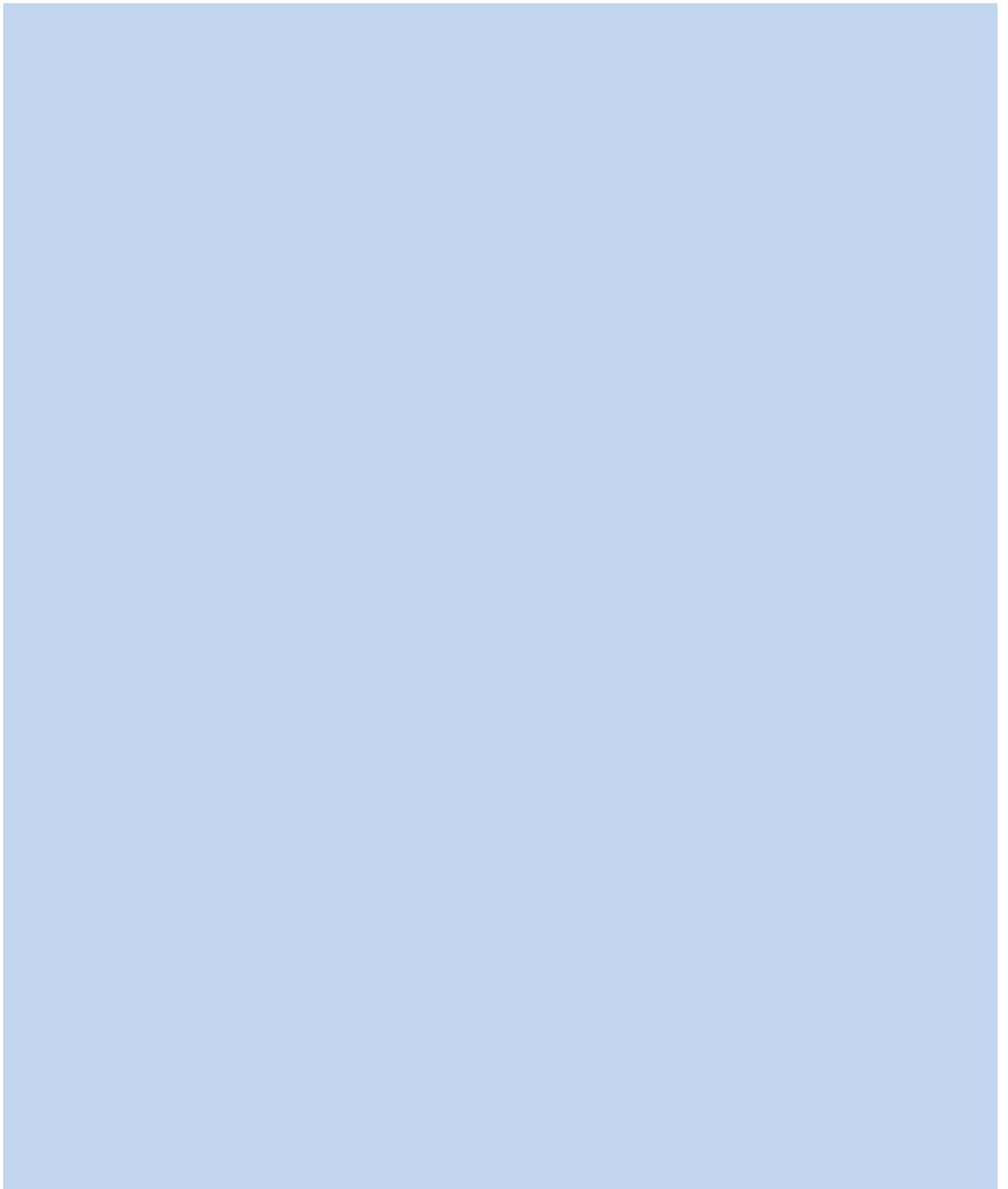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 휴식(16:30~16:40)

3) 종합토론(16:40~18:00) ..... 토론좌장: 김형목(독립기념관)

- 발 표 자 : 이 승 원(수원대), 진 주 완(숭실대), 박 경(서강대),  
성 주 현(청암대), 황 민 호(숭실대), 조 규 태(한성대)
- 토 론 자 : 황 수 근(평택문화원), 박 성 복(평택시사신문), 최 혜 주(한양대),  
김 해 규(한광중학교), 한 동 민(수원화성박물관),  
이 동 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
- 총괄토론자 : 조 성 운(동국대), 강 혜 경(숙명여대)







# 평택지역 3·1운동의 특징

이 승 원(수원대학교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평택지역에 전파된 독립만세시위소식의 행적
3. 독립만세시위 발생 권역(圈域)의 특징
  - 1) 만세시위의 전파경로
  - 2) 주요권역에 위치한 천도교의 영향
4. 전개형태와 참여계층의 특징
  - 1) '조직(組織)'된 시위형태와 '자생(自生)적' 시위형태
  - 2) 시위참여계층과 평택지역 만세운동의 특징
5. 맺음말

## 1. 머리말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50주년을 맞는 1969년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일어나는 3·1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연구동향에 맞추어 평택시에서도 1997년 『평

1) 3·1운동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은 이정은, 「3·1운동연구 100년-인식 재확대를 위하여」, 『유관순 연구』



택 3·1 독립운동사』<sup>2)</sup>를 발간한 이후에『平澤市抗日獨立運動史』<sup>3)</sup>를 만들며 3·1운동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2000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3·1운동관련 학술세미나를 유치하여 평택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왔다.<sup>4)</sup>

이를 토대로 현재 평택지역의 3·1운동은 만세시위가 일어난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동배경<sup>5)</sup>, 발생지역과 주도계층<sup>6)</sup>, 천도교의 역할<sup>7)</sup>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역할과 내용들이 밝혀졌지만 이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평택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재정리하고<sup>8)</sup>, 시기별 평택지역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3·1운동 당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던 인물들의 현황과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었다.<sup>9)</sup>

이에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평택지역의 3·1운동 독립만세시위에 대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평택지역에 전달된 만세시위의 행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평택지역 만세시위의 전달 행적에 관하여서 고종의 죽음, 천도교 등 독립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과정 중에서 개략적인 요소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이를 평택지역의 기록과 구체적으로 연관하여 검토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여 경성에서 평택으로 전파되는 독립만세시위의 행적을 파악하여 평택 지역에 3·1운동의 소식이 전해지는 루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평택지역의 3·1운동의 전파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주요 권역(圈域)별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당시 만세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은 현덕면을 시작하여 오성면, 청북면, 평택리, 고덕면, 송탄면, 서탄면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자료를만을 확인하면 이것이 동시다발적이고 불규칙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지도에 직접 표기하고 날짜순으로 재정리하면 일정한 규칙과 영향력이 확인되는 권역들이 확인된다. 특히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만세시위의 전

---

20, 2015.을 참고.

2) 평택시, 『평택 3·1 독립운동사』, 1997.

3)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平澤市抗日獨立運動史』, 2004.

4) 평택시향토사연구소·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2008.; 평택시향토사연구소·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2009.; 평택향토사연구소, 「새로 쓰는 평택 3·1운동 학술회의」, 2012.;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경기남부 3·1운동과 평택3·1운동」, 2018.

5) 박철하,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새로쓰는 평택3·1운동 학술회의』, 평택향토사연구소, 2012.

6) 김방, 「평택지방 3·1 독립만세운동」,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평택향토사연구소, 2008.; 김해규, 「평택 3·1운동의 성격과 특징」, 『경기남부 3·1운동과 평택3·1운동 조명』,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2018.

7)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평택향토사연구소·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2009.

8)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의 재검토와 전개 양상」, 『새로쓰는 평택3·1운동 학술회의』, 평택향토사연구소, 2012.

9) 이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평택지역 만세시위 참가자는 34명이다. 평택시·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평택지역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사업」, 2018, 244쪽.

과경로가 확인된다.<sup>10)</sup> 이를 통해 평택지역의 평택지역 3·1운동의 주요세력을 파악하고 경성에서 시작된 3·1운동의 전과경로가 평택지역 내에서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전개된 만세운동의 형태와 참여계층의 현황을 통하여 평택지역 3·1운동의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천도교를 중심으로 확산된 평택지역의 만세운동을 살펴보면 전개과정 속에서 그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준비된 상황들이 파악된다. 이는 특히 초기 만세시위에서 그 특징이 확인되는데, 당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검거된 이들의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기로 만세시위가 진행될수록 일반민중의 참여도가 확산되고 자생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정황이 확인된다. 또한 만세시위에 참가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평택지역 참여계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미 이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은 이루어진 바 있지만<sup>11)</sup>, 최근에 종합적으로 검토된 자료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확인된 참여자들의 현황을 다시 정리하여 총체적으로 평택지역 만세운동의 특징을 종합하고자 한다.

## 2. 평택지역에 전파된 독립만세시위소식의 행적

지금까지 평택지역에 만세운동이 전파된 행적은 고종의 죽음 및 천도교 등과 관련하여 일부 언급되었지만<sup>12)</sup>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사(前史)적인 부분이지만 경성에서 시작된 3·1운동 독립만세시위가 평택지역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평택지역의 3·1운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3·1운동이 경성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데 전파된 행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종의 급서(急逝) 소식이고, 두 번째는 3·1운동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 전달되는 인적(人的)경로, 세 번째는 인근지역에 의한 독립만세시위 전파이다.

첫째로 국왕이었던 고종의 죽음은 그 자체가 당시 식민지배체제를 운영하던 일본인들에게도 큰 소식이었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국상 망국민이었던 조선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일본 헌병대사령부 보고에서도 “1월 22일 ‘돌연히’ 이태왕(李太王) 승하의 소식이 발표

10) 천도교를 중심으로 평택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성주현에 의해 검토된 적이 있다.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평택향토사연구소·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2009.

11) 김방, 「평택지방 3·1 독립만세운동」,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평택향토사연구소, 2008, 17~19쪽.;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평택향토사연구소·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2009. 27~28쪽.

12)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평택향토사연구소·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2009, 17-22쪽.

되자, 상하 모두 그 급격한 부음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sup>13)</sup>, “이에 돌연히 이태왕 전하 승하의 보가 전해지자 상하 일반이 경악하였고...”<sup>14)</sup>등의 보고가 올라왔고, 갑작스러운만큼 그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일어나 “민족 자결에 공명하는 사상과, 이태왕 승하의 원인에 대한 망설에 현혹되어 원망하는 마음이 상하의 구별 없이 그들의 가슴속에 충만하여 일종의 요운(妖雲)이 경성 전 시에 가득 차, 누구이 말이랄 것도 없이 국장의 전후에 무슨 일이나 사변이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말이 퍼져, 민심은 매우 평온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sup>15)</sup>는 보고가 계속되었다.

실제 경성을 비롯하여 지방 주민들은 백립(白笠)을 착용하고, 양반 유생의 주도하에 망곡식(望哭式)을 거행하였는데 평택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고종의 국장(國葬)으로 평택지역의 유력계층이라 볼 수 있는 신상(紳商) 20여명과 유생 10여명이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며 3월 2일부터 4일까지 휴업을 하고 망곡식(望哭式)을 행하였던 것이다.<sup>16)</sup> 평택지역의 300명이상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시위가 평택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3월 11일인점을 볼 때 3월 4일까지 행해진 국왕의 급서에 대한 애도는 당시 다양한 계층이 만세시위에 참여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로는 3·1운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 의한 전파이다. 경성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선언된 독립선언에 대한 내용이 종로거리에는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전파되어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식을 각 지역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고종의 국장례(國葬禮)가 결정되자 이를 배관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상경하였던 사람들이 많은 것에도 기인한다. “3월 3일 고 이태왕 전하의 국장 집행 전날 이래 본도로부터 양반, 유생 기타 지방 유력로서 상경하는 자가 뒤를 이었고...”<sup>17)</sup> 이 내용은 경남지역에서 상경한 인물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기차를 타고 가지 못할 경우 육로로 걸어서 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이들은 경성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를 목격하고 독립선언서 등 각종 유인물을 간직하여 귀향하거나 친지에게 직접 보내기도 하였다.<sup>18)</sup>

평택지역에서 직접 상경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를 직접 보고 경성에서 일어난 3·1운동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내용은 확인된다. 권익수(權益洙), 신창우(申昌雨), 윤주식(尹周植), 이익중(李翼鍾) 등은 당시 경성에서 직접 3·1운동을 목도하고 이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들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휘문보통학교, 중등학교 등에서 수학하면서 독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조선소요사건상황’, 『독립운동사자료집』6, 1970, 476쪽.

14) 앞의 책, 473쪽.

15) 앞의 책, 472쪽.

16) ‘市民奉悼’ 『每日申報』 1919년 3월 9일자.

17) 앞의 책, 483쪽.

18) 앞의 책, 474쪽.

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sup>19)</sup>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아도 평택지역에서 고종의 인산(因山)과 더불어 상경하였다가 3·1운동을 경험하고 지역에 이를 전파하기 위해 내려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근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 독립만세시위에 의한 전파이다. 당시 평택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인 오산지역의 만세시위의 행적을 살펴보면 3월 29일 성호면 오산시장에서 약 8백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sup>20)</sup> 이는 3월 31일 진위군 북면 봉남리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와 지역적으로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오산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가 이틀 후에 바로 남쪽에 위치한 북면 봉남리의 만세소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봉남리지역이 ‘천도교의 근거지’라고 언급된다는 점<sup>21)</sup>에서도 천도교의 조직적인 전파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 3. 독립만세시위 발생 권역(圈域)의 특징

#### 1) 만세시위의 전파경로

기존의 연구와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평택지역 독립만세시위운동(3월 9일~4월 10일)이 일어난 지역은 현덕면, 오성면, 청북면, 병남면, 부용면, 송탄면, 서탄면, 고덕면, 북면 등 약 9개 면과 이에 속한 여러 리(里)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면 <표-1>과 같다.

<표-1> 평택지역 3·1운동 만세시위가 전개된 지역<sup>22)</sup>

	지역	날짜	비고
1	현덕면	3월 9일	옥너봉
2	오성면	3월 10일	토진리, 신포 평택리
	청북면		
	병남면		

19) 평택시·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평택지역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사업」, 2018, 44·85·113·149쪽.

20) 성주현,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의 전개와 특성」, 『경기남부 3·1운동과 평택3·1운동』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2018, 39쪽.

21) ‘면장을 끄러가’, 『每日申報』 1919년 4월 3일자.

22) <표-1>에 표기된 내용은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1967.; 姜德相, 『現代史資料』25, 미즈구書房, 1966.; 『매일신보』; 「관결문」;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時事時報社, 1959.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騷擾事件一覽表」, 1919. 등 평택 3·1운동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	병남면	3월 11일	평택리(평택역)
4	북면	3월 21일	야막리
5	북면	3월 31일	봉남리
6	병남면	4월 1일	평택리(평택역)
	부용면		
	송탄면		지산리
	청북면		백봉리
	고덕면		울포리
7	북면	4월 2일	은산리
	송탄면		독곡리
	오성면		안중리
	서탄면		서탄면사무소
8	오성면	4월 3일	학현리
9	고덕면	4월 9일	
10	서탄면	4월 10일	금암리,사리,수월암리
	고덕면		두릉리

그리고 <표-1>을 바탕으로 당시 전개된 만세시위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면 <그림-1>과 같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확인되는 특징은 우선 만세시위가 전개된 지역은 당시 평택(진위군)지역의 전체에서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평택역(지도상의 ‘3(3월11일)’)을 중심으로 북쪽지역에 많은 만세시위 분포도를 보이며 서쪽방면의 일부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만세시위가 발생한 날짜별로 번호를 매겨서 지도상에 표기할 경우 그 전과경로와 만세시위 전개가 일어난 몇 개의 주요 권역들이 보인다.

우선 만세시위 전과경로를 살펴보면 3월 9일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현덕면에서 만세시위<sup>23)</sup>는 북쪽지역으로 전개되어 3월 10일 오성면과 청북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현덕면의 동북방면인 병남면 평택리(평택역)에서도 일어난 것이 확인된다. 이후 만세시위 전개는 10일쯤 후인 3월 21일 평택역의 북쪽인 북면의 야막리에서 발생하였고 또 10일 후 31일 야막리의 동남방면인 북면 봉남리에서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후 4월 1일 평택지역의 최대 만세시위가 전개된 평택역에서 만세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는 부용면, 송탄면, 청북면, 고덕면, 북면 등 평택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후 만세시위는 4월 2일 송탄면과 오성면, 서탄면에서 발생하였고 다음날인 4월 3일에는 다시 오성면에서, 6일 후인 4월 9일에는 고덕면에서 10일에는 서탄면에서 만세시위가 발생하였다.

23) 현재 3월 9일 현덕면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당시 현덕면 권관리 주위에 위치한 ‘옥녀봉’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림-1> 평택지역 3·1운동 만세시위 전개지역<sup>24)</sup>



이와 같은 전개양상을 <그림-1>의 지도와 함께 살펴보면 평택지역의 3·1운동 만세시위는 크게 3개의 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평택지역 만세운동이 발생한 주요권역

권역(圈域)	해당지역	시위날짜	지도상 표기된 숫자
1 제1권역	현덕면	3월 9일	1
	청북면 토진리, 신리	3월 10일	2
	오성면 안중리	4월 2일	7
	오성면 학현리	4월 3일	8

24) 지도에 표기된 숫자는 평택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순서와 해당날짜가 표기되어있다.(예를 들면 맨 처음 현덕면에서 3월 9일 발생한 만세시위의 위치에는 '1(3월 9일)'로 표기되어있다.) 지도는 1914년(大正 3) 측량되어 1916년(大正 5)에 제작된 조선총독부 지도이다. 1919년(大正 8) 3월 25일 인쇄되고 3월 30일 발행되었다. 인쇄검 발행자는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이다. <그림-1>은 지역별로 나뉘져 있는 앞의 지도 4개를 합성한 것이다.

2	제2권역	병남면 평택리	3월 11일	3
		병남면 평택리	4월 1일	6
		부용면	4월 1일	6
		송탄면 지산리	4월 1일	6
		청북면 백봉리	4월 1일	6
		고덕면 울포리	4월 1일	6
		북면 은산리	4월 1일	6
3	제3권역	북면 야막리	3월 21일	4
		북면 봉남리	3월 31일	5
		서탄면 면사무소	4월 2일	7
		고덕면	4월 9일	9
		서탄면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4월 10일	10

우선 지역별로 제1권역은 현덕면, 청북면, 오성면 등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난 평택역을 중심으로 볼 때 당시 평택(진위군)의 서쪽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제2권역은 4월 1일 평택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만세시위를 중심으로 평택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를 망라한 것으로, 지역보다는 4월 1일이라는 날짜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평택지역 만세운동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권역은 고덕면, 북면, 서탄면 등 평택역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역과 날짜를 중심으로 권역을 나눌 경우 제2권역인 4월 1일 만세시위를 제외하고는 '천도교(天道敎)'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 2) 주요권역에 위치한 천도교의 영향

당시 평택지역이었던 '진위군'의 3·1운동 독립만세시위는 여타 다른 지역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전개한 날짜가 있듯이, 3월 11일과 4월 1일 평택역에서 많은 계층이 참여한 대규모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시위를 '제2권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서쪽과 북쪽에서 발생한 3·1운동 만세시위를 '제1권역'과 '제3권역'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경우 앞서 말하였듯이 이 두 개의 권역에서는 '천도교의 영향이 있던 지역'이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우선 3월 9일 평택지역 최초의 만세시위 기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덕면의 시위는 다른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이병헌(李炳憲)의 기록<sup>25)</sup>에서만 확인된다. 그런데 알려졌듯이 3·1운동 당시 손병희의 비서로 활동하였던 이병헌은 평택지역에서 가

25)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879쪽.

장 빠른 1879년에 천도교에 입도한 이민도(李敏道)와 부자관계였고, 현덕면은 그가 출생한 지역이자 전교사로 활동하였던 지역이었다.<sup>26)</sup> 또한 직후 3월 10일 발생한 청북면에서의 만세시위는, 당시 3·1운동을 전후로 하여 평택지역의 천도교 조직이 진위교구와 수원교구에 있었으며 수원교구는 현덕면전교실과 고덕면전교실, 청북면전교실이 있었다는 점<sup>27)</sup>에서 청북면의 만세시위 역시 천도교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권역’의 평택지역의 초기 만세시위는 천도교의 영향이 존재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후술하겠지만 4월2일과 3일에 발생한 만세시위는 4월 1일의 대규모 만세시위 이후 만세시위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위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권역’에서 만세시위에 대해 영향력이 확인되는 세력은 ‘천도교’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어서 평택역 북쪽에 위치한 ‘제3권역’의 경우 3월 21일 발생한 북면 야막리 지역이 ‘천도교구가 있고 교인이 많이 있다’<sup>28)</sup>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병헌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그림-1>을 통해 살펴보면 ‘제3권역’에 속하는 3월 21일 야막리의 시위를 기점으로 4월 10일까지 주변의 곳곳에 만세시위가 일어난 상황이 보인다. 또한 당시 『每日申報』 1919년 4월 3일자 기록을 살펴보면 ‘진위군 북면 봉남리는 천도교의 근거지라 할 만한 곳인데...’<sup>29)</sup>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3월 21일 야막리와 3월 31일 봉남리의 만세시위는 천도교의 영향이 확인된다.

앞서 말하였듯이 지도를 통해서 당시 일어났던 만세시위를 표기해 보면 당시 평택지역의 만세운동은 평택역을 중심으로 서쪽과 북쪽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보인다. 특히 ‘제3권역’으로 설정한 북쪽지역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북면 야막리를 시작으로 지도상으로는 하단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지도를 살펴보면 평택역과 북쪽으로 가장 가깝게 시위가 특정되는 곳이 고덕면 율포리(지도상의 ‘6(4월1일)’)인데 시위분포도가 평택역과 가깝기 보다는 같은 날 시위가 일어난 송탄면 지산리(지도상의 ‘6(4월1일)’)에서 더 가깝다 그리고 이것은 3월 21일 북면 야막리 만세시위 이후 3월 31일 시위가 일어난 북면 봉남리(지도상의 ‘5(3월 31일)’)와 더 가깝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리상 인접지역으로 보면 ‘제2권역’으로 설정한 4월 1일의 시위에 있어서도 평택역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일어난 ‘제3권역’의 시위는 ‘천도교’의 영향이 일정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6)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평택향토사연구소·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2009. 27~28쪽.

27) 당시 평택지역의 동부는 진위교구, 서부는 수원교구의 관할이었다. 성주현, 앞의 글, 21쪽.

28) 이병헌, 앞의 책, 880쪽.

29) 면장을 끄러가, 『每日申報』 1919년 4월 3일자.



즉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3월 11일과 4월 1일 평택역에서 주민들이 대규모로 전개한 3·1운동 만세시위를 제외하고 서쪽과 북쪽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천도교’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만세시위의 전개형태와 참여계층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4. 전개형태와 참여계층의 특징

##### 1) ‘조직(組織)’된 시위형태와 ‘자생(自生)적’ 시위형태

그동안 3·1운동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점의 하나는 3·1운동의 연구가 중앙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 초기 발발 단계만으로 연역적으로 운동의 전체상을 구성했다는 점도 있지만, 민중의 역할을 부각하더라도 이것이 민중의 독자적인 행동인지 중앙조직에 의해서 호응하는 형태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up>30)</sup>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평택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도 그것이 어디까지가 중앙조직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준비되었는지, 어디까지가 민중들의 자생적인 형태로 주도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에서 밝힌 천도교의 영향력이 평택지역 3·1운동 만세시위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쳤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위가 조직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생적이었는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시위가 발생하기 전에 그것이 ‘준비된’ 시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당시 평택지역 만세시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적힌 판결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3> 평택지역 만세시위 검거자 판결문 내용<sup>31)</sup>

	시위 날짜	관련인물	내용	<그림-1> 위치
1	3·11	이도상(李道相), 목준상(睦俊相) 심헌섭(沈憲燮), 한영수(韓永洙)	조선독립만세의 행동에 찬동하여 약 300여명의 주민과 만세를 불렀다.	3(3월10일, 평택역)
2	3·31	박성백(朴成伯), 최구홍(崔九弘)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 취지에 찬동하	5(3월31일,

30) 이정은, 「3·1운동의 지방 확산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5, 1991. 295~296쪽.

		유동환(柳東煥),전영록(全英錄) 유만수(柳萬壽),김봉희(金鳳熙)	여, 미리 만들어둔 '구한국기' 30매를 가지고 나가 약 400여명의 주민과 면사 무소와 주재소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북면,봉남리)
3	4-1	정경순(鄭庚淳),최선유(崔善有)	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고 약 30명 의 주민들과 봉남리 순사주재소로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6(4월1일, 북면 은산리)
4	4-1	김원근(金元根),안육만(安六萬) 안희문(安喜文),최만화(崔晚華) 황순태(黃順泰),정수만(鄭水萬) 홍기성(洪奇成)	김원근이란 사람이 주민들에게 고하 여 주민 수 십명과 함께 조선독립만 세를 불렀다.	6(4월1일, 청북면 백봉리)
5	4-2	윤기선(尹箕善),윤교영(尹教永) 윤대선(尹大善),한성수(韓聖洙)	서탄면장인 윤기선은 약 400명의 주 민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불렀다.	7(4월2일, 서탄면사무소 )
6	4-3	공재록(孔在祿),이사필(李思弼) 김용성(金容成)	인근 봉오산에서 모닥불을 피고 약 12~13명의 주민과 함께 조선독립만 세를 불렀다.	8(4월3일, 오성면 학현리)

<표-3>의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면 우선 첫번째로 3월 31일의 만세운동은 '구한국기'를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시위들과는 다르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3·1운동 당시 '완성단'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던 보성사에서 사장 이종일(李鍾一)에 의해 2월 27일경 21,000장이 인쇄된 것<sup>32)</sup>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3월 31일 박성백등이 검거된 북면 봉남리의 만세시위는 천도교측에 의해서 미리 준비되었을 개연성 높다. 특히『每日申報』에서 봉남리가 천도교의 근거지라고 보도된 것은 이 시위가 조직적으로 준비된 시위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두번째로 만세시위에 참여한 인원숫자를 살펴보면 3월11일 평택역과 3월31일 북면 봉남리, 4월1일 평택역, 4월2일 서탄면 사무소는 그 모인 주민들의 숫자가 300명이상이라는 점에서 자생적으로 모인 인원이라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인員들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고 볼 수 있다. 1924년 당시 진위군 면별 호구(조선인)를 조사한 기록을 확인해 보면 북면 : 4854명, 고덕면 4941명, 청북면 : 7175명, 병남면 : 7193명, 송탄면 : 5700, 서탄면 : 4172명, 오성면 : 6727명 : 포승면 : 6867명, 현덕면 : 7013명, 부용·서면 : 7604명으로<sup>33)</sup> 수치상 가장 많은 인원인 약 7000명에 비하여도 20분의 1이상의 인원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31)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2)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180쪽.

33) '진위면별 호구', 『東亞日報』 1924년 7월 4일자.

있다. 아직 교통관련 인프라와 마을간 이동이 편리하지 않았던 당시를 생각할 때 이는 매우 많은 인원이 만세시위에 참여한 것이다.<sup>34)</sup>

특히 4월 1일 청북면 백봉리의 시위는 ‘김원근’이라는 사람이 4월 1일밤 청북면 백봉리 도로에서 큰소리로 “이 마을에서는 어찌하여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느냐, 빨리 나와 부르자”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육만 등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는 내용<sup>35)</sup>이 확인되는 점에서 시위가 조직적으로 전파되어 대규모의 인원이 시위를 가능하게 했을 가능성. 특히 4월 1일은 평택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대규모로 만세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위가 조직적으로 준비되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시위의 목적지가 면사무소나 주재소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자 식민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총독부 관제와 더불어 지방관 관제를 발표했는데 이때 함께 중점이 된 점은 면(面)기능의 강화에 있었다.<sup>36)</sup> 병탄이전의 면장은 군수(郡守)의 보조기관이었지만 직제상 규정이 없고 사무도 자택에서 처리한다고 판단한 일본은 행정제도 개편에 있어서 면장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면내의 적당한 건물을 면사무소로 사용케 함으로써 면장의 기능을 강화하였다.<sup>37)</sup> 그렇기 때문에 면은 일제의 식민지배체제 중 하나로 징세와 치안의 말단기구로서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sup>38)</sup> 종래 신분적·경제적으로 열악했던 면장을 거의 전부 교체하고, ‘덕망·자산·세력’을 기준으로 면내 영향력있는 인사를 면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들을 식민 통치상의 동반자로 끌어 들이면서 식민지 통치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다.<sup>39)</sup>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면장은 1917년 조선의 면제 시행과 더불어 일제에 협력적인 대상이 업무를 수행하였다.<sup>40)</sup>

이러한 점에서 3·1운동 당시 많은 시위장소에서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규탄하며 시위를 진행한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대규모의 인원이 면사무소를 계다가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주재소로 시위장소를 이어 갔다는 점에서 면사무소와 주재소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점은 일제 식민지배체제에 저항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앞의 세 가지 정황이 대입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

34) 2017년 기준 서울 인구가 약 1000만명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촛불시위 최대인원이 10분의 1인 100만명이라고 보도되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100년전 당시 지역 인구의 20분의 1이 한 곳에 모여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 파급력이 매우 컸다고 짐작할 수 있다.

35) 「안육만의 5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5.16.

36) 이정은, 앞의 글, 323쪽.

37) 이상찬, 「1894~1895년 地方制度 改革의 方向」, 『진단학보』67, 1989, 94쪽.

38) 염인호, 「日帝下 地方統治에 관한 研究-朝鮮面制의 형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4, 6~7쪽.

39) 이정은, 앞의 글, 324쪽.

40)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327쪽.

한 형태도 확인된다. 4월 3일 오성면 학현리 만세시위의 경우에는 김용성등이 봉오산에 주민들 12~13명을 모아서 올라가 햇불(모닥불)<sup>41)</sup>을 올리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이는 앞서 말한 조직적 만세시위의 형태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판결문에 따르면 '거주지 마을 봉오산 위에서 다중의 주민이 만세를 부름으로써 조선독립을 쉽게하기 위하여 시위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그 장소에서 모닥불을 피고 약 12~13명의 주민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라 절규하였다.'<sup>42)</sup>고 기록되어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만세소식을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면사무소와 같은 특정목적지를 향해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것도 아니었다. 이는 3월 11일과 4월 1일 평택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가 평택전역으로 퍼져나가자 이를 보고 김용성등도 이에 참가하고자 동민 사람들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세시위에 동참하고 이를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으로는 4월 2일 오성면 안중리에서 만세시위가 있어서 경관이 발포하고 주민들을 해산시킨 기록이 있어<sup>43)</sup> 4월 3일 오성면 학현리의 만세시위는 인접한 안중리의 만세시위에 영향을 받아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표-3>의 판결문 내용에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인다. 그것은 4월 2일 서탄면사무소의 만세시위인데 이는 서탄면장 윤기선이 직접 각 구장들에게 연락을 하여 면사무소 앞 광장에 주민들을 모아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연구에 따른 면장의 역할에서 '일제강점기 면장은 일제에 협력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논리에 대입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무죄방면을 받아 다른 인물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과는 차별점이 보이지만 이러한 예시는 당시 3·1운동의 전개 및 확산과정에서 기존의 일제식민치기의 행정체계에 속해있던 인물들 중 일부는 식민체제에 항의하고 3·1운동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예시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히 밝혀질 필요가 있겠지만 평택지역 3·1운동 만세시위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 2) 시위참여계층과 평택지역 만세운동의 특징

이와 같이 '조직된' 형태의 평택 3·1운동 만세시위는 그 참여계층을 밝혀 보다 구체적으로

41) 판결문에는 '모닥불'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햇불' 혹은 '봉화'로 보고 있다. 경기도 수원 및 화성지역에서도 만세시위 당시 봉화나 햇불 시위가 전개된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이를 볼 때 이는 만세시위를 확산시키고 알리기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대로 '햇불'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박환, 「경기도지역 3·1운동의 전개」, 『경기지역 3·1독립운동사』, 선인, 2007. 참고.

42) 「김용성의 2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5.20.

43) 姜德相, 「獨立運動=關スル件(第38報)」, 『現代史資料』, ミスズ書房, 1967, 353쪽.

어떤 계층이 시위에 참여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일부 이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 23명이 평택지역의 3·1운동 만세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sup>44)</sup> 최근에 이루어진 「평택 지역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사업」에 따라 확인된 3·1운동 참여자의 인물은 11명이 추가된 34 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4> 평택지역 3·1운동에 참가한 인물현황<sup>45)</sup>

	성명	시위참여	출생년	형량	직업
1	공재록(孔在祿)	4월 3일	1895(25세)	1년 6개월	농업
2	김봉희(金鳳熙)	3월 31일	1890(30세)	태 90	농업
3	김용성(金容成)	4월 3일	1894(26세)	1년	서당한문교사
4	김원근(金元根)	4월 1일			
5	목준상(睦俊相)	3월 11일	1891(29세)	8개월	미곡상
6	민응환	3월 11일			
7	박성백(朴成伯)	3월 31일	1890(30세)	1년	농업
8	심헌섭(沈憲燮)	3월 11일	1886(34세)	8개월	농업
9	안육만(安六萬)	4월 1일	1900(20세)	1년	농업
10	안중철(安鍾喆)	3월 11일		방면	유지(有志) <sup>46)</sup>
11	안충수(安忠洙)	3월 11일		방면	학생
12	안희문(安喜文)	4월 1일	1898(22세)	6개월	농업
13	유만수(柳萬壽)	3월 31일	1895(25세)	태90	농업
14	유동환(柳東煥)	3월 31일	1897(23세)	징역 1년	농업
15	윤교영(尹教永)	4월 2일	1881(39세)	무죄	농업
16	윤기선(尹箕善)	4월 2일	1866(54세)	무죄	서탄면장
17	윤대선(尹大善)	4월 2일	1863(57세)	무죄	한문교사
18	이도상(李道相)	3월 11일	1890(30세)	1년	미곡상
19	이병헌(李秉憲)		1896(24세)		천도교인
20	이사필(李思弼)	4월 3일	1888(32세)	1년 6개월	농업
21	이재록(李在祿)		1895(25세)	1년 6개월	상업
22	전영록(全英祿)	3월 31일	1900(20세)	1년	농업
23	정경순(鄭庚淳)	4월 1일	1892(28세)	6개월	농업
24	정문학(鄭文學)				
25	정세근(鄭世根)	4월 1일	1874(46세)	사망	

44)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평택향토사연구소·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2009. 27쪽.

45) 평택시·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평택지역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사업」, 2018, 참고.

26	정수만(鄭水萬)	4월 1일	1900(20세)	6개월	농업
27	정우근(鄭友根)	4월 1일	1895(25세)	사망	
28	최구홍(崔九弘)	3월 31일	1891(29세)	1년	농업
29	최만화(崔晚華)	4월 1일	1895(25세)	6개월	농업
30	최선유(崔善有)	4월 1일	1888(32세)	6개월	농업
31	한성수(韓聖洙)	4월 2일	1881(39세)	무죄	면서기
32	한영수(韓永洙)	3월 11일	1891(29세)	8개월	농업
33	홍기성(洪奇成)	4월 1일	1884(36세)	6개월	농업
34	황순태(黃順泰)	4월 1일	1889(31세)	6개월	농업

<표-4>를 통해서 평택지역 3·1운동 만세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총 34명으로 확인되고 이를 직업군으로 나눠보면 농업 20, 상인 3, 관료, 2, 교사 2, 천도교 1, 유지 1, 미상(未詳) 5 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를 날짜별로 살펴보면 3월 11일까지는 상인, 학생, 지역유지등 각 계층별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이후로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 서탄면장 윤기선에 의해서 진행된 만세시위도 있지만 앞서 서술한대로 이 경우에는 관료가 직접 주도적으로 시위를 참여한 것이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 별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3·1운동 참가자들의 현황은 <표-4>를 통해서만 봤을 경우 초창기 평택지역 3·1운동 만세시위에는 각계 각층이 다양하게 참가하였지만 이후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는 것을 보아 후기로 갈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민중들의 참여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초기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지만 만세운동이 퍼져나가는 후기에는 일반 민중들의 호응이 확산되면서 점차 당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만세시위 운동 참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고종의 국장으로 평택지역의 유력계층이라 볼 수 있는 신상(紳商) 20여명과 유생 10여명이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며 3월 2일부터 4일까지 휴업을 하고 망곡식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3월 11일 평택역의 만세시위는 다양한 계층이 운동에 참여할 있는 국왕 ‘고종의 죽음’이라는 명분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3월 11일 평택역의 만세시위에 참여한 인물 중에 안중철이란 인물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이후 기록을 살펴보면 병남면 비전리의 ‘부호(富豪)’로 불리웠으며<sup>46)</sup> 병남면 면협의원<sup>48)</sup>, 평택공립보통학교 평의원<sup>49)</sup>, 평택

46) ‘호세를 대납’, 『東亞日報』 1925년 5월 23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안중철은 진위군 병남면 비전리의 ‘부호(富豪)’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안중철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명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유지(有志)’라고 볼 수 있다.

47) ‘호세를 대납’, 『東亞日報』 1925년 5월 23일자.

금융조합 감사<sup>50)</sup>, 계인(契仁)조합 조합장<sup>51)</sup>, 평택미상조합 평의원<sup>52)</sup>, 합동운수주식회사 감사<sup>53)</sup> 등 각 분야에서 지도계층으로 활동하고 평택지역의 구호와 기부금도 기부하면서<sup>54)</sup> 지역 ‘유지’<sup>55)</sup>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데, 이러한 인물이 3월 11일에 만세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초기 만세시위 참여계층이 일부이지만 지역 유력계층부터 일반 민중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볼 때에도 1919년 3월 11일 평택역 만세시위에는 당시 평택지역의 유력계층과 학생 및 상민,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했던 시위임이 확인된다.

특기할 점은 <표-4>를 살펴볼 때 시위에 참가한 계층 중 유지나 관료같이 지역에서 유력계층으로 위치하였던 인물들은 시위 당시 검거되더라도 방면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택지역의 만세운동을 규명할 경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평택지역의 3·1운동 만세시위는 그 시작이 되는 3월 9일 초기부터 마지막으로 시위가 확인되는 4월 10일 후기까지 평택역을 중심으로 서쪽의 제1권역, 평택역을 중심으로 한 제2권역, 북쪽의 제3권역 등 총 3개의 권역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평택역을 중심으로 한 제2권역 이외의 제1, 3권역의 만세시위는 천도교의 영향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림-1>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초기에 만세시위가 발생한 현덕면과 청북면에 천도교전도실이 있었으며 ‘천도교의 근거지’라고 보도된 북면 봉남리의 만세시위는 ‘구한국기’가 미리 준비되어 조직적으로 만세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후 4월 1일 만세시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천도교인이 많이 있는 북면 야막리를 중심으로 남쪽방면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서, 4월 10일 서탄면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시위도 야막리 인근에서 일어난 시위라는 점에서 천도교의 영향력이 후기에도 일정부분 계속됐을 개연성이 있다.

48) ‘각지선 진위각면 선거 11면에 104인’, 『東亞日報』 1925년 11월 25일자.

49) ‘평택학부형회’, 『東亞日報』 1925년 5월 15일자.

50) ‘기호지방’, 『東亞日報』 1927년 4월 22일자.

51) ‘순회탐방(296)’, 『東亞日報』 1927년 4월 23일자.

52) ‘기호지방’, 『東亞日報』 1927년 5월 24일자.

53) ‘합동회사 창립’, 『東亞日報』 1927년 8월 3일자.

54) 안중철의 지역 구호활동으로는 『東亞日報』 1925년 5월 23일; 1926년 10월 17일; 1928년 9월 16일; 1932년 5월 18일; 1940년 2월 18일자 기사 등에서 확인된다.

55) 지수걸의 연구에 의하면 유지란 ‘재산’과 ‘사회활동’, ‘당국의 신용’과 ‘사회적 인망’을 획득한 재지 유력자들로 일제식민지기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수걸,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의 도청이전 반대운동(1930.11~1932.10)」, 『역사와 현실』 20, 1996.

두 번째로는 3월 1일 경성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후 퍼져나갔던 조직적인 만세시위의 움직임이 평택지역에서도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전국적으로 조직력을 가지고 있던 천도교의 영향력이 평택의 만세시위 전반에서 확인된다는 점과는 별도로 300명이상의 대규모 시위가 당시 식민지배체제의 일선기관이었던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향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4월 1일 평택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만세시위 이후에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만세시위도 보이는데 4월 3일 오성면 학현리에서 일어난 만세시위가 그 예시로 보인다. 이는 3월 11일과 4월 1일 평택역에서 있었던 대규모 만세시위가 있는 이후 인근지역과 일반 민중들에게 만세시위가 퍼져나가는 와중에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반민중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평택지역의 3·1운동 만세시위는 초기에는 지역의 유력계층과 상민, 학생,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지만 이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점차 일반농민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3월 3일 고종의 인산(因山)과 더불어 국왕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초기의 3월 11일 평택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영향을 주었다. 이후 4월 1일의 대규모 만세시위 이후에는 만세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반 민중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평택지역의 3·1운동 독립만세시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추후 더 자료가 조사 및 발굴되어 연구가 지속되어야겠지만 <표-4>의 참가자 현황에서 3월 11일까지는 유지,상인 등 지역유력계층이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이후에는 농민, 학생,교사 등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던 것을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4월 2일 서탄면의 만세시위가 서탄면장 의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특이점이다. 앞서 말하였다싶이 당시 일제 식민지배체제에서 병탄이후 강화된 면제에서 면장은 일본에 ‘협조’하는 인사들이 주로 임명되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부분이다. 하지만 서탄면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당시 면장을 비롯한 식민지배체제에서 현직 행정관료들의 일부는 3·1운동에 참여하여서 일제의 지배체제를 비판하였다는 확인된다. 사실 이러한 점은 평택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지역의 조사와 병행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평택지역의 3·1운동 만세시위는 전반적으로 천도교의 영향력이 중심이 되면서 초기에는 다양한계층이 참여하는 만세시위가 전개되다가 4월 1일 이후 시위가 확산되면서 농민을 비롯한 일반민중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점차 조직적인 만세시위에서 간헐적이지만 자생적인 만세시위도 발생하며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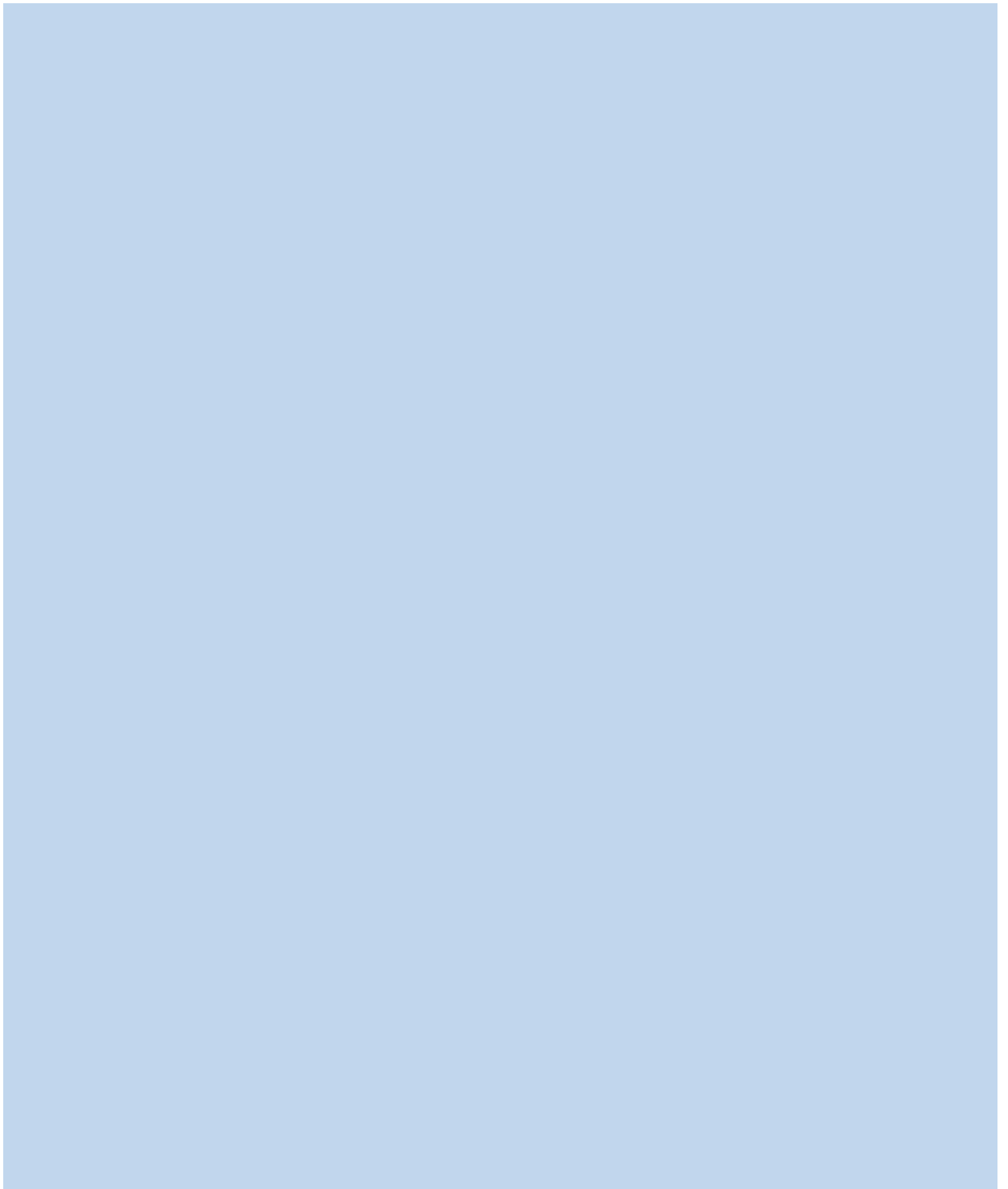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최근까지 3·1운동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온 이정은은 일전에 일본의 국제기독교대 사사가와 노리가쓰(笹川紀騰)교수를 만났다가 수년에 걸쳐 한국의 3·1운동 판결문을 조사하며 두툼하게 만든 판결문 목록집을 보여 주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sup>56)</sup> 이는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 기초연구조차 일본인들이 하는구나 하는 당혹감과 자괴감이라고 하였다. 목록집에는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3·1운동 판결문이 있었고, 도요다(豊田)재단에서 수년간 지원을 받은 이 조사는 당시에조차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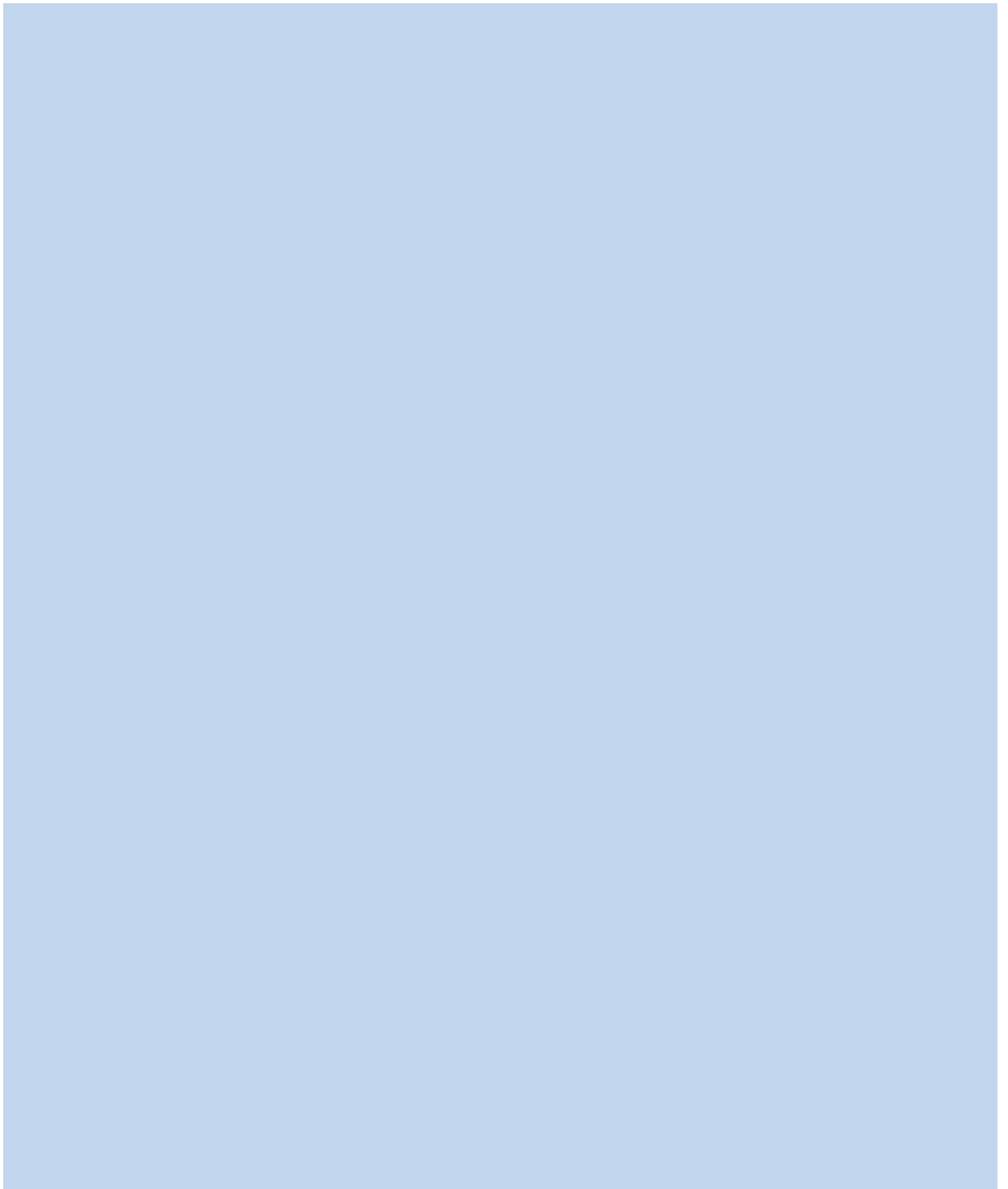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3·1운동은 명실상부히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 가장 최고, 최대의 민족운동이며 세계사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일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세계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1차사료와 이를 집성한 자료집은 사실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기관마다 지역마다 자료가 선택적으로 출판되어 그 근거도 명확하게 달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목요연 하지 않은 실정이다.

평택지역의 경우 1990년대 3·1운동의 연구사 현황에 발맞추어 지역에 대한 3·1운동 연구가 지속되어 오늘날에는 부족하지만 그 일단의 결과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본고에서도 보이듯이 참가자 현황과 발굴된 1차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친 자료의 활용은 아직까지 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독립운동가 발굴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1차 자료에 대한 발굴 및 조사사업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평택지역의 독립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미를 밝혀, 지역민들에게 평택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56) 이정은, 「3·1운동연구 100년-인식 재확대를 위하여」, 『유관순 연구』 20, 2015, 22쪽.





# 평택지역 3·1운동의 시공간적 검토

진주완(숭실대학교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평택지역 최초 만세시위에 대한 검토
3. 3월말~4월 초 만세시위의 시공간적 검토
4. 맺음말

## 1. 머리말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촉발되었고, 전국 각지로 그 소식이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에서도 3·1운동이 전개되었다. 평택지역의 3·1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평택지역 3·1운동을 주도한 인물 및 계층에 대한 분석과 만세시위의 지역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택지역 만세시위의 주동자들은 상인·고용인·학생·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었고 20~30대의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4월 1일 丙南面の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상인계층이 일제의 약탈적 식민지 경제정책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인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또한 평택지역 만세시위가 타지역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는 점, 여러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햇불시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와 함께 만세시위가 벌어졌던 3·1운동 관련 사적지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어 鷄豆峰·大德山·芙蓉山 등의 봉우리와 北面事務所·西炭面事務所·平澤驛 등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오늘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평택지역에서 총 7곳의 사적지를 지정하였다.<sup>2)</sup>

그러나 평택지역 3·1운동에 대한 연구과정에 대해서 여전히 보완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할 것은 평택지역 3·1운동에 관한 자료를 비교·검토하는 일이다. 2010년대에 들어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자료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추가로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만세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기존자료 및 서술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택역 앞 만세시위에 참여한 韓泳洙에 대해서 『삼일운동비사』에서는 3년간 복역 후 별세하였다고 하였고 『평택군지』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징역 8개월형을 받았고, 1939년 5월 10일 사망하여 3·1운동 이후에 20년간 생존하였다.<sup>3)</sup> 또 일제강점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후대기록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비교작업이 필요하다.<sup>4)</sup>

특히 만세시위가 일어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자료들에 대한 교차비교와 검증이 필요하다. 날짜에 대한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이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동을 겪는 경우도 있다. 『삼일운동비사』에서는 3월 21일 北面(현 振威面) 일대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고 하였으나 『매일신보』와 판결문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에 벌어진 것을 잘못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sup>5)</sup> 『평택시향일독립운동사』에서는 4월 10일에 벌어진 금암리 시위를 3월 10일로 혼동하여 기술하기도 하였다.<sup>6)</sup> 3월 31일 북면의 군중들이 습격한 駐在所의 위치에 대해, 기존에는 현재 진위면과출소가 위치한 下北里 일대로 보았으나 판결문 자료에 鳳南里駐在所

1)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향일독립운동사』, 2014, 193~196쪽.

2) 독립운동사연구소, 『경기남부 독립운동사적지』, 2009, 288~321쪽.

3)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1959, 879쪽;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99쪽.

4) 3월 9~10일 현덕면·오성면·청북면 일대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 대한 기록은 해방 후 『삼일운동비사』에 처음 등장한다. 『평택군지』에서는 “일본수비대가 급거 출동해 와서 총기를 마구 난사하고 일부는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되어 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병헌, 앞의 책, 879쪽; 평택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99쪽.

5) 『평택군지』에서 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3월 12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騷擾事件의 後報』,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3면; 경성지방법원, 「朴成柏 외 5인 판결문」, 1919년 5월 9일; 이병헌, 앞의 책, 880쪽; 평택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99쪽.

6)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85-186쪽.

가 등장하고 있고, 3·1운동 이후 봉남리의 주재소가 철수했다는 기록이 나오에 따라 군중들이 습격한 주재소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먼 하북리보다는 봉남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sup>7)</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평택지역 3·1운동 관련 사료를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평택지역 3·1운동을 시·공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제강점기 총독부측 보고서와 판결문, 신문자료 및 해방 이후 간행된 『삼일운동비사』와 『평택군지』, 『朝鮮獨立運動』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 2. 평택지역 최초 만세시위지에 대한 검토

현재 평택에서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은 玄徳面 · 梧城面 · 靑北面 일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3월 9일 현덕면에서는 각 동이 일제히 산에 올라가 불을 놓고 만세를 부르며 인근 면에서도 호응하였다. 3월 10일 오성면은 평야를 위시하여 산간지대까지 일제히 만세를 불렀고 청북면은 土津里 뒷산과 마루산에 新浦의 다수한 군중이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다.<sup>8)</sup>

나. 제일 먼저 현덕면에서 기미년 3월 9일 독립만세 함성이 평택 하늘에 메아리쳤다. 저녁 때가 되어 이곳에서는 각 마을 남녀노소가 일제히 면사무소 소재지 뒷산으로 모여 횃불을 쳐들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쳐댔다. 이 때는 이미 초비상에 대처해 있던 安仲里에 주둔한 일본수비대가 급거 출동해 와서 총기를 마구 난사하고 일부는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되어 갔다. 3월 10일에는 오성면에서 일어났다. 면민이 일제히 숙성리 뒷산에 모여 만세를 불렀고, 또 이날 청북면에서도 토진리와 마루산에서 그리고 新浦장터 거리에서도 각각 군중이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다. 이 날에 삼엄한 경비를 하던 왜군들의 습격을 당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며 체포되는 사태를 빚었다.<sup>9)</sup>

7) 봉남리는 옛 진위현청 소재지이자 북면사무소 소재지였고, 봉남리에 있던 주재소 역시 면사무소를 보호하기 위해 서 주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성지방법원, 「鄭庚淳 외 1인 판결문」, 1919년 5월 16일;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국학자료원, 629쪽.

8) 이병헌, 앞의 책, 879~880쪽.

9) 평택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99쪽.

가. 는 『삼일운동비사』의 기록으로, 3월 9일 현덕면의 각 동에서 산에 불을 놓고 만세를 불렀고, 3월 10일에는 오성면에서 평야와 산간지대에서 만세를 불렀으며 청북면에서는 토진리 뒷산 및 마루산, 新浦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나. 는 『평택군지』의 기록인데, 『삼일운동비사』의 내용을 인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자세한 실상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덕면에서 3월 9일 면사무소 소재지 뒷산에 모여 횃불을 들고 만세를 외쳤고, 3월 10일에는 오성면민이 숙성리 뒷산에 모여 만세를 불렀으며, 청북면에서도 토진리·마루산·신포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또 ‘왜군이 습격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첫째로 이들 자료는 해방 이후 자료이며, 당시 일제가 남긴 기록물과 신문보도자료에는 서평택 만세시위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제의 기록에 참여군중의 수나 사상자의 수가 축소된 경우는 있지만, 서평택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만세시위를 전부 누락시켰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평택 만세시위를 일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날짜에 대해 착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로 발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평택군지』에서 일제가 군중들에게 총을 쏘아 사상자가 났다고 기술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서평택 만세시위의 시기가 3월 말 이후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만세시위자를 진압하고 주모자를 검거하긴 했지만 발포명령을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sup>10)</sup>

만약 3월 9일과 10일에 만세시위가 펼쳐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4월 2일과 3일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4월 2일과 3일 진위군 내 다수의 지역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 일제가 발포하였고,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일본 외무성 기록물에서는 4월 2일 오성면 외 3개면에서 약 1천여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11명을 검거하였으며 폭행이 발생하였다고 전하고 있다.<sup>12)</sup>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서평택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水原郡의 三槐지역에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만세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4월 1일 밤 7시 長安面 水村里 介竹山를 시작으로 朝岩里 雙峯山, 八灘面 天德山, 鄉南面 佳材里 堂祭峰, 장안

10) 일본 외무성 기록물, 「朝鮮騷擾事件一覽表(京畿道の部)」,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在内地 十四』;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291~356쪽.

11) 김정명 편, 앞의 책, 554~555쪽.

12) 일본 외무성 기록물, 「朝鮮騷擾事件一覽表(京畿道の部)」,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在内地 十四』

면 석포리 舞鳳山, 漁隱里 南山, 雨汀面 梨花里 寶金山, 花山里 烽火山 등 각 산봉우리에서 일제히 봉화가 치솟았으며 봉화시위는 이틀날까지 계속되었다.<sup>13)</sup> 이 가운데 우정면 조암리의 쌍봉산은 포승면의 援汀里의 괴태곶 봉수와 서로 호응하는 역할을 하였다.<sup>14)</sup> 따라서 서평택 일대에서도 삼괴지역 봉화시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에 호응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괴지역과 서평택일대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천도교도인맥이 연결되어 있었다. 천도교 남양교구 산하에 8개의 傳教室이 존재하였고, 1918년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자금을 모금할 때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천도교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한편 현덕면 권관리에 천도교도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3·1운동의 주도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 3월 22일 현덕면 권관리 천도교인 李敏道, 李承燁, 崔利來, 崔赫來, 張容俊, 李麟秀, 崔宗煥, 李敏益, 崔貞來, 崔虞燮씨를 평택경찰서에서 호출하여 엄중한 심문을 하었는데 그중 이민도씨는 아들이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독립운동에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엄중한 취조를 받고 석방되었다.<sup>15)</sup>

라. 3월 23일에는 현덕면 권관리에 천도교도들이 움직일 기세를 보인다는 정보에 접한 왜경은 이곳 천도교도로 있는 李敏道, 李承燁, 崔赫來, 張容俊, 李麟秀, 崔京煥, 李敏益, 崔貞來, 崔慶燮 이상 9명을 평택 경찰서에다 구치하고 갖은 고문을 행했으며, 그 중에 이민도는 그 아들되는 사람이 천도교중앙본부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적극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악랄한 고문을 당하고는 석방되었다.<sup>16)</sup>

다. 는 『삼일운동비사』의 내용으로, 李敏道를 비롯한 현덕면 권관리 천도교인들을 평택경찰서에서 호출하여 심문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는 『평택군지』의 내용으로 다.를 보충하여 3월 23일 천도교도들이 움직일 기세를 포착한 일경이 이들을 경찰서에 구금하고 고문을 행했다는 내용이다. 즉 현덕면 권관리에 천도교도들이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제기록과 후대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수원군의 삼괴지역과 현덕면 권관

1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1쪽.

14)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上, 2001, 720쪽.

15) 이병헌, 앞의 책, 880쪽.

16) 평택군지편찬위원회, 99~100쪽.



리의 천도교도들이 서로 연계하여 4월 1일 수촌리를 필두로 삼괴지역에서 봉화형식의 만세시위가 일어나고, 이튿날 서평택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만약 서평택 일대의 만세시위가 추정한대로 4월 초라면, 평택지역에서 최초로 만세시위가 발생한 지역은 평택역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평택역에서는 3월 11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날은 평택시장의 장날이었는데, 오전에 역 근처에 만세를 부르자는 격문이 붙어 일경들이 경계를 하였고, 오후 5시가 되어 역앞 사거리에서 수십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자 진위경찰서에서 순사 수명과 보병 수명을 급파하여 주모자 7명을 체포하였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軍門里 다리 방향으로 행진하니 일경이 이를 해산시키고, 앞서 7명을 포함 총 13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李道相, 睦俊相, 沈憲燮, 韓泳洙, 閔應煥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sup>17)</sup>

3월 11일 평택역앞 시위는 자료에 따라 만세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15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sup>18)</sup> 한편 오전에 격문이 붙었다는 점, 만세시위 주도자로 체포된 이도상이 평택에서 만세를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아마도 평택역앞에서 만세시위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미리 일부 주민들에게 알려졌던 것으로 파악된다.<sup>19)</sup>

### 3. 3월말 ~ 4월 초 만세시위의 시공간적 검토

3월 초 평택과 안성에서 첫 시위가 일어난 후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다가, 3월말부터 4월초에 들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오늘날의 烏山·軍布·華城·龍仁·安城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달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그 양상을

17) 『삼일운동비사』에는 14인으로 기록되었으나 구체적인 명단에 석방자 2명, 학교장 신원담보 석방자 6명, 구속 5명 총 13명을 언급하고 있어 14명은 誤記로 생각된다. 이병헌, 앞의 책, 880쪽; 경성지방법원, 「이도상 외 4인 판결문」, 1919년 5월 5일; 「일곱명을 검거」, 『매일신보』, 1919년 3월 13일; 「騷擾事件의 後報」, 『매일신보』, 1919년 3월 25일; 일본 외무성 기록물, 「朝鮮騷擾事件一覽表(京畿道の部)」,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在内地 十四』; 「朝鮮各地の獨立運動に關する件」, 『朝鮮獨立運動』 I, 352쪽.

18) 『삼일운동비사』와 『평택군지』에서는 수천명이 참여하였다고 하나 일제측 기록과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점을 보아 4월 1일 3천여명이 참여한 2차 평택역 앞 만세시위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19) 경성지방법원, 「이도상 외 4인 판결문」, 1919년 5월 5일.

살펴보자면 3월 16일부터 水原面에서 철시와 만세시위가 3월 말까지 계속되었고, 城湖面(現 오산시)에서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오늘날 화성시에 속하는 松山面·雨汀面·長安面·鄉南面·八灘面·楊甘面 일대에서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규모 만세시위가 연이어 벌어졌다. 용인에서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 면에서 만세시위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안성군에서도 3월 28일부터 만세시위가 전개되다가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군청과 각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만세를 불렀다.<sup>20)</sup>

이렇듯 경기 서남부가 만세시위의 물결 속에 있을 때, 평택지역에서도 활발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삼일운동비사』에 따르면 3월 21일 北面(현 진위면)의 野幕里에서 만세시위가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北面 野幕里는 천도교구가 있고 교인이 많이 있는 곳인데 3월 21일 鳳陽里(鳳南里)의 오타 : 역주와 합세한 500여명이 태극기를 들고 면사무소를 습격한 후 면장을 앞세우고 만세를 부를 때 경찰과 수비대가 자동차로 달려가서 해산을 시키고 주모자 朴昌勳을 체포하였다.<sup>21)</sup>

마. 의 내용을 보면 북면 야막리에 천도교구가 있고, 이곳의 주민들이 봉남리 주민들과 합세하여 태극기를 들고 면사무소를 습격하였고, 면장을 앞세워 만세를 부르자 경찰과 수비대가 이를 해산시키고 주모자인 朴昌勳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록을 다음과 비교해보자.

바. 振威郡 北面 鳳南里는 천도교의 근거지라 할만한 곳인데, 과연 31일 5백명의 일대가 면사무소로 몰려가서 면장을 끌어가서 자못 위험한 때문에 수비병 경관의 일대가 자동차를 몰아 현장에 급행하였더라.<sup>22)</sup>

사. 피고 朴成伯, 崔九弘, 柳東煥, 金榮綠, 柳萬壽, 金鳳熙는 孫秉熙 등이 제창한 조선독립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동일 운동을 하려고 공모하여 대정 8년 3월 31일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구한국기 30장을 가지고 나와 경기도 북면 봉남리 주민을 선동하여 국기를 흔들며 약 4백명의 군중과 함께 북면사무소

2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1~356쪽

21) 이병헌, 앞의 책, 880쪽.

22) 「소요사건의 후보」,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3면.

앞과 경찰서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북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피고 유만 수 및 김봉희는 그 운동에 참가하여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름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 행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중략… 23)

바. 는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기사로, 내용을 살펴보면 봉남리는 천도교의 근거지라 할만한 곳이며, 5백명이 면사무소로 몰려가고 면장을 끌고갔으며, 일경이 자동차를 몰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다. 『삼일운동비사』의 내용과 비교하면 야막리라는 지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시위에 참여한 군중의 수가 500명이라는 점, 면사무소로 몰려갔다는 점, 면장을 끌어냈다는 점, 일경이 자동차를 몰고 와 해산을 시켰다는 점에서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사. 는 3월 31일 봉남리 만세시위를 주도한 인물인 朴成伯, 崔九弘, 柳東煥, 金榮綠, 柳萬壽, 金鳳熙의 판결문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3월 31일 오후 4시경부터 6시까지 사전에 제작한 태극기 30매를 들고 봉남리 주민 약 400여명과 면사무소·경찰서 앞 등에서 만세를 불렀고, 또 북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위 기록과 비교하면 참여자 수가 약 100명 차이이지만 내용은 거의 같으며, 만세시위를 벌인 시간과 면사무소와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부른 뒤 북면의 각 마을을 돌아다녔다는 내용 등이 보충되어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 기록물에는 소요인원 200명, 검거인원 17명으로 보고하고 있어, 정확한 군중 수에 대해서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수백명 규모였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sup>24)</sup>

이를 종합하면 『삼일운동비사』에 등장하는 3월 21일 야막리 만세시위는 3월 31일 야막리와 봉남리 등 북면 일대에서 벌어진 만세시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일운동비사』에는 일제측 자료에 등장하지 않은 박창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야막리의 천도교 교구장으로 1919년 2~4월 이 지역의 천도교인으로부터 1년치 誠米 1斗 2升을 받아 烏山市場에 판매한 100원을 천도교 중앙총부에 납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천도교의 독립만세운동을 후원하였다고 한다.<sup>25)</sup>

31일 북면 만세시위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벌어진 烏山지역 만세시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월 29일 오산에서는 군중 약 800명이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앞으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3월 31일에도 오산과 發安·古川·餅店·軍布 등지에서도 만세시위가 있었는데, 이 때 주도자 중 한명인 李圭璇이 진위군 북면 봉남리 출신이었다.<sup>26)</sup> 즉 3월 말 수원

23) 경성지방법원, 「박성백 외 5인 판결문」, 1919년 5월 9일.

24) 일본 외무성 기록물, 「朝鮮騷擾事件一覽表(京畿道の部)」,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在内地 十四』

25) 「중인 權思兢 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86.

군 남부지역, 즉 오늘날 오산·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만세시위와 연동하여 북면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고, 천도교도들이 이를 계획·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31일 북면 만세시위에 이어 4월 1일에는 평택전역에 만세시위가 확산되는데, 먼저 『매일신보』에 보도된 당시 평택지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아. 3월 31일부터 4월 1일의 이틀 사이에 京城에서 決死隊가 평택으로 내려갔다는 풍설이 일어남으로 평택에서는 극렬 경계하였던 바, 31일은 더욱이 밤을 세워가며 야경에 종사한 때문에 다행히 무사하였는데, 40리를 상거한 안성군은 30일내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31일에는 1천 5백여 명의 일대가 만세를 연히 부르며 시위운동을 하여 불온한 형세가 시시각각으로 팽박되었으나 동지는 내지인이 소수가 되어 자위상 불안한 때문에 31일 밤 안성경찰서로부터 자동차를 보내어 응원을 구하였으므로 평택 수비병이 현장에서 급행하였다더라.<sup>27)</sup>

자. 진위군 평택 조선인 상점은 4월 1일부터 철시를 하였으므로 당국에서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밤 9시 50분쯤 되어 평택정거장으로부터 서편으로 약 10정 되는 곳에서 소요를 시작하여 이에 따라 사방으로 일제히 산에 불을 피우고 자못 불온한 태도가 충만하였으므로 당국에서는 발포하였으나, 원래 여러 곳이었으므로 12시 20분 가량이니 되어 겨우 진정되었는데 사망자 4명 중상자 1명 경상자 10여명을 내었다. 4월 1일 밤 진위군 서면, 부용면에서 때를 지어 평택으로 향하여 오다가 안성천교 부근에서 소요를 시작하였으므로 동군 병남면, 송탄면, 고덕면에까지 차차 면연되었다. ...중략...<sup>28)</sup>

아. 는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기사로,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경성에서 결사대가 평택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있어 경계를 하던 중 안성군에서도 30일부터 만세시위가 일어나 안성경찰서에서 응원을 요청함에 따라 평택의 수비병이 안성으로 급히 파견을 갔다는 내용이다. 이를 보아 이른바 ‘결사대’라고 불린 세력이 만세시위를 계획·주도하고, 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는 『매일신보』에 보도된 평택지역 만세시위의 상황으로, 각지에서 일제히 산에 불을 놓

26) 경성지방법원, 「이성구 외 7인 판결문」, 1919년 11월 6일;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4~296쪽.

27) 「평택 엄중히 경계중」,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28) 「騷擾事件의 後報」,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

고 만세시위에 나서자 일경들은 주민들을 향해 발포하였고 새벽 12시 20분경이 되어서야 군중들이 해산하였다. 이 때 모인 군중의 수는 3,000여명에 이르렀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자료마다 다르나 사망자 5명, 부상자 10여명으로 추산된다.<sup>29)</sup>

2차 평택역앞 시위는 평택역 앞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면과 부용면, 병남면, 청북면, 고덕면, 북면과 당시 安城에 속하던 元谷面(현 평택시 죽백동)까지 평택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芙蓉面에서는 平澤 舊邑 뒤편에 있는 부용산에 불을 지르고 평택역 방면을 향해 떼를 지어 이동하였으며, 고덕면 울포리에서는 500여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sup>30)</sup>

시위의 중심지역인 병남면 일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데, 北面 銀山里에서는 鄭庚淳, 崔善有 등의 주도하에 주민 수십명이 만세시위에 나섰다.

차. 대정 8년 4월 1일 밤 피고 鄭庚淳은 진위군 북면 은산리에서 동리 주민 여러 명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고 선동하여 동리에서 다수의 주민과 독립만세를 불렀고, 피고 崔善有는 이 군중들에게 동면 봉남리 순사주재소에서 가서 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고 선동하며 동 피고가 선두에 서서 그 주재소 앞에 몰려가 조선 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검사의 피고인 정경순 신문조서 중 피고는 판시 목적으로 위 마을 주민 鄭文學 외 2명에게 나와서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방화하겠다고 권유하여 북면 은산리 산 위에서 약 30명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고 다시 거기부터 봉남리 순사 주재소로 몰려가서 만세를 3번 정도 불렀다 ... 중략...<sup>31)</sup>

차. 는 은산리 만세시위의 주도자인 정경순과 최선유의 판결문으로 내용을 보면 은산리 주민들 다수를 모아 산 위에서 약 30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다시 봉남리 순사주재소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전날 봉남리에서 박성백을 비롯한 주민 400~500명이 면사무소로 몰려들어가 면장을 끌어내고 만세시위를 불렀으므로, 이날에는 면사무소 대신 순사주재소

29) 『매일신보』에서는 사망자 4명 중상자 1명 경상자 10여명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일제의 다른 기록에는 사망자가 5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상자 1명이 얼마 못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요사건의 후보」,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 「朝鮮各地の獨立運動に關する件」, 『朝鮮獨立運動』 I, 489쪽.

30) 「騷擾事件의 後報」,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 일본 외무성 기록물, 「朝鮮騷擾事件一覽表」, 『不逞團關係事件朝鮮人の部 在内地 十四』.

31) 경성지방법원, 「鄭庚淳 외 1인 판결문」, 1919년 5월 16일.

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날 청북면 柏峰里에서는 安六萬과 金元根이 “이 마을에서는 어찌하여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느냐. 빨리 나와 부르자”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 수십명과 함께 만세를 연호하였다.<sup>32)</sup>

만세시위의 기세는 이튿날에도 계속되었다. 4월 2일 송탄면에서는 각 리에서 불을 지르며 만세시위를 하였고, 일제가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오성면 안중리(현 안중읍) 부근에서도 만세시위가 벌어져 일경이 이를 해산시켰다.<sup>33)</sup> 특히 송탄면 獨谷里의 경우 일반인과 학생들 약 500명이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1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고 한다.<sup>34)</sup> 서탄면에서는 면장과 면서기가 주도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진위군 서탄면 내에서 각 주민을 선동하여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여, 대정 8년(1919년) 4월 2일 오전 3시경 서탄면 면서기 피고 韓聖洙에게 명령, 각 구장 앞에 동일 오전 10시경을 기하여 각 주민을 인솔하여 면사무소에 모여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자, 만약 이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큰 병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각 구장으로 하여금 주민을 선동하여 같은 날 정오경 서탄면 면사무소 앞 광장으로 주민 약 400명을 모이게 하고, …중략… 모두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중략…<sup>35)</sup>

카. 는 서탄면장 尹箕善에 대한 판결문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서탄면장 윤기선은 만세시위를 계획하여 오전 3시 면서기 韓聖洙에게 구장 앞으로 만세시위 참여를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게 하고, 그리하여 정오경 면사무소 앞 광장으로 주민 약 400명을 모아 독립만세를 연호하도록 하였다.

다음날인 4월 3일에도 만세시위는 계속되어, 군내 수 곳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고, 일경에 의해서 해산되는 과정에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3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지역 가운데 현재 확인이 가능한 곳은 오성면 鶴峴里(현 안중읍 학현리)인데, 공재록, 김용성, 이사필 등이 주민 12~13명과 함께 4월 3일 밤 학현리 鳳梧山 위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이들 가운데 金容成, 孔在祿, 李思弼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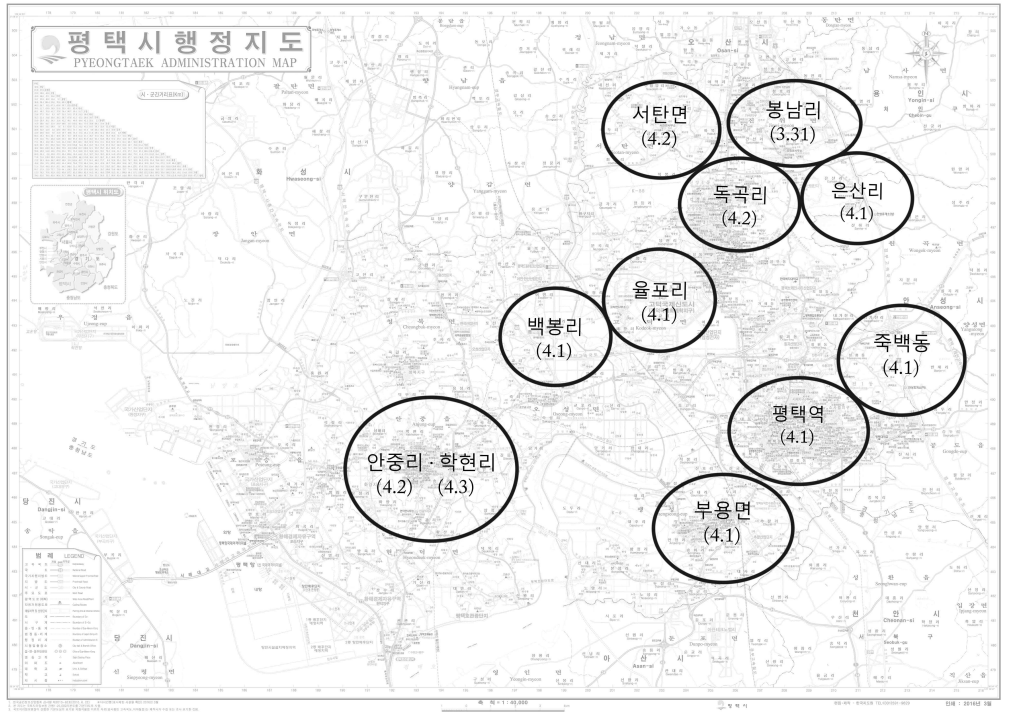
32) 경성지방법원, 『安六萬 등 판결문』, 1919.05.16.

33) 일본 외무성 기록물,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四」, 1919년 4월 5일.

34) 일본 외무성 기록물, 「朝鮮騷擾事件一覽表」,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在內地 十四』.

35) 경성지방법원, 「윤기선 판결문」, 1919년 6월 17일.

3월 31일~4월 3일 평택지역 만세시위 전개도



일제가 만세시위에 참여한 군중에 대하여 발포하고, 군중들 역시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4월 3일 이후 만세시위는 약간의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4월 9일과 10일 무렵 고덕면과 서탄면에서 마지막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자료에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4월 1일 밤 9시경에 평택정거장으로부터 시위 운동이 시작되자 이에 호응하여 각 처에서 일제히 산상에 불을 놓고 소요함으로 경찰은 형세가 급하다고 인정하고 발포하기를 시작하였다. ...중략... 고덕면에서도 만세를 부르며 평택읍으로 달려 오려고 함으로 일본사람들은 겁이 나서 일제히 상점문을 닫았다. 고덕면에서는 전일 만세 부른 후 종시 평온하지 못하여 경찰은 수비대와 평택자위대와 같이 현지에 출동하여 부근 촌락을 때때로 순찰하고 돌아올 때에 두릉리 안재홍씨 집에서 수색을 함을 보고 부근 주민들이 격분하여 만세를 부르며 반항할 기세를 보임에 경찰은 군중을 향하여 발포하여 6, 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sup>37)</sup>

36) 경성지방법원, 「김용성 외 2인 판결문」, 1919년 5월 20일.

37) 이병헌, 앞의 책, 880~881쪽.

파. 진위군 고덕면에서는 지난번 소요 이래로 일항 평정치 못하던 바 경관대는 병정 8명과 평택자위단원 8명과 함께 선동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출장한 후 근처 촌락을 순찰하고 돌아가고자 할 때 9일 오후 8시쯤 되어 군중이 반항의 기세를 보이고 소요하였으므로 발포하였는데 밤중의 일이 되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6, 7명이 죽고 60여명이 부상하였더라.<sup>38)</sup>

타. 는 『삼일운동비사』의 내용으로, 고덕면에서 4월 1일 만세시위에 참여하자 다음날 경찰이 수비대·평택자위대와 함께 이 지역을 순찰하였고, 이 과정에서 안재홍집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격분하여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자 일경이 이들을 향해 발포하여 6, 7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파. 는 『매일신보』의 기사로, 고덕면 일대가 만세시위 이후 불안하여 4월 9일 경찰이 병사 8명·자위단원 8명과 함께 선동자를 검거하기 위해 순찰하고 돌아갈 때 군중들이 반항의 기세를 보여 발포하였는데, 밤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6, 7명이 죽고 60여명이 부상당했다는 내용이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고덕면 일대가 만세시위 이후 불안하였다는 점, 둘째 경찰이 군인·자위대와 함께 순찰하였다는 점, 셋째 주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만세시위를 벌이자 이들을 향해 발포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시기와 주민피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삼일운동비사』에서는 4월 1일 만세시위 다음날 바로 고덕면에서 만세시위가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매일신보』에서는 4월 9일에 만세시위가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일운동비사』에서는 6,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으나, 『매일신보』에서는 6, 7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나, 『매일신보』가 당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4월 10일 西炭面 일대에서 평택지역의 마지막 만세시위가 있었다. 일제측 기록에는 주민 약 40여명, 『삼일운동비사』에는 약 100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적어도 4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경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하였고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천도교도들이 만세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sup>39)</sup> 일경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한 군중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평택지역의 만세시위도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였다.

38) 「各地의 騷擾」,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

39) 김정명 편, 앞의 책, 618쪽; 이병헌, 앞의 책, 881쪽; 일본 외무성 기록물, 「朝鮮騷擾事件一覽表」,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在内地 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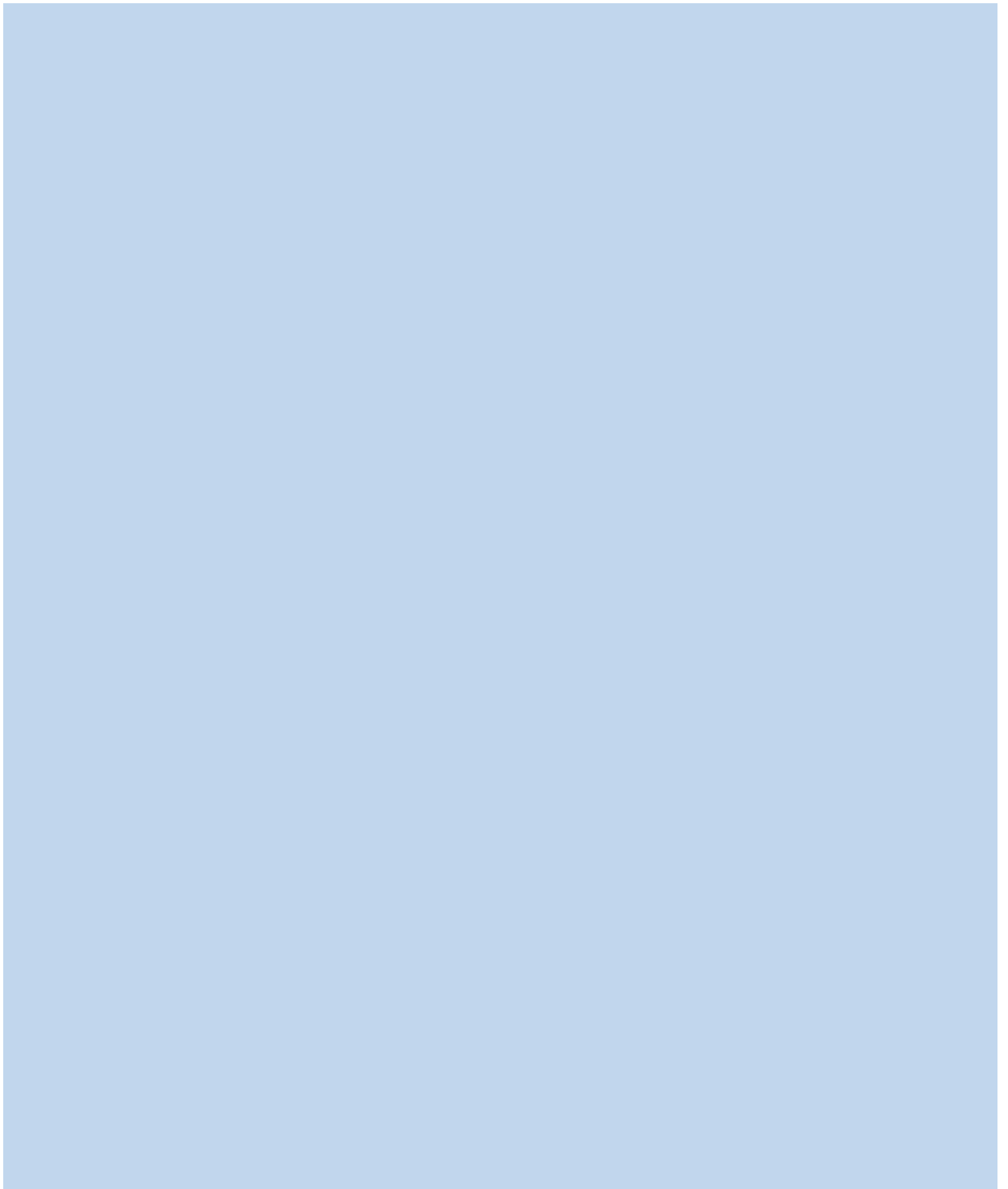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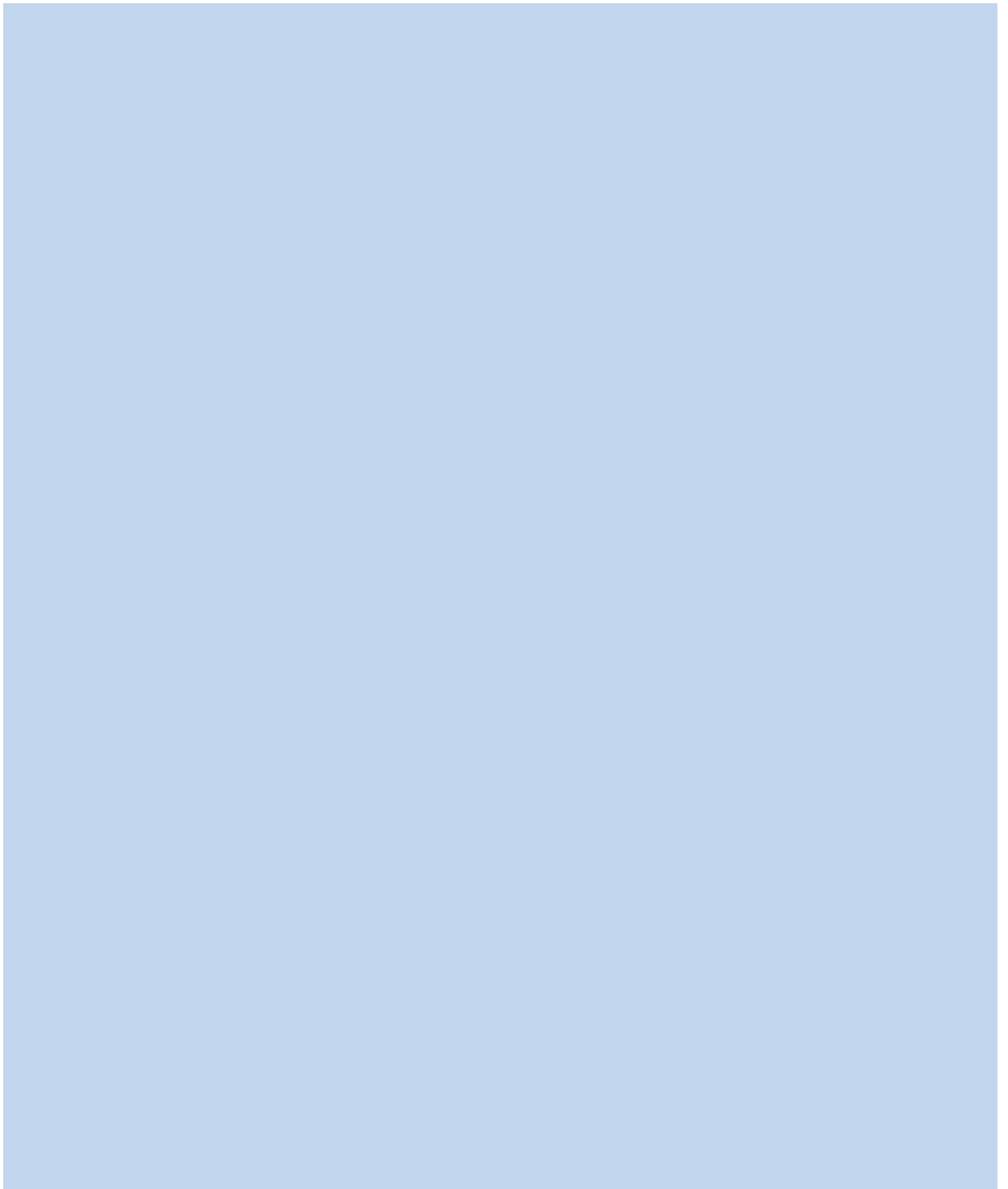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 4. 맺음말

이상으로 평택지역 3·1운동에 대해 시공간적 검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평택지역에서 만세시위가 어디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삼일운동비사』의 기록에 따라 3월 9일 현덕면 일대를 만세운동 발상지로 보았다. 그러나 『삼일운동비사』는 3·1운동이 벌어진 뒤 40년 뒤에 쓰여진 기록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현덕면과 인근의 오성면, 청북면 등까지 확산된 대규모 시위에 대해 일제측 기록과 『매일신보』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날짜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둘째로 만일 『삼일운동비사』에서 서평택 일대의 만세시위의 날짜를 혼동했다면 언제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월 2~3일 무렵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전날인 4월 1일 인근지역인 수원군 우정면·장안면·팔탄면·향남면 일대에서 천도교도들의 주도로 홑불시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세력이 천도교도들로 추정되는 바, 천도교세력이 컸던 수원군 서남부(현 화성시 서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만세시위가 서평택으로 이어져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평택지역 최초의 만세시위지는 평택역이 될 것이며, 날짜도 3월 11일로 정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은 경기 서남부 지역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로 3월 말~4월 초 평택 전역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 대한 정리이다. 기존에는 3월 21일에 야막리 만세시위가 벌어졌다고 보았으나 검토결과 3월 31일 야막리·봉남리 등 북면(오늘날 진위면) 일대에서 벌어진 만세시위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21일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4월 1일부터 평택 전지역에서 만세시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일제의 탄압에 의해 죽거나 다쳤다. 이 가운데 고덕면의 만세시위의 경우 기록에 따라 날짜와 피해인원이 다르지만, 당시의 기록에 신빙성의 무게를 둔다면 4월 9일 밤에 전개되어 6, 7명이 죽고 6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학생운동

박 경(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평택 출신 학생들의 항일운동
3. 평택 브 나로드운동과 학생들의 참여
4. 맺음말

### 1. 머리말

식민지시대 항일민족운동은 남녀노소 및 지식인,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의하여 입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은 운동의 선도세력으로서 민족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학생들은 3·1운동 및 그 이후 항일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평택의 경우도 일찍부터 항일민족운동의 중심지역으로 이곳 출신 학생들은 서울로 유학하여 일찍부터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평택에서 브 나로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평택지역 민족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

택지역의 학생운동에 대하여는 거의 주목하지 못하였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해방이 될 때 까지는 전시체제였다. 이 시기에는 모든 항일운동이 지하화 되었던 민족운동의 침체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한계 속에서 평택 출신 학생들은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30-40년대 평택지역의 학생운동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평택지역의 학생운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택시에서 발간한 『평택시사』(2014), 『평택시독립운동사』(2004),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2015,2016)이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일제 측 자료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인 『思想에 關한 情報』, 『警察狀報』 등을 참고했으며, 브나로드운동의 경우 동아일보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본문에서는 2장 평택 출신 학생들의 항일운동에서 1930~40년대 학생운동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피고 평택인들이 어떠한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가 학생운동에서 평택인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장에서는 평택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브나로드운동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동아일보』에 기록된 브나로드운동 대원, 강습소, 참여 인원, 수업진행과 관련한 여러 어려움 등을 토대로 평택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2. 평택 출신 학생들의 항일운동

평택 출신으로 서울(경성)로 유학을 간 학생들은 1930년대부터 1945년 해방직전까지 학생 신분으로 여러 학생운동과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29년 11월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1930년 3월까지 194교 54,000여 명이 참가하여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sup>1)</sup> 특히 서울의 많은 학생들이 광주학생 지원과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을 규탄하고 성토·시위·동맹휴교 등을 단행하였다. 평택 출신 학생들도 이 시위에 동참하였는데, 경성농업학교의 徐丙昌, 경신학교의 李相龍 등이 시위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1년부터 1934년까지는 동아일보사가 개최한 브나로드운동이 학생운동으로 크게

---

1) 김호일,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283쪽.

대두되었다. 문화계몽을 통한 항일운동이라 할 수 있는 브나로드운동은 학생들이 하기방학 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지역의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문맹퇴치운동을 진행하는 것이었다.<sup>2)</sup> 평택 출신 학생들은 브나로드운동으로 한글보급에 앞장서면서 문맹퇴치의 교육운동, 문화운동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1932년 일제가 만주국을 수립하고 식민지배체제를 전시체제로 바꿈에 따라 학생들 또한 일제에 항거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특히 광주학생운동 이후 나타난 새로운 학생조직은 반제동맹으로, 국내에서의 반제동맹은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을 맺으며 결성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계열 단체에 반제부가 설치되었으며, 각 학교의 독서회가 반제동맹으로 발전하기도 했다.<sup>3)</sup> 이때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반제동맹을 조직한 이가 진위군 현덕면 출신의 韓俊澤이다. 한편 전시체제가 심화됨에 따라 1941년에는 일본인, 친일파 처단 등을 행동목표로 한 학생단체 흑백당이 조직되었는데 평택인 李慶春이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평택출신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병창: 광주학생운동, 문맹퇴치운동

서병창(1911~?)은 경기도 진위군 오성면 출신으로 1928년 경성농업학교에 진학하였다. 1929년에서 1930년 1월 사이 전개된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서병창은 1930년 이 소식을 듣고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여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sup>4)</sup> 1931년에는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브나로드운동에 참여하여 고향인 오성면에 강습소를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8월 말까지 강습회를 진행했다.<sup>5)</sup>

### 2) 박창훈: 학생운동전위그룹, 문맹퇴치운동

박창훈(1912~?)은 진위군 청북면 울북리 출신으로 경성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학

2) 김호일,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295쪽.

3) 윤선자, 「광주학생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변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35, 2010, 81쪽.

4) 「[京畿道學生動搖事件] 退停學生徒의 處分表에 관한 건(1930.06.09.)」, 『思想에 關한 情報綴』(6).

5) 『동아일보』 1931년 8월 6일 「제1회 학생 하기브나로드운동(6)」; 『동아일보』 1931년 9월 1일 「제2회 학생 브나로드운동(22)」

생운동전위그룹에 참여했다. 1932년 보성고등보통학교 4학년생으로 權益洙, 李夢泰와 함께 보성고보 4학년생 池永甲이 이끄는 좌익학생운동전위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는 사회과학서적의 학습과 시사문제의 연구·비판을 통해 사회의식과 계급의식을 형성한 후 이를 전파하여 동지를 획득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sup>6)</sup> 같은 해 하기방학에는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제2회 브나로드운동에 참여하여 고향인 진위군에 내려가 문맹퇴치운동에 앞장선 바 있다.<sup>7)</sup>

### 3) 한준택: 반제동맹, 동맹휴학

한준택(1916~2003)은 1916년 진위군 현덕면에서 출생하였다.<sup>8)</sup> 안중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sup>9)</sup> 1933년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韓東正 등과 함께 중앙반제동맹이라는 적색비밀결사를 결성하였다.<sup>10)</sup> 반제동맹이란 학교 내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주도하는 단체로 이후 혁명적 농민조합이나 노동조합, 공산당에 들어갈 예비요원들이 거쳐 간 학생조직이라 할 수 있다. 중앙고보 반제동맹(반제운동전교오르그위원회)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한동정을 총 책임자로, 갑조 책임자를 한동정, 을조 책임자를 양승언, 병조 책임자를 유연으로 정하였다. 한준택은 1934년 한동정이 이끄는 '4년생 갑조 오르그' 중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삼아 사회주의사상 연구하였으며 1933년 11월과 1935년 2월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sup>11)</sup> 그는 사회주의사상을 공부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취하였고, 동맹휴학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통치체제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일로 인해 한준택은 치안유지법 및 폭력 혐의로 일경에 피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sup>12)</sup>

6) 「學生運動 前衛組織에 관한 건(1932.12.16.)」, 『思想에 關한 情報』(2)

7) 『동아일보』 1932년 7월 10일 「제2회 브나로드 계몽대면 참가씨명(6)」

8)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한준택)」.

9)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324쪽.

10)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秘密結社事件에 관한 건(1935.04.04.)」; 「秘密結社 中央高普 反帝運動 全校 오르그 委員會事件 檢舉에 관한 건(1935.05.22.)」, 『警察狀報』

11)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暴行事件에 관한 건(1935.02.23.)」; 「私立中央高等普通學校 暴行事件에 관한 건(2)(1935.03.26.)」, 『警察狀報』

12) 『동아일보』 1935년 5월 4일 「중앙고보생사건 입찰명 금조송국」; 『매일신보』 1935년 5월 15일 「中央高普事件 豫審廻附의 詳報」.

#### 4) 이경춘: 흑백당

이경춘(1925~2011)은 진위군 포승면 만호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안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sup>13)</sup> 1939년부터 경성고등보통학교의 이현상 등과 동지적 결합을 맺고 조국 광복을 위해 친일파 및 일본인 고관을 처단하기로 결의하고 활동하였다. 그 후 목적완수를 위해 계획을 진행하였는데, 1941년에 경성광산전문학교에 진학한 그는 동년 가을 당시 朱樂元의 집에 모여 정식으로 흑백당을 결성하고, 선언문·강령·규약 등을 정하였다. 이때 그는 흑백당의 중앙집행위원의 일을 맡았다.<sup>14)</sup> 이들은 행동방략으로써 친일파 처단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일본인 거주지를 방화하여 일인을 섬멸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일제의 패망과 조국광복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격문을 각처에 뿌려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항일봉기를 준비하였다.<sup>15)</sup>

흑백당의 동조자였던 보성전문학교학생 金昌欽이 1943년 10월에 일경에 체포되었고, 이때 가택수색과정에서 흑백당에 관한 문서가 발각됨으로써 동결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국내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므로 당원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중국으로 건너가 광복군에 투신하기로 결정하고 1943년 12월초부터 중국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탐지한 일경의 추격에 의해 흑백당원들은 1944년 1월경 체포되었다.<sup>16)</sup> 그도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sup>17)</sup>

### 3. 평택 브 나로드운동과 학생들의 참여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학생들의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문자보급운동 즉, 문맹퇴치의 교육운동, 문화운동으로서의 대중운동을 주도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1928년 4월 1일 창간 9주년 기념일을 기해 문맹타파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

13)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322쪽.

14) 「주낙원(朱樂元)의 수기」,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77, 1003쪽.

15) 홍건표, 「흑백당사건(사본)」, 1964; 김호일,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351쪽 재인용.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9; 학생독립운동사, 1969, 793쪽.

17)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323쪽.



으나 총독부의 제지로 시작하지 못하다가 1931년 7월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sup>18)</sup>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학생 하기 브 나로드운동’을 주취하였다. 본래 ‘브 나로드(Vnarod)’란 19세기 러시아의 지식층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 벌인 계몽운동으로서 ‘인민 속으로’라는 뜻이다. 『동아일보』의 브 나로드운동 역시 민중 속으로 들어가 문맹 타파·국문보급·위생지식 보급을 꾀한다는 목표를 가진 일종의 계몽운동이었다.<sup>19)</sup>

1931년 7월 제1회 ‘학생 하기 브 나로드운동’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에 따르면 이 운동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첫째는 중학교 4~5학년생이 주체가 되는 ‘학생계몽대’로서 조선문 강습과 숫자 강습을 1주일 이상 시키는 것이었다. 활동 지역은 각자의 향리나 인접지역으로 한정하고, 한 곳에 2인 이상이 협력하여 가르칠 것을 추천하였다. 둘째는 전문학교생이 주체가 되는 ‘학생강연대’로서, 강연 내용은 위생과 학술로 구분하고, 학술강연회에서는 음악이나 무용을 곁들여 청중의 흥미를 곁들이도록 권장하였다. 셋째는 전문학교 학생과 중학 상급생 이상이 주체가 되는 ‘학생기자대’로서, 기행일기·풍경·고향통신·생활체험 등을 취재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sup>20)</sup> 한편 학교 교원, 서당 선생, 동리 유지, 일반 지식청년으로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학생대외는 다른 ‘별동대’를 따로 두어 활동하도록 했다.<sup>21)</sup> 학생계몽대가 사용할 교재로는 이운재편의 『한글공부』, 백남규편의 『일용계산법』을 동아일보사에서 마련하여 나누어주기로 했다.<sup>22)</sup>

브 나로드운동 전개 소식에 서울에 고등보통학교를 다니고 있던 많은 학생들이 고향의 문맹퇴치를 위해 나서게 되었다. 평택지역에서도 브 나로드운동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휘문보통고등학교, 양정고등보통학교, 배재보통고등학교 등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하기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와 브 나로드운동의 대원으로 평택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강습소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 문맹퇴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

1929년 1월 『동아일보』에서는 지난 10년간 설립된 각 군별 교육기관, 사회기관, 경제기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중 1920년대 진위군에 설립된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소개되었다.<sup>23)</sup>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18)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사』 1, 1975, 292~295쪽.

19) 김호일,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303쪽.

20) 『동아일보』 1931년 7월 16일 「제1회 학생 하기 브나로드운동」

21) 『동아일보』 1931년 7월 23일 「학생브나로드운동 空前의大反響惹起」

22) 『동아일보』 1931년 8월 4일 「제1회 학생 하기 브나로드운동」

23) 『동아일보』 1929년 1월 12일 「십년일람 현저히 발달된 찬연한 지방문화(11)」

<표1> 1929년 진위군 교육기관 일람표

교육기관	설립일	설립자	설립 시 학생 수	현재 학생 수	교원 수	현 회장
진위청년회야학부	1928년 5월 5일	李敏斗	82	121	6	李成烈
대추리강습소	1928년 7월	朴東熙 외 4명	45	37	5	方俊容
부용유치원	1928년 5월	金仁淳	35	23	1	朴炳武
삼정리아학원	1928년 9월	鄭時復	3	2	1	鄭時復
도두리아학원	1927년 12월1일	鄭雲鳳	32	37	2	鄭雲鳳
서정리공립보통학교	1922년 6월		26	356	7	進直好
안중공립보통학교	1922년 5월 10일		202	431	7	吉田熙
청북공립보통학교	1926년 9월 13일		120	226	4	井關學
부용공립보통학교	1927년 10월 13일		155	129	2	小武愛人

<표1>를 통해 볼 때 1922년 안중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1928년 삼정리아학원까지 총 9곳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택지역에는 1898년 진위소학교부터 몇몇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에도 9곳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1929년 1월 이 9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약 1300여명, 그리고 그 외의 학교나 서당, 야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브나로드운동이 전개되기 얼마 전인 1929년 평택지역에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평택이 대표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농사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여성이 매일 학교 수업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서울로 유학을 간 학생들은 이러한 평택지역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동아일보에서 개최하는 브나로드운동이 자신의 고향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평택인들의 입장에서도 7월에서 8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한글과 수학을 배울 수 있고 더욱이 강습비가 없다는 점은 교육을 받은 적 없는 많은 평택인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브나로드운동에 참여하여 평택지역의 문맹퇴치를 위해 활동하였을까.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동아일보』에 기록된 평택지역 브나로드운동 참여인물은 총 32명이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sup>24)</sup>

<표2> 평택지역 브 나로드운동 참여인물 일람표

참여 년도	이름	당시 나이	학교(학년)	활동
1931	徐丙昌	21	경성농업학교(4)	진위군 오성면 숙성리 강습소 책임대원
	李敏珩			포승면 내기리 강습소 책임대원
1932	申東敏	19	경성실업전수(2)	청덕면 대안리 강습소 책임대원
	方文奎	17	배재고보(2)	
	梁在顯	16	배재고보(2)	
	徐柄林	19	배재고보(4)	평택면 평택리 강습소 책임대원
	朴昌勳	19	보성고보(4)	
	鄭爽鎭	19	양정고보(3)	
	金英植*	20	양정고보(4)	
	嚴昌燮	21	양정고보(4)	송탄면 신장리 강습소 책임대원
	孫基德	16	중앙고보(1)	
	李重植	18	휘문고보(3)	
	金德東			포승면 원정리 강습소 책임대원
	李圭喆			송탄면 가재리 강습소 청년반 강사
	李圭瑀			上同
	李鍾熙			上同
	崔基鳳			송탄면 가재리 강습소 소년반 강사
	崔基德*			上同
	崔基駿			上同
崔壽男			송탄면 가재리 강습소 여자반 강사	
崔基哲*	21		송탄면 가재리 책임대원, 후원자	
1933	沈仁求			송탄면 도일리 강습소 책임대원

24) 1931년~1934년 『동아일보』 ‘브 나로드운동(하기계몽운동)’기사 중에서 평택 출신 인물들을 찾아 정리하였다.

	李鍾麟			부용면 동창리 강습소 책임대원
	崔基哲*	22		평택면 평택리 강습소 책임대원
	朴炳龜			평택면 평택리 강습소 남자 한글반 강사
	金英植*			上同
	徐柄林*			평택면 평택리 강습소 남자 일계법 강사
	安範洙			上同
	吳壽男			평택면 평택리 강습소 여자반 강사
	金淑子			上同
	朴性勳			현덕면 덕목리 강습소 책임대원
1934	崔基德*		양정고보(?)	포승면 내기리 강습소 책임대원
	尹秉修		휘문고보(?)	오성면 대반리 강습소 책임대원
	李春煥		연희전문(?)	진위군 석곡리 강습소 책임대원
	李忠?		별동대	송탄면 도일리 강습소 책임대원
	李龍九		별동대	현덕면 운정리 강습소 책임대원

(\*는 2회 이상 이상 참여한 인물)

<표2>을 통하여 볼 때, 재학 중인 학교, 학년, 나이를 알 수 있는 인물은 총 14명이다. 경성 농업학교 1명, 경성실업전수학교 1명, 배재고보 3명, 보성고보 1명, 양정고보 4명, 연희전문학교 1명, 중앙고보 1명, 휘문고보 2명이다. 출신학교의 경우 배재, 양정, 휘문 등 사립학교 출신들이 다수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동대로 적혀있는 인물이 2명이 있고, 그 외에 16명의 인물들은 소속을 알 수 없지만 별동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지역의 유지나 지식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활동지역의 경우, 진위면, 송탄면, 오성면, 포승면, 현덕면, 평택면, 부용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개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송탄면이 다수 언급됨이 주목된다.

브나로드운동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대원들은 우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했다. 『동아일보』 1932년 8월 2일자 기사는 당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 대원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려준다.

귀사의 열성으로 된 브나로드운동으로 말미암아 지난 19일 평택지국을 방문한 후 20일 대안친목회를 조직하고 현덕면 주재소에 량해를 구하고 안중공보교 길전교장의 동정을 바닷으며 이십일 대안리 여러 부형께 인사차로 방문하여 브나로드에 대한 말을 하였고 22일부터 노트연필 1개씩을 주고 브나로드 개학식을 거행하였습니다.<sup>25)</sup>

위의 기사처럼 동아일보 평택지국과 평택경찰서, 수업을 개최할 지역의 주재소, 학교에 양해를 구해야 했으며, 집집마다 방문하여 브나로드운동을 소개해야 했다. 대원들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학교가 열린다는 것을 홍보하기도 하고, 한 가정 한 가정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책과 연필을 나눠주면서 문맹퇴치운동에 대해 소개하였다.<sup>26)</sup> 그러는 와중에 여자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야 하나며 찾아온 대원을 내쫓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sup>27)</sup>

이러한 준비 끝에 1931년 7월 31일 진위군 오성면 숙성리에서 처음으로 브나로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아래의 <표3>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평택지역에서 진행된 브나로드운동의 강습소 위치와 인원, 교원 수, 개강일과 종강일, 책임대원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3> 평택지역 브나로드활동(1931-1934) 일람표

년도	강습소 위치	인원		교원 수	개강일	종강일	책임대원 (소속학교)	특기사항
		남	여					
1931	오성면 숙성리	38	13		7월31일	8월 말	서병창(경성 농업)	
	포승면 내기리	18	5		8월10일	8월25일	이민각	
1932	청덕면 대안리	27	28		7월22일	8월2일(중지)	신동민(경성 실업)	경찰의 제지로 수업중단
	송탄면 신장리						엄창섭(양정) 김영식(양정)	30세 이상 농민 대상
	송탄면 가재리	40	20	7	7월15일		최기철	

25) 『동아일보』 1932년 8월 2일 「제2회 학생브나로드운동 각지대원소식 (4)」

26) 『동아일보』 1933년 7월 27일 「천오백계몽대원활동 제3회 학생계몽운동 각지대원소식 (1)」

27) 『동아일보』 1933년 9월 6일 「천오백계몽대원활동 제3회 학생계몽운동 각지대원소식 (24)」

	평택면 평택리 진청학원	58	35		8월1일	8월 6일(중지)	서병림(배재) 김영식(양정)	경찰의 제지로 수업중단
	서면 남산리	42	25		7월25 일	8월15일	김영노(휘문)	
	포승면 원정리	30					김덕동	
1933	송탄면 도일리	24	25		7월18 일		심인구	
	부용면 동창리	34	7		7월23 일	8월23일	이종린	
	평택면 평택리 진청학원	152	50	11	8월14 일	9월14일	최기철	
	현덕면 덕목리	8	10	1	8월1일	8월25일	박성훈	
1934	포승면 내기리						최기덕(양정)	
	오성면 대반리						윤병수(휘문)	
	석곡리						이춘환(연희)	
	송탄면 도일리						이충?	
	현덕면 운정리	4	17	1	7월27 일		이용구	

<표2>를 통해 볼 때, 1931년에는 두 곳에서 강습소가 열렸으나 1932년부터는 6곳으로 늘어났으며, 1933년에는 4곳, 1934년에도 5곳에서 강습소가 열렸다. 포승면 내기리의 경우 1931년, 1934년 두 번 강습소가 세워졌고, 평택면 평택리의 경우에도 1932년에 이어 1933년까지 강습소가 운영되었으며, 송탄면 도일리 또한 1933년에 이어 1934년에도 강습소가 운영되었다.

강습소는 개인의 집에서 열리기도 하고 학교를 빌리기도 하였다. 1931년 포승면 내기리에서는 이민중의 방이 강습소로 이용되었고,<sup>28)</sup> 1932년 서면 남산리의 강습소는 강대설의 집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평택면 평택리에서는 진위청년회에서 세운 진청학원에서<sup>29)</sup>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강습 인원은 최소 18명부터 최대 200명인 강습소가 있었으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30세

28) 『동아일보』 1931년 9월 19일 「제1회 학생 브나로드운동 계몽대소식」

29) 『동아일보』 1928년 5월 14일 「진청학원설립」

이상의 농민부터<sup>30)</sup> 7살의 여자아이까지 있었다.<sup>31)</sup> 남녀의 비율은 대체로 남학생 수가 많지만 여학생 수가 남학생보다 많은 강습소도 있었다. 강습기간은 15일부터 30일 정도였으며, 1932년에는 두 강습소가 수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수업을 중지당한 일이 있었다.

책임대원의 경우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브나로드운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확인되는 인물이 9명이며, 그 외에 최기철, 이용구 등은 지역유지나 지식인으로 추정된다. 이용구의 경우 별도대로 기록되어있고, 최기철은 별도대로 기록되어있지는 않지만 1932년 송탄면 가재리 강습소의 책임대원이자 후원자로 기록되어있기 때문에<sup>32)</sup> 지역 유지로 추정하였다.

강습소에서는 대원들이 동아일보사에서 제공한 『한글공부』와 『일용계산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sup>33)</sup> 대원들은 청년에게는 앞의 두 책을 가지고 한글과 기본 수학을, 아이들의 경우에는 동화를 통해 한글을 가르쳤다.<sup>34)</sup> 학생들은 한 달 남짓의 짧은 수업기간이었지만 편지를 쓰거나 신문을 읽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고 한다.<sup>35)</sup>

브나로드운동은 대체로 대원이 수업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유지의 후원을 받거나 청년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1931년 오성면 숙성리 강습소의 경우 대원 서병창이 모든 강습 관련 비용을 후원자 없이 스스로 부담한 반면,<sup>36)</sup> 1933년 평택면 평택리 강습소는 동아일보 평택지국이 후원하였으며,<sup>37)</sup> 현덕면 덕목리 강습소는 은진강습회에서,<sup>38)</sup> 1934년 현덕면 운정리 강습소는 지역유지들이 돈을 모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sup>39)</sup>

평택지역에서의 브나로드운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평택면 평택리 진척학원에서 진행된 브나로드운동은 1932년, 1933년 모두 일제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1932년의 경우 8월 1일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5일 만인 8월 6일 평택경찰서에서 책임대원 김영식과 서병림을 정식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업을 중지하게 하였다.<sup>40)</sup> 또한 1933년에도 진척학원의 브나로드 운동은 일제의 방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0) 『동아일보』 1932년 8월 4일 「제2회 학생 브나로드운동 각지 대원소식(6)」

31) 『동아일보』 1931년 9월 1일 「제1회 학생브나로드운동(22)」

32) 『동아일보』 1932년 8월 21일 「제2회 브나로드운동 각지 대원소식(20)」

33) 『동아일보』 1931년 8월 4일 「제1회 학생 하기 브나로드운동」

34) 『동아일보』 1932년 8월 21일 「제2회 브나로드운동 각지 대원소식(20)」

35) 『동아일보』 1932년 9월 7일 「제2회 브나로드운동 각지 대원소식(33)」

36) 『동아일보』 1931년 8월 6일 「제1회 학생 하기 브나로드운동(6)」

37) 『동아일보』 1933년 8월 12일 「천오백 계몽대원 활동 제3회 학생계몽운동 각지 대원소식(9)」

38) 『동아일보』 1933년 9월 6일 「천오백계몽대원활동 제3회 학생계몽운동 각지 대원소식(24)」

39) 『동아일보』 1934년 8월 18일 「전도에 전개된 계몽전선(8)」

40) 『동아일보』 1932년 9월 10일 「제2회 학생브나로드운동 각지 대원소식(36)」

돈있는 자녀들은 보통학교로 들어가고 돈없는 자녀들은 야학 서당 그 외에는 전부가 나무지게나 걸머지고 산과 들로 간다. 그러면 야학에서 글을 배우지 못한 그들은 어느 시절에나 글을 배우겠습니까. 하기를 리용하여 몇일 안되는 그동안이나마 가르켜주자는 뜻으로 남대원 여대원들이 협력하여 뜨거운 태양을 무릅쓰고 남녀이백명이나 모집해놓고 진위군청에다가 강습인가 제출을 하였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경과한 지금에도 아무 말이 없다. 지는 8일에 학무담임을 방문하였는데 학무담임은 경찰서장과 학교장에 의견서가 아직 아니 나와서 못해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리마다 지날 적마다 학생들은 글을 언제나 배우게 되느냐고 붓잡고 늘어집니다 이일을 당할 때마다 강사는 참말로 눈으로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933년 8월 12일에 실린 위의 기사는 당시 진척학원에서 열린 계몽운동 강습소가 그 시작부터 방해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강습소에서는 학생 2백명을 모아 진위군청에 강습인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못해 학생들은 모였으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진척학원은 앞서 1932년에는 수업을 중지당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강습인가부터 제지를 당한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는 진위청년회와 학생들의 브나로드운동이 연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다른 학교와 달리 2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신청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수업의 내용이 독립운동에 가까워지면 일제의 식민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실제로 일제는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운동을 180개 처의 운동을 아예 금지하고, 53개 처의 운동을 진행 중에 금지하였고<sup>41)</sup> 1935년에는 전면금지라는 조처를 내려 이 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sup>42)</sup>

그러나 평택에서 전개된 3년간의 브나로드운동은 문맹이었던 많은 이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였고, 이들은 여러 책과 신문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브나로드운동은 1934년 멈추게 되었지만 서울에서 유학하던 학생이 학업을 접고 평택의 무산아동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해 그 뜻을 이어가기도 했다.

41) 신용하, 「1930년대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로드 운동」, 『한국학보』 31, 2005, 131쪽.

42) 『동아일보』 1935년 6월 8일 「학생하기계몽운동 부득기한 사정으로 중지」; 김호일,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3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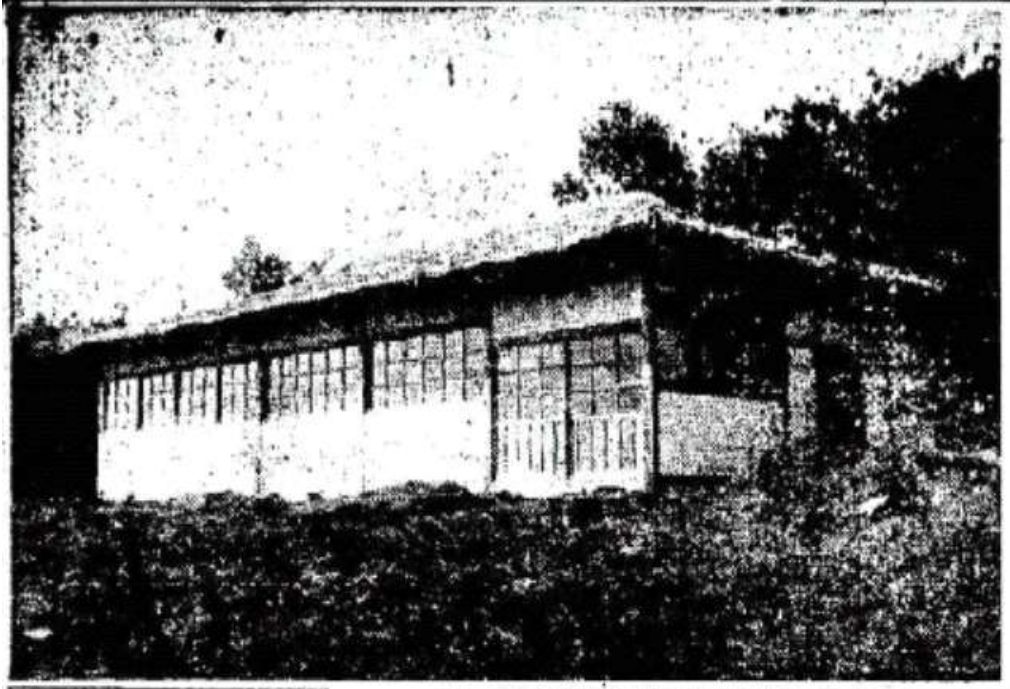


그림 3 평택 중성학원 (『동아일보』 1933년 12월 4일 「平澤衆醒學院落成[寫]」)

1933년 진위군 포승면 원정리 출신 중앙고보 4학년 양해동은 학업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택에서 학생 60~70명을 가르치다가, 월동리에 학생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는데, 학교의 이름은 衆醒學院이었다.<sup>43)</sup> 다음 해에는 학부형들이 도움을 주어 운동장까지 마련하였고,<sup>44)</sup> ‘평택 유일의 무산아동학교’라고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기부금을 받기도 하였다.<sup>45)</sup> 학교 설립 3년째인 1935년에는 간이학교로 승격하였다.<sup>46)</sup> 자택 사랑방에서 시작한 중성학원은 설립자 양해동 외에 두 명의 강사와 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하나의 학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처럼 브나로드운동은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개되었지만, 평택지역에서 무산아동의 교육에 관심을 촉구하고, 이후 많은 이들이 문맹퇴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 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43) 『동아일보』 1933년 11월 26일 「歸農靑年의 가목한處事 私財千餘圓들여서 無産學院建設」

44) 『동아일보』 1934년 7월 26일 「중성학원의 운동장 완성 학부형의 노력」

45) 『동아일보』 1934년 7월 24일 「衆醒學院에 二百圓寄附」

46) 『동아일보』 1935년 5월 15일 「衆醒學院이 簡易學校로」

#### 4. 맺음말

1930~40년대 국내 항일운동의 주체는 학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일제가 허락한 하에서 문화운동을 전개하거나 지하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동맹휴학과 시위투쟁으로 일제에 대항하고, 문맹퇴치운동으로 농민과 노동자들을 계몽하고자 한 이들이 바로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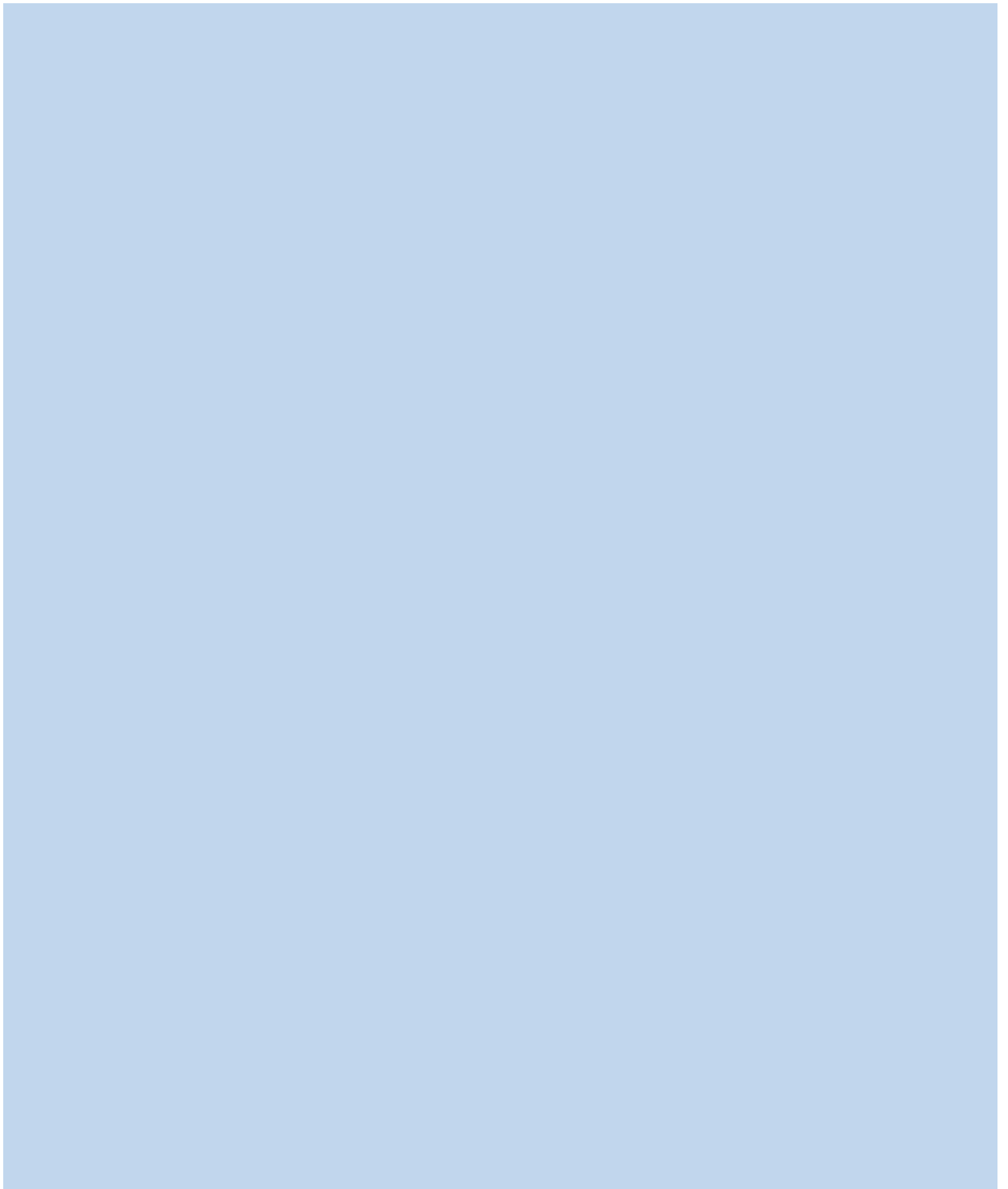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평택의 학생들도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서울로 유학을 간 학생들은 서울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에 가담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일어난 동맹휴학을 주도하고 반제동맹과 독서회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학생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40년대 일제의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공출과 강제동원을 일삼는 일제에 거세게 대항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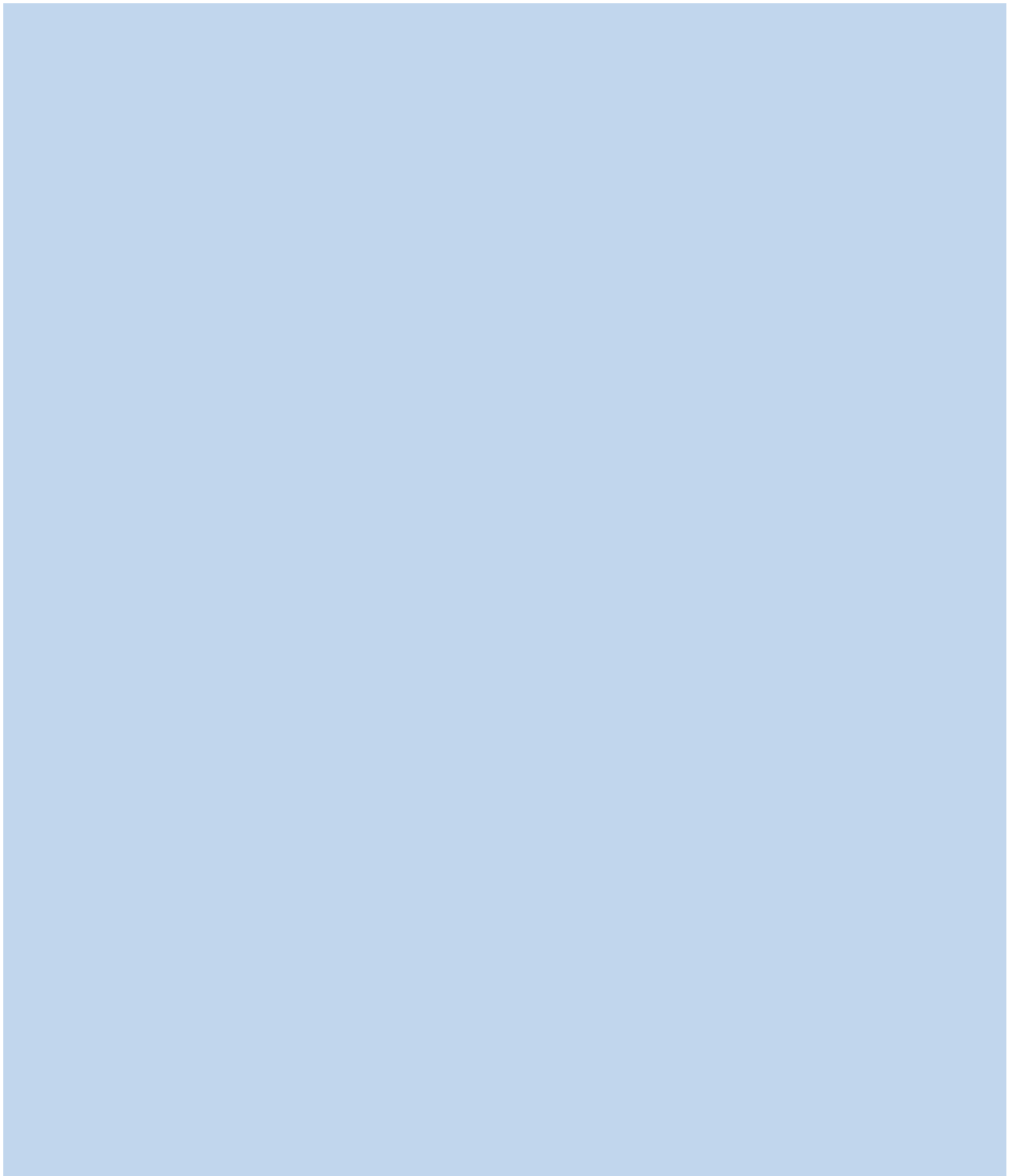
평택지역 학생운동을 살펴보면 새롭게 발견한 것은 평택지역에서 일어난 브 나로드운동이었다. 브 나로드운동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문맹퇴치운동이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문맹퇴치운동이 평택지역에서도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택지역에서 일어난 브 나로드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다. 평택지역 브 나로드운동은 평택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하기방학기간에 맞춰 고향으로 돌아와 문맹인 아동, 여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기본 수학을 가르쳤다. 이 강습소는 매해 여름 짧게는 2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무료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매일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들, 학교가 멀어 다닐 수 없는 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다.

전국적으로 브 나로드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1932년에 평택에서도 가장 많은 강습소가 열렸고, 적으면 십 여 명, 많으면 200명 이상 한 강습소에서 수업을 받았다. 진위면, 송탄면, 오성면, 포승면, 현덕면, 평택면, 부용면 등 여러 지역에 강습소가 열렸으며, 강습을 맡은 대원들은 휘문, 경신, 양정고보 등 고등보통학교의 고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평택지역의 지식인이나 유지가 강습소 대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브 나로드운동으로 많은 이들이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평택인들의 브 나로드운동은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 활동으로 문맹을 깨우치게 된 이들이 또다시 민족운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후 평택에서 일어난 여러 민족운동들은 이때의 문맹퇴치운동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브나로드운동에 참가했던 대원들, 그리고 강습소를 다녔던 학생들의 이후 활동이 밝혀진다면 평택지역의 브나로드운동의 의의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청년운동

-진위청년회를 중심으로-

성주현(청암대학교)

## 〈목 차〉

1. 머리말
2. 진위청년회의 조직과 변화
3. 진위청년회의 사회운동과 역할
4. 맺음말

## 1. 머리말

일제강점 직후 식민지 조선은 그동안 일제에 협력한 친일단체<sup>1)</sup>를 포함한 모든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무단통치를 이어갔다. 그렇지만 1919년 3월 1일 전개한 3·1운동을 계기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다. 평택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청년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사회적 리더의 역할

1) 대표적인 친일단체는 일진회이다. 일진회는 이른바 ‘한일합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1910년 8월 29일 강점 이후 해산 당하였다. 강점 직후 그나마 용이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학교와 종교였다. 이에 따라 종교와 학생은 3·1운동을 전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을 담당하였다.

당시 청년단체들이 조직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3·1운동의 경험이었다. 3·1운동을 경험한 청년들은 일제 식민정책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열망을 청년단체를 통해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인식에 따라 3·1운동 이후 192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8백여 개의 청년단체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sup>2)</sup> 이와 같이 청년단체가 조직되어 각종 사회활동을 전개하자 “남북의 구별이 없고 동서의 우열이 없어 다 같이 동일 하에서 공전의 신활동의 개시”<sup>3)</sup>라고 하였다.

이들 청년단체는 초기에는 주로 구문화의 폐해를 비판하고 신문화의 수용과 신사상의 향상, 그리고 신도덕의 수립 등 지덕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이를 수용한 청년들은 자신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선청년연합회 등 연합적 성격의 대중운동단체가 결성되었기에 이르렀다. 평택지역도 이러한 시대적 영향에 따라 청년단체가 조직되었다.

평택지역에서 청년단체가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1917년이었지만, 본격적인 청년단체는 1921년이였다. 이해 체육발전으로 목적으로 평택청년체육구락부가 조직되었다가 곧 이어 진위청년회로 조직체를 변경하였다. 이후 진위청년회는 평택지역의 대표적인 청년단체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진척학원을 설립하여 교육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위청년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평택지역 유지들로 청년단체 외에도 각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택지역에는 진위청년회 이외에도 형평사 지회를 비롯하여 평택소년회, 서정리노동조합, 수진농민노동조합 등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단체인 진위청년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첫째는 진위청년회의 조직 과정과 여기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진위청년회의 사회활동과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진위청년회는 단체로서만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어떤 사회활동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발행되었던 신문과 잡지, 그리고 일제의 각종 정보문서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선치안상황』(1922).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 청년회는 1920년에 251개, 1922년에는 446개, 1922년에는 488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 종교계의 청년회의 경우 1920년에 98개, 1921년에 236개, 1922년에 271개였다고 하였다. 이를 합하면 1922년 759개이다.

3) 백두산인, 「일반의 기대 하에 입한 2대 청년단체」, 『개벽』 3, 1920.8, 57쪽.

## 2. 진위청년회의 조직과 변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3·1운동 이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지만, 이보다 앞서 청년단체들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청년회’라는 명칭으로 청년단체가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한말 서울에서 조직된 황성기독교청년회였지만,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보다 후인 1910년대 중반 이후였다. 평택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1927년 지역 신문기자가 소개한 글에 의하면 1917년경에 “유지청년 제씨가 구락부를 창립”<sup>4)</sup>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조직된 구락부와 관련된 것은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當地 靑年 等은 身體를 健康케 할 目的으로 野球部를 目下 組織 中인데, 有志者에 贊成 及 捐助도 多할 뜻하고 詳細 細則 及 任員 組織 등 各項 節次는 不遠間 總會를 開하고 議 決裁定할 처이라더라. <sup>5)</sup>

이 기사에 의하면, 평택의 청년유지들이 ‘신체의 건강케 할 목적’으로 야구부를 조직하려고 준비한다는 것으로, 청년 중심의 단체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다. 야구부가 조직되었다는 후속 기사는 없었지만, 체육을 통한 청년단체로 진위청년체육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준비과정에서는 야구부였지만 실제로는 체육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체육구락부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직 직후인 1917년 5월 27일 운동회를 개최한 바 있다.<sup>6)</sup> 이후 체육구락부의 활동이 확인되지 않지만 “지방사업에 노력”<sup>7)</sup>하였다고 한 점에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리라 본다. 그렇지만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산되었다. 이는 체육구락부에 참여한 인물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거나 그 영향으로 추정된다.<sup>8)</sup>

이처럼 평택지역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자 평택지역의 청년들도 청년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구락부는 해산되고, 새로운 청년단체의 조직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1921년 5월 15일 평택청년체육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이 구락부의 목적은 체육발전이었으

4) 평택 일기자, 「순회담방(296), 곡물소산은 전국에 골지 교통이 편리한 평택」, 『동아일보』 1927년 4월 23일자.

5) 『매일신보』 1917년 3월 17일자.

6) 『매일신보』 1917년 5월 27일자, 「체육부 운동회」

7) 『동아일보』 1927년 4월 23일자.

8) 『동아일보』 1927년 4월 23일자.



며, 사무소는 병남면 평택리에 두었다. 임원으로는 부장에 유창근, 부부장에 신찬우, 간사에 장윤식 김정현, 서기에 이병갑, 회계에 박노수, 그리고 평의원으로 오맹근 한우교 정인창 김경철 최인원 이익래를 선임하였다.<sup>9)</sup> 그렇지만 체육구락부는 곧이어 조직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바로 진위청년회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진위청년회 조직 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두 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 當地에 거주하는 청년유지는 靑年俱樂部를 조직코자 斡旋 중이더니 準備가 되었으므로 去 11일 하오 2시에 創立總會를 開催하였는데, 당일 출석한 회원이 50인에 달하였으며, 臨時部長 申贊雨 씨가 開會 祝辭를 終了한 후 規則制定과 役員選舉에 始하였는데, 部長에 申贊雨, 李河善, 李翼來, 閔光植, 金燭哲, 金文煥, 書記에 李炳甲 崔寅洙, 會計에 朴魯洙, 評議員에 崔榮秀 李敏斗, 副會長에 柳昌根, 學藝係長에 金學秀, 運動係長에 張允植, 經理係長에 成周漢, 風化係長에 金正賢 吳孟根씨가 被選되었다더라.<sup>10)</sup>

(나) 企劃 중이던 平澤 所在 振威靑年會는 過般 成立하고 19일 오후 1시부터 平澤公立 普通學校 校堂에서 發會式을 舉行하였는데, 會員 104명 내 當日 出席者 60여 명, 會長 申贊雨씨의 發會로 趣旨說明이 있은 후 岡松 郡主任 兩 學校장 鄭爽謨 諸氏의 講演이 있고, 役員選舉에 結果로 會長 申贊雨, 副會長 柳昌根, 學藝部長 金學秀, 運動部長 張允植, 風化部長 金正賢, 經理部長 成周漢 등 諸氏 當選하였는 바, 同會는 主로 하여 地方靑年의 風習改良과 德育의 涵養을 目的으로 하고, 每年 1回 例會를 開하여 地方有志 並 先輩의 講演을 求하고 地方靑年의 啓發努力함에 在하다더라.<sup>11)</sup>

(가)의 기사는 청년구락부의 창립총회이고, (나)의 기사는 발회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진위청년회는 1921년 6월 11일 오후 2시에 조직되었고, 8일 후인 6월 19일 오후 1시 발회식을 가지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처럼 진위청년회는 창립총회와 발회식을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평택지역 청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바로 청년단체의 명칭이다. 평택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청년단체는 1917년 3월 청년야구부⇒1921년 5월 15일 평택청년체육구락부⇒1921년 6월 11일 청년구락부⇒1921년 6월 19일 진위청년회로 이어지면서 조직되었다. 조직에 있어서도 청년구락부는 부장

9) 『동아일보』 1921년 5월 18일자.

10) 『매일신보』 1921년 6월 14일자.

11)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자.

-부부장-계장으로, 청년회는 회장-부회장-부장으로 각각 모양새가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청년단체의 조직들이 대부분 동일한 인물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조직되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창립총회와 발회식 등 일련의 상황을 통해 진위청년회의 조직과정을 살펴보면, 조직 당시 회원은 104명이었으며 각각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50 내지 60여 명이었는데, 이는 진위청년회 조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위청년회는 조직 당시 '지방 청년의 풍습개량과 덕육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계몽적 성격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에 의해 진위청년회는 중요한 부서로 운동부와 풍화부, 학예부를 설치하였다고 보여 진다.

창립총회와 발회식에서 임원으로 선정된 인물은 회장 신찬우, 부회장 유창근, 학예부장 김학수, 운동부장 장윤식, 풍화부장 김정현, 경리부장 성주환 등이었다. 이외에 진위청년회 조직에 참여한 인물로는 이하선, 이익래, 민광식, 김경철, 김문환, 이갑병, 최인수, 박노수, 최영수, 이민두, 오맹근 등이 있는데, 이들은 평의원 또는 서기, 부원 등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의 지역적 기반이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진위청년회 조직 당시 임원 및 주요 인물의 주요 경력<sup>12)</sup>

이름	직책	주요 경력	비고
신찬우	회장	평택발전회 부회장(1919), 조선소작인상조회 진위지회 이사(1922), 독립군자금 모금(1923), 은평강습소 학부형회 고문(1923), 평택공보기성회장(1925), 청북면장(1926-1930), 진위군 농회 역원(1933) 및 통상의원(1941)	
유창근	부회장	평택발전회 평의원(1919), 동아일보 분국장(1920) 및 지국장(1926), 내지시찰단 참여(1921), 은평강습소 학부형회 고문(1923), 경기도 평의원(1924), 병남면장(1925-1927), 평택공보 학부형회 부회장(1925), 평택시민대회 임시의장(1925), 평택금융조합 감사(1927)	양조장 경영
김학수	학예부장	내지시찰단 참여(1921)	

장윤식	운동부장	내지시찰단 참여(1921), 동아일보 평택분국 기자(1921), 평택중선운수(주) 이사(1935), 평택금융조합 이사	
김정현	풍화부장	내지시찰단 참여(1921)	
성주한	경리부장	평택발전회 서기(1919), 평택금융조합 감사(1927), 평택미곡조합 감사(1927), 평택합동운수(주) 감사(1931), 진위군농회 역원(1933), 평택면협의원(1935), 동아일보 평택지국 고문(1937), 평택세무서 소득조사위원	
이하선	부장	평택발전회 평의원(1919), 평택공보 학부형회 평의원(1925)	
이익래	부장	대동학회 위원(1908), 송장면장(1913), 수원지방 금융조합원, 진위군 농회 평의원	송탄면 지주, 원곡면사무소 건축 기부(1919)
김문환	부장	평택발전회 평의원(1919), 내지시찰단 참여(1921),	
최영수	평의원	동아일보 평택지국 기자(1926, 1930, 1932)	
이민두	평의원	평택자동차운수(주) 이사(1931), 진정학원 학부형회(1932)	구호기부
오맹근	풍화계장	평택공립보통학교 훈도(1921), 원곡면장(1933-1940), 평택주조회사 중역, 경남농장장, 안성군농회장	지방교육계, 면장으로 활동
김경철	평의원	평택미곡조합 감사(1927)	

12) 이들의 경력은 국사편찬위원회와 뉴스라이브리리를 통해서 작성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진위청년회 조직의 중심인물들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유지들이었다. 이들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양조장(유창근, 오맹근)을 경영하거나 지주(이익래, 신찬우)가 포함되었으며, 또한 평택합동운수(성주한), 평택중선운수(장윤식), 평택자동차운수(이민두) 등 운수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평택발전회(신찬우, 유창근, 김문환, 이하선, 성주한)라는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sup>13)</sup> 뿐만 아니라 ‘일본시찰’(유창근, 김학수, 장윤식, 김문환)에 참가할 정도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춘궁기와 재해 등에 빈민구제를 위한 기부행위도 적지 않았다.

둘째는 조직 당시는 아니지만 면장(신찬우, 유창근, 이익래, 오맹근) 또는 교사(오맹근), 도평의원(유창근) 등 식민지배 기관뿐만 아니라 소작인조합회(신찬우), 농회(이익래, 신찬우), 금융조합(이익래) 등 지배체제에 협력하는 관변단체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이 민족주의적 성향보다는 친일적 성향이 더 드러난다고 보여 진다.<sup>14)</sup>

셋째는 동아일보 등 지역 언론기관(신찬우, 유창근, 최영수, 장윤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력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성향으로 볼 때 진위청년회 조직을 주도한 인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역 유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창근의 경우 제방공사를 수축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할 당시 임시의장으로 이를 주도하기도 하였다.<sup>15)</sup>

진위청년회는 창립총회와 발회식으로 화려하게 출범하였지만 실제 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발회식에서는 매월 예회를 갖고, 이를 통해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조선청년회연합회 강연대의 평택 순회강연에서 내용이 불순하다고 하여 강연이 중지 당하였다. 당시 강연 강사는 김철수였으며, ‘오인 생활의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던 중 ‘獨立生活’이 문제가 되었다. 임석경관은 이를 ‘조선독립’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강연을 중지한 것이다.<sup>16)</sup> 이 사건은 동아일보에서 사설로 다룰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다.<sup>17)</sup> 이를 계기로 진위청년회의 활동은 “設立된 지 既히 二個年餘이나 會運이 萎縮不振”하였다.<sup>18)</sup>

13) 평택발전회는 지역 유지들이 “平澤의 公共事業을 獎勵하고 善良風習을 培養하여 開發擴展을 研究進行”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1919년 11월 1일 정기총회에서는 輕鐵敷設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14) 창립 이후 진위청년회에 참여하는 인물 중 상당수는 1930년대 이후 친일협력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15) 『동아일보』 1925년 7월 30일자, 「평택시민대회 평택 제방수축책으로」.

16) 『동아일보』 1922년 6월 22일자, 「독립생활이 문제가 되어」.

17) 『동아일보』 1922년 6월 23일자, 「獨立生活이 問題乎-警察當局에 質問」.

이처럼 진위청년회는 창립 후 ‘강연중지사건’으로 2년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부흥책을 협의하기 위해 1922년 11월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sup>19)</sup> 그리고 임시총회에서 社交部를 추가하고 임원진을 새로 개편하였다.<sup>20)</sup> 1923년에는 2월 임시총회에서는 ‘소비절약과 토산장려를 실행’하기 위해 經濟部를 추가로 설치하였다.<sup>21)</sup> 1926년에는 9월에는 기존의 會長制를 委員制로 규정을 혁신하고 이민두, 정인창 등 6명을 위원으로 뽑아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sup>22)</sup> 뿐만 아니라 종래의 선언과 강령까지도 대폭 개정하였다.<sup>23)</sup>

진위청년회는 창립 이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면서 임원진을 개편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표 2 > 창립 이후 진위청년회의 임원들

회명	일시	주요 임원	비고
부흥 임시총회	1922.11.26	회장 申贊雨, 부회장 崔榮秀, 학예부장 朴魯洙, 체육부장 辛廷薰, 사교부장 成周漢, 풍화부장 金炯哲, 평의원 尹用燮 金信敬 金永注 李敦植 張世萬 朴鳳鎭 李義鶴 元春植	동아 1922.12.2
총회	1923.2.12	임시의장 李相駿, 민립대학 발기인 張世萬 尹用奎 李炳甲	동아 1923.2.24
제2회 정기총회	1923.4.2	회장 柳昌根, 부회장 李相駿, 사교부장 張世萬, 학예부장 元春植, 체육부장 李會政, 동부원 李春載 徐相海, 풍화부장 金炯哲, 동부원 尹用奎 徐相海, 경제부장 朴魯洙, 동부원 尹用奎 南鎭祐, 서기 辛廷薰 李滄浩, 회계 朴鳳鎭, 수금위원 李春載 徐相海	조선 1923.4.21
혁신 제1회 정기총회	1927.10.9	임시의장 李敏斗, 위원 鄭寅昌 金永概 李敏斗, 회계 徐相海	동아 1927.10.13
제3회 정기대회	1929.4.7	위원 李敏斗, 야학부 후원회 발기인 金○準 朴貴祿 李康龍 尹應九 金永柱 李禹善	조선 1929.4.11
제9회 정기총회	1930.10.26	위원장 鄭寅昌, 임시의장 李弘鍾, 신위원장 安忠洙	동아 1930.10.30

18) 『동아일보』 1922년 11월 24일자, 「진위청년 부흥총회」.

19) 『동아일보』 1922년 11월 24일자, 「진위청년 부흥총회」.

20) 『동아일보』 1922년 12월 2일자, 「진위청년회 총회」.

21) 『동아일보』 1923년 2월 13일자, 「진위청년 임시총회」.

22) 『동아일보』 1926년 9월 19일자, 「평택청년 임총」.

23) 『동아일보』 1927년 4월 23일자, 「순회담방(296)」. 선언과 강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창립 이후 새로 보강된 인물은 이정훈, 윤용섭, 김신교, 김영주, 이교직, 장세만, 박봉진, 의학, 서상해, 정인창, 이홍중, 안충수, 박귀록, 이강룡, 윤용구, 이우선, 이영개 이춘재 등이다. 이들 중 확인 가능한 인물들의 사회적 주요 경력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진위청년회 창립 이후 참여한 인물들의 주요 경력

이름	직책	주요 경력	비고
신정훈	체육부장	동아일보 평택지국 기자(1928)	
윤용섭	평의원	오산운수(합) 사원	
김신경	평의원	동아일보 평택지국 지국장(1923), 조선문화기우구락부 상무실행위원(1927)	
김영주	평의원, 야학부 후원회 발기인	동아일보 평택지국 총무(1928)	
박봉진	평의원, 회계	평택금주단연회 발기(1923)	
이상준	부회장	동아일보 평택지국 기자 겸 외교원(1923, 1928)	
윤용규	민립대학 발기인, 풍화부원	평택금주단연회 발기(1923)	
남진우	경제부원	은평강습소 학부형회 서기(1923), 평택상회 대표	
정인창	위원장	동아일보 평택지국장(1928), 진청학원 학부형회(1932)	
안충수	위원장	3·1운동 참가, 동아일보 평택지국장(1931), 농우연맹 편집부 책임자(1928)	
이강룡	야학부 후원회 발기인	평택산업 대표	
윤용구	야학부 후원회 발기인	은평강습소 학부형회 회계(1923), 평택합동운수(주) 이사, 평택세무서 소득조사위원	
이우선	야학부 후원회 발기인	은평강습소 학부형회 서기(1923)	

<표 3>에 의하면 진위청년회 창립 이후 주요 임원으로 참여한 인물 역시 지역의 유력자들이다. 언론 종사자(신정훈, 김신경, 김영주, 이상준, 정인창, 안충수), 사업가(윤용섭, 남진우, 이강룡, 윤응구), 사회활동가(박봉진, 윤용규, 남진우, 정인창, 윤응구, 이우선) 등 평택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계층들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안충수<sup>24)</sup>가 진위청년회의 회장제를 위원제로 전환한 후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안충수는 3·1운동 이후 1930년대 동아일보 평택지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sup>25)</sup> 과수와 관련하여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다.<sup>26)</sup>

1930년대 들어 진위청년회는 진위청년동맹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 이후 진위청년회에 대한 기록이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신 진위청년동맹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진위청년동맹의 활동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1932년 3월 초 수진농민조합사건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사회단체 간판을 철거하자 이에 항의하는 것이 유일하다.<sup>27)</sup> 진위청년회가 진위청년동맹으로 조직체를 전환하였지만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

### 3. 진위청년회의 사회운동과 역할

진위청년회의 활동 당시 청년회의 활동과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더욱이 조직이 유명무실하고 위기적 상황을 거듭한 진위청년회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진위청년회의 부활과 조직체의 전환을 거듭하면서 유지하였다. 진위청년회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논의하거나 협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4) 안충수는 학생으로 1919년 3월 11일 평택역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일경에 피체되었지만, 3월 19일 풀려났다. 『매일신보』 1919년 3월 25일자

25) 『동아일보』 1931년 4월 29일자, 「사고」; 1936년 4월 26일자, 「사고」.

26) 안충수는 『동아일보』에 「冬期 休息期에 이용할 과수의 裁植剪定」(2회), 「동계의 채소원에」(3회), 「冬季의 과수원에」(8회)를 각각 연재하였다. 『중외일보』와 『동아일보』에 의하면 농우연맹 편집부 책임자(대표)로 기관지 『農聯』을 발행하였다. 농우연맹은 각지역의 농업학교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27) 『중앙일보』 1932년 3월 7일자, 「사회단체 간판을 순사가 자의 박탈」. 당시 간판을 강제로 박탈당한 사회단체는 진위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진위소년동맹, 서정리노동조합, 진위사회단체회관건립기성회 등이었다.

<표 4> 진위청년회의 총회 협의사항

회명	일시	주요 논의 사항	비고
부흥 임시총회	1922.11.26	부흥책 협의 임원 개선	동아 1922.12.2
임시총회	1923.2.3	소비절약의 건, 민립대학발기인 선거의 건, 청년당대회 참가의 건, 회원처리의 건, 월연금 징수의 건, 본회 유지방침의 건, 본회 내에 경제부 설치의 건	동아 1923.2.8. 1923.2.13
총회	1923.2.12	민립대학발기인 장세만, 윤용규, 이병갑 당선, 청년당대회 참가	동아 1923.2.24
제2회 정기총회	1923.4.21	민립대학 후원의 건 청년당대회 참가 상황 보고의 건 도서실 설치의 건 임원 개선의 건 회관 설치에 관한 건	조선 1923.4.21
임원회	1923.5.31	민립대학 후원의 건 장부정리의 건 월연금 정리의건 신문 잡지 구독의 건	동아 1923.6.6. 조선 1923. 6.4
임시총회	1924.3.11	고문 선정의 건 조선청년총동맹회에 참가의 건 회비징수의 건 회계수지보고의 건 본회 부흥책의 건 역원보선의 건	동아 1924.3.11
정기총회	1924.5.17	춘계운동 개최의 건 임원 개선-회장 유창근, 부회장 이상준	매일 1924.5.22
임시총회	1924.5.22	시민연합운동회 개최의 건 부인교육을 위한 야학부 설치 및 회원 의무 강사교수의 건	동아 1924.5.28
임시총회	1926.9.12	회칙 개정-회장제에서 위원제로 변경, 위원 이민두 외 6인	동아 1926.9.19



		임원 개선 장래 사업진행 방침	
정기총회	1927.4.10	회관 신건축의 건 회관건축 후 경비부족의 변출방법에 대하여는 소인극을 행할 것 월연금 징수의 건 소년회 소속한 중선정구대회를 본회에서 인수할 것	동아 1927.4.12. 1927.4.15
긴급위원회	1927.6.3	평택시민 육상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 중선정구대회에 선수 3조 파견에 관한 건	조선 1927.6.5
혁신 제1회 정기총회	1927.10.9	위원 개선 월연금 징수의 건 소인극 흥행의 건	동아 1927.10.13
정기총회	1928.7.25	회칙 엄수의 건 월연금 징수의 건 회원정리의 건 야학부 유지방침의 건 회의 고문 및 찬조원 선거의 건	동아 1928.7.25
제3회 정기대회	1929.4.7	야학부 경비의 건 후원회 발기인 선거 여자야학부 신설	조선 1929.4.11
제9회 정기총회	1930.10.26	회칙 개정 역원 개선, 위원장 안충수	동아 1930.10.30

<표 4>에 의하면 진위청년회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보여 진다. 첫째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활동, 둘째는 지역과의 사회활동, 셋째는 대외활동, 넷째는 체육행사, 다섯째는 교육활동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내부 활동이다. 임원개선, 회칙개정, 회원정리, 월연금 징수, 장부정리, 회관건축 등이 해당된다. 임원개선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 필요한 경우 그때마다 개선 내지 보선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6년에는 청년회의 혁신을 위해 회장제를 위원제로 회칙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혁신을 기념하고 활성화를 위한 소인극을 공연하였다.<sup>28)</sup>

청년회의 운영을 위해 월연금 징수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회원정리와 함께 주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회관 건립이었다. 이를 위해 소인극을 공연하여 부족한 경비를 모금하기도 하였다.<sup>29)</sup>

28) 『동아일보』 1926년 10월 17일자, 「진위청년 소인극」.

둘째는 지역과의 사회활동으로 강연회와 운동회 및 척사대회를 개최하거나 후원 등이 해당된다. 당시 대부분의 청년회가 강연회를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진위청년회는 강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창립 초기에는 매월 예회를 갖고 이를 통해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철수강연금지사건’으로 강연활동뿐만 아니라 진위청년회 자체도 위축되었기 때문에 강연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확인된 강연활동은 1923년 7월 8일 개최한 강연회가 유일하다.<sup>30)</sup>

운동회 후원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행사의 하나였다. 이미 체육구락부를 조직하여 지역의 체육계를 이끌었던 진위청년회는 1923년 5월 13일 평택공립보통학교와 연합으로 춘계 운동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sup>31)</sup> 이듬해는 1924년 5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시민 연합운동회를 후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해 6월 3일 진위군청의 주최와 진위청년회 후원으로 평택역 광장에서 대규모의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振威郡廳이主催와 振威青年會의 後援으로 平澤, 安仲, 西井里, 鳳南, 尋小 聯合運動會는 지난 三日 平澤驛前 廣場에서 열리었는데, 各校에서 出陣한 男女兒童 一千五百餘名에 達하였고定刻에 이르러 會長 崔益夏氏의 開會辭가 마치자 兒童의 競技는 徒步競走로 비롯하여 順序대로 進行하여 結局 優勝旗는 西井里公普教로 돌아갔으며, 뒤를 이어 振威青年團의 徒步自轉車方式 競走 滋味있는 競技와 來賓 中 靑北里 日新講習院의 競走가 畢한 後 午後 四時半에 閉會하였다고.<sup>32)</sup>

연합운동회는 평택, 안중, 서정리 공립보통학교와 심상소학교 학생 1천5백여 명이 참가하여 평택역전 광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연합운동회 외에 지역사회와 소통의 중요한 행사는 척사대회 즉 윗놀이였다. 척사대회는 주로 음력설에 하였는데, 진위청년회는 1924년 2월의 척사대회를 주최하였다.<sup>33)</sup> 이외에도 진위청년회는 모내기에 일손이 부족할 경우 지원하기도 하였다.<sup>34)</sup>

29) 『동아일보』 1927년 4월 15일, 「진위청년 정충」.

30) 『동아일보』 1923년 7월 21일자, 「진위청년회 강연회」; 『조선일보』 1923년 7월 13일자, 「진위청년 강연」. 당시 강연회는 장세만 사교부장의 사회로 이용식의 ‘우리의 교육’, 이상준의 ‘나의 느낌’이라는 연제로 강연이 있었다. 강사 이용식은 일본 도쿄대학(東洋大學)에 재학 중이었으며, 이상준은 진위청년회 부회장이었다.

31) 『조선일보』 1923년 5월 16일자, 「연합운동회 상황」 및 5월 17일자, 「연합춘계 대운동회」.

32) 『동아일보』 1924년 6월 6일자, 「運動經過後報」.

33) 『동아일보』 1924년 2월 21일자, 「今日 平澤 擲柶」; 『동아일보』 1924년 2월 21일자, 「진위청년회 척사대회」. 이후 척사대회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평택지국에서 후원하였다.

셋째는 대외활동으로, 진위청년회는 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청년회의 연합체하고 할 수 있는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청년당에 가입을 시도하였다. 1921년 5월 창립 이후 한동안 부진하였던 진위청년회는 1922년 11월 부흥임시총회를 갖고 임원을 개편하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1924년 4월 가입이 결정되었다.<sup>35)</sup> 이외에도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진위청년회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발기인으로 장세만, 윤용규, 이병갑을 선정하였으며,<sup>36)</sup>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적극 후원하기로 하였다.<sup>37)</sup>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조선청년당대회에도 참가케 하였다.

넷째는 체육행사로 중선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원래 중선정구대회는 평택소년회에서 개최하였던 것인데, 1927년부터 진위청년회에서 인수하여 이를 개최하기로 하였다.<sup>38)</sup> 중선정구대회는 평택소년회가 1924년 시대일보와 동아일보 평택지국의 후원으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sup>39)</sup> 평택소년회는 제2회(1925년 8월 16일)<sup>40)</sup>와 제3회(1926년 8월 1일)<sup>41)</sup>까지 대회를 개최하고, 제4회 대회를 1927년 7월 31일 개최하기로 하였다.<sup>42)</sup> 진위청년회에서는 대회를 인수하기로 하였지만, 이미 평택소년회에서 광고를 통해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제4회 대회는 후원만 하였다.<sup>43)</sup> 제5회 중선정구대회는 진위청년회 체육부의 주최로 1929년 7월 14일에 개최하였다.<sup>44)</sup>

다섯째는 교육운동으로, 야학부와 진척학원을 설립하여 무산아동과 여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야학부는 1924년 5월 2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부인교육을 위한 야학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회원이 강사가 되어 의무적으로 교수기로 하였다.<sup>45)</sup> 그렇지만 부인야학은 노동야학으로 바뀌었으며, 노동야학부를 설치하기 위해

34) 『동아일보』 1929년 7월 5일자, 「청년이 이양 조력」

35) 「朝鮮靑年總同盟加盟團體第二回發表ノ件」(1924년 4월 18일), 京城鐘路警察署.

36) 『동아일보』 1923년 2월 24일자, 「진위청년회 총회」.

37) 『동아일보』 1923년 6월 6일자, 「진위청년회 결의」.

38) 『동아일보』 1927년 4월 15일자, 「진위청년 정충」.

39) 『동아일보』 1924년 8월 8일자, 「중선정구대회」. 제1회 중선정구대회는 1924년 8월 10일 평택소학교 코트에서 이상준의 개최사, 김석현 이병갑 박건양의 주심으로 개최되었으며, 인천 오산 서정리 안중 안성 직산 천안 등지에서 출전하였다. 우승은 안성의 勤莊少年軍이 차지하였다.(『동아일보』 1924년 8월 13일자, 「우승은 안성군」)

40) 『동아일보』 1925년 8월 26일자, 「천안소년승」.

41) 『동아일보』 1926년 7월 28일자, 「광고」

42) 『동아일보』 1927년 7월 27일자 및 7월 29일자, 「광고」

43) 『동아일보』 1927년 29일자, 「광고」.

44) 『동아일보』 1929년 7월 9일자, 「광고」; 『조선일보』 1929년 7월 13일자, 「진척 개인정구」.

마침 순회공연을 하던 조선신극 유일단을 활용하여 운영경비를 모금하기로 하였다.<sup>46)</sup> 유일단은 이를 위해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자선공연을 하고 수익금 전부를 진위청년회에 기부하였다.<sup>47)</sup>

그렇지만 무산아동의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부는 이보다 4년 후인 1928년 5월 5일 개설되었다.<sup>48)</sup> 개설 이후 입학 지원자가 날로 증가하고 수업생 또한 늘어 1928년 말경에는 120여 명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야학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적지 않게 소요되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1928년 7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야학부 유지방침에 대해 토의하였다.<sup>49)</sup> 그 결과 1928년 12월 31일부터 1주일간 연말연시를 기해 교원과 학생들이 야간에 빵 행상을 하기로 하였다.<sup>50)</sup> 1929년 10월에는 소인극을 공연하여 흥행에 성공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에 기부금도 적지 않게 모금할 수 있었다.<sup>51)</sup> 이처럼 소인극 공연과 야학경비 모금에 대성공을 함에 따라 진위청년회는 평택지역 관내에 순회공연을 하기도 하였다.<sup>52)</sup> 야학부 개설 1주년인 1929년 5월에는 10여 명의 여학생이 지원함에 따라 여자야학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sup>53)</sup>

한편 진위청년회가 교육운동으로 심혈을 기울인 것은 진청학원이었다. 진청학원 역시 무산아동의 문맹퇴치를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

(가) 京畿道 振威青年會에서는 無産兒童의 文盲을 退治하기 爲하여 去 五日부터 同 會館 內에 振靑學院을 設立하고 同 會長 及 少年軍 中에서 相當한 知識이 有한 諸氏가 教鞭을 잡고, 生徒 一百二十名을 甲乙班으로 分하여 每日 午後 八時부터 同 十時까지 無報酬로 熱心 教授한다더라.<sup>54)</sup>

(나) 지금으로부터 五年前 一九二八年 五月 一日 熱과 希望에 쌓인 中學生 四五人이 每日 汽車로 京城 通學을 하면서 費用을 自擔하며 近初 百餘 男子 無産兒童을 모아 當地 振

45) 『동아일보』 1925년 5월 29일, 「진위청년 총회」.

46) 『시대일보』 1924년 12월 19일자, 「유일단 흥행」.

47) 『시대일보』 1924년 12월 23일자, 「자연공연」.

48) 『동아일보』 1929년 5월 25일, 「여자부 설치」.

49) 『동아일보』 1928년 7월 25일자, 「진위청년회 정총」.

50) 『동아일보』 1929년 1월 4일, 「야학경비 위해 야간 빵 행상」.

51) 『조선일보』 1929년 10월 8일자, 「진위청년회 소인극 흥행 야학경비를 얻고자」 및 1929년 10월 17일자, 「진위청년회 소인극 흥행 뜻밖에 성황」.

52) 『조선일보』 1929년 10월 18일자, 「진청 소인극 지방순회 흥행」.

53) 『동아일보』 1929년 5월 25일, 「여자부 설치」.

54) 『동아일보』 1928년 5월 14일자, 「진청학원 설립」.

靑靑年會館을 빌려 비로소 無産兒童 教育機關을 設施하였다. 이것이 導火로 ○機關은 豫想 外로 擴張되어 當地 振靑靑年會에 管轄機關이 되고<sup>55)</sup>

(가)와 (나)에 의하면, 진청학원의 설립 과정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설립일이다. (가)는 1928년 5월 5일이고, (나)는 5월 1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가)의 내용이 진청학원 설립 당시의 신문기사였다는 점에서 진청학원의 설립일은 1928년 5월 5일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가)는 ‘진위청년회’이고 (나)는 ‘서울로 통학을 하던 중학생 4,5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나)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早朝 四時頃에 上京하여 終日토록 工夫하고 午後 七時頃에 돌아와 夜學에 가서 가르치다가 熟眠不足으로 不歸의 癖이 되었다”<sup>56)</sup>는 기록으로 보아 진위청년회의 시작은 서울로 통학하던 중학생들이었다. 진위청년회는 처음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가 예상 외로 성적이 좋고, 중학생들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진청학원 설립 당시 학생 수는 120여 명이었지만, 6개월 후에는 3백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확장되었다. 진청학원의 학제는 3년제였으며 5학급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진청학원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 모집보다도 운영비였다. 진청학원의 운영비는 진위청년회의 순회공연을 통한 약간의 수입과 기부금으로 유지하였다. 때문에 진위청년회는 진청학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소인극 공연이었다. 소인극 공연은 처음에는 청년회 혁신 1주년을 기해 공연하였던 것인데, 이후 진청학원뿐만 아니라 야학부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전국을 순회공연하는 연극단과도 연계하여 운영비를 마련하였다. 마침 民藝劇團가 평택에서 공연을 계획하자, 진위청년회는 이를 기회로 1931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공연을 주최하였다. 민예극단은 160원의 수입금 중 90원을 진청학원에 기부하였다.<sup>57)</sup> 또한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부회에서 1백 원을 기부하였<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청학원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였다. 더욱이 학생 수가 늘어나자 진위청년회는 진청학원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적은 비용이지만 수업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설립 초기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하였지만 1932년부터 월 12전의 수업료를 받기로 하

55) 平澤 一記者, 「振靑學院을 支持하라」, 『동아일보』 1932년 9월 28일자.

56) 平澤 一記者, 「振靑學院을 支持하라」, 『동아일보』 1932년 9월 28일자.

57) 『동아일보』 1931년 10월 15일자, 「진청학원 위해 동정 연극 개최」.

58) 『동아일보』 1932년 5월 18일자, 「진청야학원에 백원을 기부」.

였다. 그러나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들은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1932년 하반기 학생 수의 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수업료 징수 이후 진청학원 학생 수 현황

월별	학생수	수업료 미납 학생 수	중퇴 학생 수
1932년 4월	264명	8	42
1932년 5월	204명	17	21
1932년 6월	183명	39	23
1932년 7월	160명	75	19
1932년 8월	141명	102	21
계			126

<표 4>에 의하면, 3백여 명이었던 학생 수가 수업료를 받기로 한 이후인 1932년 4월에는 264명이었으며, 8월에는 141명에 불과하였다. 수업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수는 점차 늘어갔으며, 부득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 수도 늘어나 8월까지 126명에 이르렀다.<sup>59)</sup>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진청학원의 처지를 알리고 지원을 당부하는 「진청학원을 지지하라」<sup>60)</sup>는 글을 언론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에 무명의 한 노동자가 ‘백묵대’ 3원을 기부하였고,<sup>61)</sup> 학부형회까지 조직되었지만<sup>62)</sup> 진청학원은 1933년 부득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평택지역의 유일한 무산아동 교육기관인 진청학원이 6년 만에 문을 닫게되자, 이를 부활시키기 위한 분위기가 지역에서 일어났다. 진위군청 군서기를 지낸 지역 유지 오지영은 언론에 「진청학원을 살리자!」<sup>63)</sup>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오지영은 이 글에서 평택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학생은 1만여 명에 달하지만, 정작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음으로 비정규 교육기관이지만 그동안 무산아동의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하였던 진청학원을 부활시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여론에 힘입어 지역유지뿐만 아니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후

59) 一記平澤 者, 「振靑學院을 支持하라」, 『동아일보』 1932년 9월 28일자.

60) 一記平澤 者, 「振靑學院을 支持하라」, 『동아일보』 1932년 9월 28일주.

61) 『동아일보』 1932년 12월 24일자, 「눈물겨운 백묵대 3원」. “지난 12일 본보 평택지국에는 주소 성명도 없이 일금 3원을 보내면서 당지 무산아동 교육기관인 진청야학원(眞靑夜學院)에 보내 달라 하며, 떨면서 배우려는 2백여 농민무산아동의 백묵대로나마 써 달라하고 자기는 일개 무명 노동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62) 『동아일보』 1932년 9월 7일자, 「진청야학 학부형 총회」.

63) 平澤 吳起泳, 「진청학원을 살리자!」, 『조선중앙일보』 1934년 4월 12일자.

원이 이어졌다. 먼저 ‘날뽕팔이 노동자’를 자처한 鄭敬天은 그동안 푼푼이 모은 돈 50원을 기부하였으며, 이러한 소식을 들은 노동자 金鑣萬도 4원을 기부하였다.<sup>64)</sup> 이를 계기로 지역 유지인 李敏煊<sup>65)</sup>은 진척학원을 인수하고 1935년 5월 6일 부활 개학식을 거행하였다. 진척학원은 폐된 지 2년 만에 다시 개교를 하였다.<sup>66)</sup>

진척학원 부흥하자 개학식 날에도 기부금이 이어졌는데. 당시의 상황은 보면 같다.

개학식 당일에 감격을 받은 金順伊(金順伊)라는 부인은 음식 영업으로 푼푼이 모은 돈 10원을 비롯하여 장인창(張寅昌), 유치봉(兪致鳳) 양씨도 각 5원씩을 동 학원에 기부하였다 하며, 평택에 있는 중앙, 조선, 동아 三 평택지국에서도 이를 원조하여 학원의 유지비를 보충시켜주기 위하여 三 지국의 총동원으로 동정 소인극을 불일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바, 일반 유지의 많은 찬조를 바란다고 한다.<sup>67)</sup>

진척학원이 다시 개교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주의 흥익식산주식회사에서 백묵 대금 1백 원을 회사<sup>68)</sup>를 비롯하여 화류계의 차옥선이 5원을,<sup>69)</sup> 김호근은 척사대회의 수익금 150원,<sup>70)</sup> 인천의 강익천이 1백 원<sup>71)</sup>을 각각 기부하였다. 이후 진척학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진위청년회와의 관계는 사실상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72)</sup>

64) 『동아일보』 1935년 5월 1일자, 「날뽕팔이 노동자의 눈물겨운 동정금」; 『조선중앙일보』 1935년 4월 30일자, 「정경천씨 50원 회사」.

65) 이민회는 동아일보 평택지국 고문, 경기도회 의원, 평택상공회 역원, 평택금융조합 이사, 평택합동운수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민회의 창씨명은 咸豐敏煊이었다. 1943년 4월 22일 평택군 읍면협의원을 추천하는 추천도제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추천의 기준은 “國體本位에 투철해 인격과 식견이 고매하고 眞摯純正해 두터운 奉公心을 가진 인물”이었다.

『평택시사』에는 ‘평택중앙초등학교 전신은 진척학원이었다. 진척학원은 평택지역에서 청년운동을 전개했던 진위청년회에서 무산아동 교육을 위해 1928년 5월 개교했다. 1933년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된 진척학원을 진위청년동맹 위원장을 지낸 이민회가 인수해 운영했다. 진척학원은 현 중앙초등학교의 모체가 됐다. 이민회는 평택에서 근대교육이 정착되는 데 지 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평택향교의 전교가 돼 향교의 중수와 홍학사 비각을 비롯한 문 화재보존사업, 유교사상 확립을 위한 사업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 개인에 대한 송덕비가 3기가 건립된 것은 평택지역에서 이민회가 유일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66) 『동아일보』 1935년 5월 9일자, 「폐쇄 2년 만에 진척학원 부흥」; 『조선일보』 1935년 4월 24일자, 「진척학원 서광」.

67) 『동아일보』 1935년 5월 9일자, 「폐쇄 2년 만에 진척학원 부흥」.

68) 『동아일보』 1935년 6월 1일자, 「백묵대로 기부」;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31일자, 「학원에 백원 기부」.

69) 『동아일보』 1936년 1월 16일자, 「이런 작부도 있다」.

70) 『동아일보』 1936년 2월 4일자, 「김호근의 특지」; 『조선일보』 1936년 2월 7일자, 「진척학원에 동정금」. 『조선일보』에는 김호근이 125원 98전을 기부하였고, 이외에 김호가 10원, 이익훈이 5원, 김영삼이 3원 등 143원 98전을 기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71) 『조선중앙일보』 1936년 1월 17일자, 「진척학원에 1백 원 회사」.

#### 4.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강점기 진위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3·1운동 이후 식민지배 정책의 변화로 각지에서 청년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가 조직되었다. 3·1운동 이전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청년들의 움직임은 평택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택 지역의 청년단체의 움직임은 1917년 진위청년체육구락부가 모태가 되었다. 건전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체육구락부는 3·1운동 이후 1921년 5월 진위청년회로 재조직되었다. 진위청년회는 1930년대 초 진위청년동맹으로 조직체를 전환하였다. 그렇지만 진위청년동맹의 실제적 활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명맥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진위청년회의 활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활동이었다. 이는 청년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회원을 유지하고 일정한 월연금 즉 회지를 징수하였다. 회원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없지 않았지만 활동의 무대가 평택역을 중심으로 한 한계로 인하여 크게 확장되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경우 서정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진위청년회의 활동은 지역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지역과의 사회활동이었다. 이는 주로 청년회의 초기에 전개되었던 활동으로 보통학교 학생의 연합운동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이러한 운동회 개최는 진위청년회 초기 결성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청년회는 척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와 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대외활동이었다. 이는 당시 대부분 청년회와 대동소이한 활동이었지만,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청년당에 가입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외활동으로 조선청년총동맹의 순회강연을 평택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순회강연은 강연 도중 중지를 당하였고, 이후 한때 청년회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넷째는 체육행사였다. 체육행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동회와 척사대회를 개최하였지만 본격적인 체육행사로 중선정구대회를 주최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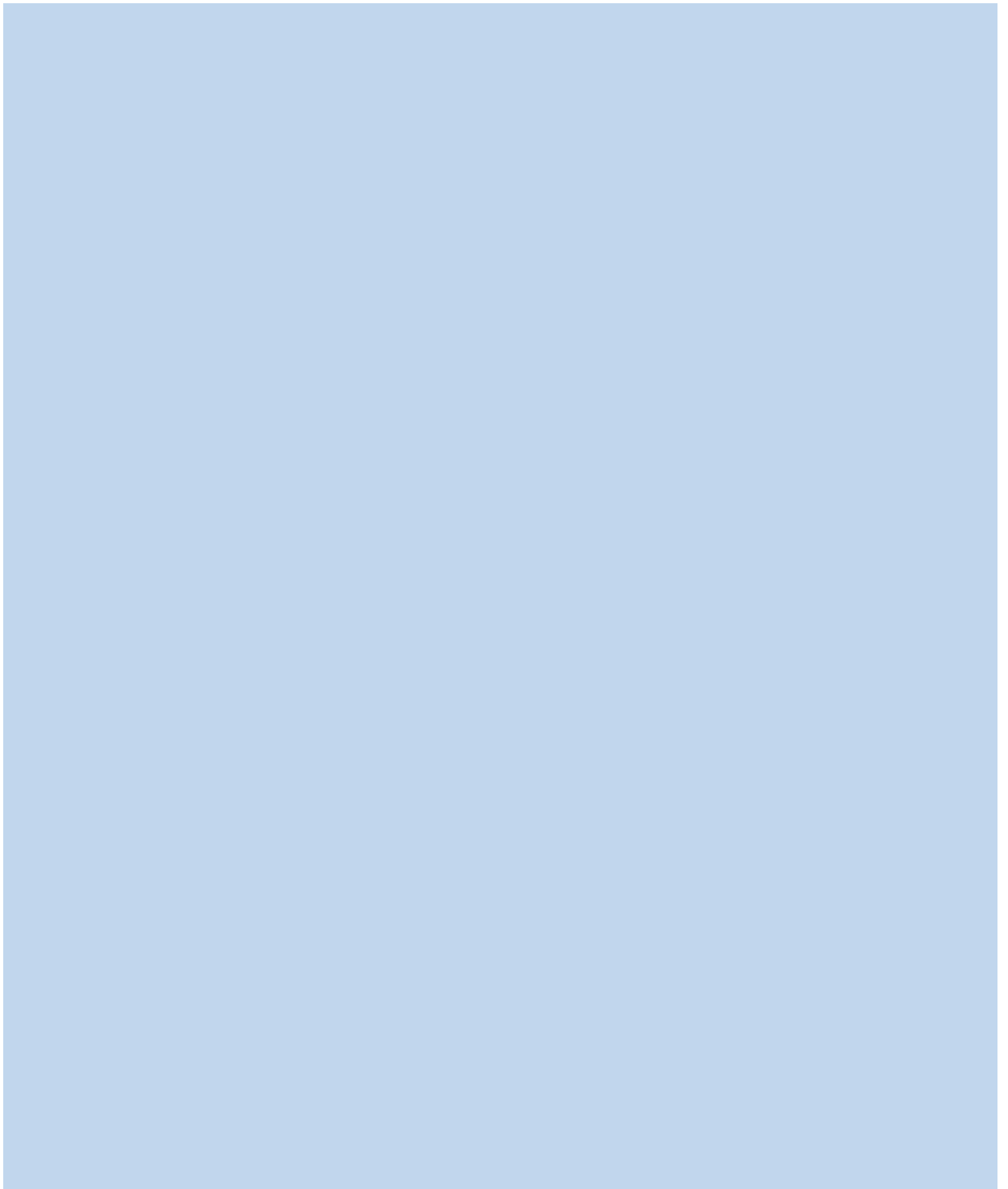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72) 이후 진척학원은 1937년 校舍와 운동장을 확장하는 등 해방까지 유지되었다. 1937년 4월 200여 평의 운동장을 신설하였고, 1939년 6월에는 통북리에 1500평을 확보하여 신교사 상량식을 가졌다. 그렇지만 1940년 이후에는 국방헌금과 도로공사 등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진척학원은 해방 후에는 현재 평택중앙초등학교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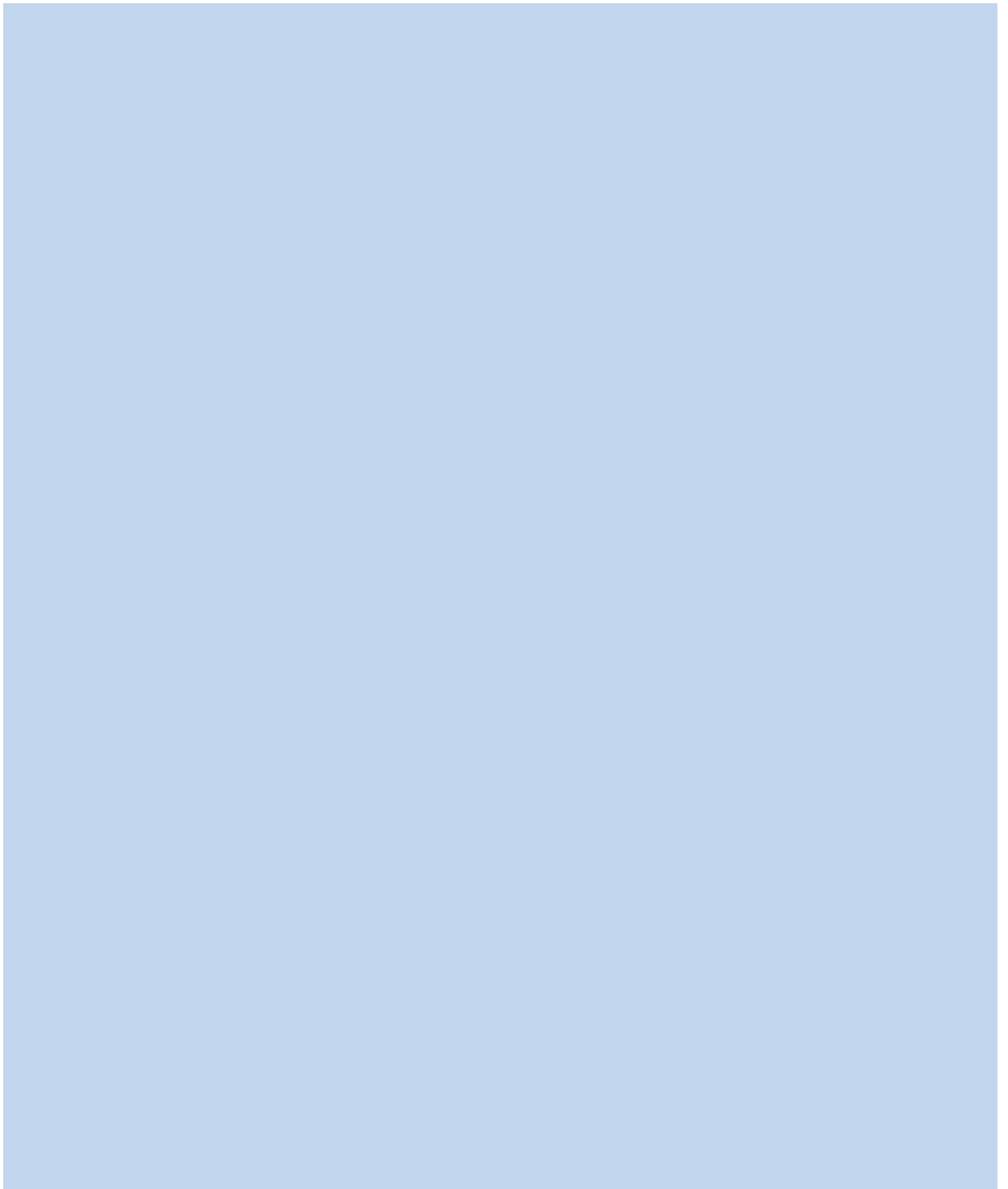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중선정구대회는 평택소년회에서 주최하였던 것이었지만 이를 인계를 받아 1920년대 중후반 개최하였다. 다섯째는 교육활동이다. 청년회의 교육활동은 야학부와 진척학원의 운영이었다. 초기에 운영하였던 야학부를 평택지역 무산아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진척학원으로 발전하였다. 120여 명의 정원이었던 진척학원은 6개월 만에 300여 명으로 수업생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가 늘 부족하였다. 이에 진위청년회는 소인극 공연을 통해 경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유지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학원은 1933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 여론의 도움으로 진척학원이 다시 개교하였지만, 지역유지인 이민환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진위청년회의 교육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렇지만 진위청년회는 진척학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지속하였다.

진위청년회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 평택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단체로서 활동하였다. 청년회 임원뿐만 아니라 회원 역시 지역의 유지들이었다. 일제 식민기관인 면사무소 면장을 포함하여 교원, 지역 상공인, 지역 언론인 등으로서 경제력도 상당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청년회를 통해 평택지역의 여론과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1930년대 전시체제가 형성되면서 일제식민지배에 협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평택지역의 청년운동은 지역적으로 평택역 일대와 서정리역 일대로 양분되었다. 평택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운동은 진위청년회가 주도하였으며, 서정리역 일대는 서정리노동조합 등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남상환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수진농민조합사건과 관련하여 진위청년회의 주요인물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위청년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체제안정적인 틀을 도모하였다고 보여 진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진위청년회를 통해 자신들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 민족대표 48인 김세환의 민족운동

황민호(숭실대 사학과 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근대 교육의 수용과 3·1운동 이전의 교육활동
3. 민족대표 48인으로서의 활동과 민족의식
4. 3·1운동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과 김세환
  - 1) 기독교 문화운동의 전개
  - 2) 신간회와 수원체육회에서의 활동
5. 맺음말

## 1. 머리말

金世煥은 3·1운동의 민족대표 48인<sup>1)</sup> 중 한 사람으로 일제시기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계 교육가이며, 민족운동가였다. 한말 한성관립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中央大學에서 공부한 것으로 보이며, 귀국 후에는 수원강습소와 삼일여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여

1) 「兩教同志者の 相呼相應 朝鮮民族代表四十七人の 公判」, 『동아일보』 1920년 7월 15일. 민족대표 48인에 대해서는 당시 일반에서는 ‘민족으로의 감정과 세계로의 개조에 隨應해야 작년 3월 1일, 조선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하고 자진하여 囹圄 중의 몸이 된 조선민족대표 33인과 及此에 직접 관련된 崔南善 이의 14인’을 말한다 하였고. 一記者, 「庚申年의 거둠(下)」, 『開闢』, 1921년 1월.

수원지역 교육계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朝鮮基督教敎文社의 설립에 적극 관여하였고 民立大學設立운동과 新幹會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은 그에 의해 주도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水原體育會를 중심으로 수원청년회 계통의 사회주의세력과 경쟁하며, 적어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이 좌익계열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견제하는 기독교세력의 중추적 인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1939년 11월에는 수원 출신의 부호 崔相喜를 설득하여, 삼일학교에 거금 20,000원을 기부하게 함으로써 학교를 폐교의 위기에서 구하였다.<sup>2)</sup> 그리고 1941년 3월에는 수원지역 3대 地主였던 洪思勳<sup>3)</sup>을 설득해 水原商業學校를 설립하고 교육에 힘쓰던 중 1945년 9월 16일 운명하였다.<sup>4)</sup> 그에 대해 『수원삼일학교 65년사』에서는,

수원 胎生 김세환 선생은 애국 독립운동자였다. 48인 중 한분으로 내란죄로 투옥 당했던 것이다. 선생은 수원사회의 유별한 일꾼이었다. 郷土문화 근대화와 공익사업에 있어서 언제나 선두에서 활약한 유지였다.

1939년 삼일학교에 巨財를 쾌척한 최상희씨의 배후에는 김세환 선생의 활동이 컸으며, 그의 숨은 공로를 알 사람이 없었다. 삼일남여학교의 학감을 역임한 바도 있으며, 高雅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선생은 삼일학교의 은인일 뿐 아니라 수원사회의 자랑이기도 하였다.<sup>5)</sup>

라고 하고 있다. 이 인용문은 일제하 수원지역의 교육사업과 민족운동에서의 그의 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김세환의 생애와 3·1운동 참여 및 이후의 수원지역에서 민족운동에서의 그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활동이 주로 3·1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적어도 1920·30년대의 김세환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김세환의 생애와 그의 일제하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그의 민족운동

2) 「水原三一學校에 曙光 巨金二萬圓을 惠擲, 京城 崔相喜氏의 壯舉」, 『동아일보』 1940년 2월 20일. 이 보도에서는 '수원읍 梅香町에 있는 무산아동 교육기관이 수원 삼일학교는 1905년의 조선감리교회와 당지 유지 제씨의 발기로 설립되어 금년 26회 500여명의 졸업생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3) 이승언, 『한말일제하수원기사색인집』, 수원문화원, 1996, 93쪽.

4) 홍석창, 『水原地方 三一運動史』, 왕도출판사, 1980, 128쪽

5) 삼일학원65년시편찬위원회, 『삼일학원65년사』, 1968, 149쪽.

의 성격을 보다 깊이있게 파악할 수 있는 또다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근대 교육의 수용과 3·1운동 이전의 교육활동

3·1운동 당시 재판 기록에 의하면 김세환은 1888년 11월 18일 경기도 水原郡 水原面 南水里 242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本籍과 住所地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sup> 그러나 1928년경에 작성된 일제의 監視對象人物表에서 보면, 이와는 조금 다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우선 그의 異名은 東方이며, 직업은 木材商이고 신분은 常民으로 되어있다. 또한 身長이 8尺 4寸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장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실제로 1920년 이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김세환의 가족사진에서 보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미소 띤 얼굴로 가족들 뒤에서 있는 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巨軀의 부드러운 風貌를 지니고 있었다. 이밖에 그는 普通要視察人物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얇게 ‘痘痕 [천연두의 흔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sup>8)</sup>

그는 어려서부터 수원 종로교회에 출석하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였으며, 장년이 되어서도 술·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sup>9)</sup> 종로교회는 1901년 북감리교회 선교사 스웨어러(徐元輔 W.C. Swearer)와 助事 김동현, 傳道師 이경숙이 함께 수원 普施洞 16번지에 예배당과 사택으로 쓸 13칸의 가옥을 구입한 후, 이듬해 남자 3명과 여자 2명의 신도가 입교하면서 시작된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였다.<sup>10)</sup> 1912년경에는 입교인 156명, 세례교인 36명, 학습인 383명 등 약 1,200명의 신자들이 등록된 교회로 성장하였으며, 인근의 始興·南陽·利川·龍仁으로도 그 교세를 확장시켜 가고 있었다. 종로교회는 수원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수의 상류층이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기도 했다.<sup>11)</sup>

이후 김세환은 서울로 올라와 漢城官立外國語學校에 진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3·1운동 과정

6) 「金世煥 訊問調書」,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2 三一運動)』, 1990.

7) 위영, 「역사를 읽는 한 방법, 척(尺) 단위 이야기」, 국가기록원, 『기록인』 39, 2017 여름, 58쪽.

8) 수원박물관, 『수원사람들의 독립운동』, 2015, 90-91쪽. 한편 이 표에서는 그의 본적과 출생지에 대해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山樓里 208번지이고, 주소는 同 梅山里 49번지로 되어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9) 앞의, 『水原地方 三一運動史』, 128쪽

10) 민족과 함께하는 수원 종로교회, <http://sjmc.or.kr>.

1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의 종교와 교육』, 135쪽, 2014.

에서 있었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取調에서 학력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한국시대 外國語學校를 졸업했다고 답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하겠다.<sup>12)</sup> 한편, 일본 유학과 관련해서는 민족대표 48인의 약력을 보도한 『신한민보』의 기사에 따르면 ‘그(김세환-필자)는 년전에 동경에 유학하여 상당한 학문을 닦고 귀국한 후에는 미기에三一학교 교사로 있다’라고 보도한 것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의 명문사립 중앙대학을 다녔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3)</sup>

서울과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적 지식을 수용한 김세환은 1910년 직후부터 水原商業講習所(이하-강습소)에서 직조감독관으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강습소는 1908년 4월 15일 梁聖寬, 洪健燮, 洪敏燮, 金興善, 申駿熙 등에 의해 수원 상업회의소가 설립되고 이듬해인 1909년 부속사업으로서 “상업에 관한 지식, 기능의 강습”<sup>14)</sup>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였다. 초기에는 주간 보통과에 18명, 야간 보통과에 80명을 모집하였으며, 보통학교 졸업 이상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하였고<sup>15)</sup> 한문, 영어, 상업부기 등을 가르쳤다. 특히 이 학교의 제2회 졸업생인 金露積과 보조교사였던 박선태는 김세환의 직접 지도를 받은 제자로 이후 3·1운동과 수원지역 민족운동에 있어 김세환을 적극적으로 돕는 인물로 활동하였다. 김세환은 강습소의 교사 뿐만 아니라, 소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1916년 7월 조선총독부에서는 朝鮮商業會議所를 공포하여 종래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설립한 상업회의소에 대한 통합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총독부에 순응하지 않는 조선 상공인들의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당시 일제는 행정구역상 府에 한하여 상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郡이나 面에 설립되어 있던 상업회의소는 해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일지역 내에는 한 개의 상업회의소만 인정하는 한편, 상업회의소의 설립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定款을 만들고 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총독의 認可를 받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도 일정액의 營業稅를 부담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었다.<sup>17)</sup>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골

12) 이병헌, 『三一運動秘史(金世煥先生 取調書)』時事日報社, 1959, 725쪽.

13) 「민족 대표 48인의 약력」, 『신한민보』 1922년 3월 16일. ‘三一학교 교사 김세환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二四二. 三十四세 十一 月 十八日 생. 그는 년 전에 동경에 유학하여 상당한 학문을 닦고 귀국한 후에는 미기에三一학교 교사로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따르면 김세환은 ‘普成中學校를 졸업한 후’ 일본에 유학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mpva.go.kr>.

14) 「商業講習所校友會」, 『동아일보』 1922년 6월 13일

15) 「水原商業講習所」, 『동아일보』 1921년 3월 17일

16) 앞의, 『수원의 종교와 교육』, 146쪽.

17) 전상현, 「일제초기 조선상업회의소령의 제정과 조선인상업회의소의 해산」,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84-86쪽.

자로 하는 총독부의 새로운 법령에 따른 설립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수원상업회의소는 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강습소도 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22년 경 지역 유지들이 나서서 강습소를 화성학원(華城學院)이라 개칭하고 그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sup>18)</sup>

강습소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김세환은 1916년 밀러(L.A Miller, 美羅) 선교사의 배려로 삼일여학교의 학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일여학교는 1902년 6월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스크랜튼(M.F Scranton)이 수원을 방문하여 어린 소년 3명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1907년 밀러가 부임하여 낙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으며 발전해갔으며, 당시 미감리회 여선교회장이었던 스크랜튼의 지원에 힘입어 수원 시내 중심가에 남녀학당과 교회 건물 및 선교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도 구입할 수 있었다.

이후 1909년 4월 28일에는 대한제국 學部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이때 校歌도 제정하였다. 교과과목으로는 국어, 한문, 영어, 산술, 체조, 성경, 음악, 재봉 등을 가르치고 있었다.<sup>19)</sup>

학감으로 부임한 김세환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꽃과 나무를 심어 학교 정원을 가꾸었고, 학교 건물 벽에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조각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sup>20)</sup> 또한 養蠶實習場을 만들어 학생들의 생활정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1915년에는 장마철만 되면 범람하는 학교 개울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자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수원 남문(팔달문)의 문짝을 떼어다가 다리를 놓아 주기도 하였다.<sup>22)</sup> 이후 이곳에는 1926년 여름 김세환의 감독 하에 삼일교라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어 수원의 '新名物'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sup>23)</sup> 또한 1917년과 1918년에는 학교 증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4)</sup>

18) 「商業講習所改革」, 『동아일보』 1922년 1월 27일

19) 앞의, 『수원의 종교와 교육』, 215-216쪽.

20) L.A Miller, "Evangelistic Work and Day Schools on the Suwon Districts", *Annual Report of Korean Women's Conference oh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6, 42~43쪽.

21) L.A Miller, "Evangelistic Work and Day Schools on the Suwon Districts", *Annual Report of Korean Women's Conference oh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8, 86쪽.

22) 김세환, 『매향 팔십년사』, 매향여자중고등학교, 1982, 46쪽.

23) 「巡廻探訪(205) 停車場近處부터 日人이蠶食<10>」, 『동아일보』 1927년 1월 23일. '三一橋는 水原에 新名物로 일흠 조차 새로되었스니 今年 봄에 三一女子普通學校에서 1400圓이란 巨額을 드리여 6個月만에 完成해 노흔 다리이다 지난간 庚申年 장마에 華虹門이 떠나려 갈 때에 三一女學校압해 잇던 쇠다리도 떠나가고 말엇스니 每日 三四百名(매일 삼사백명에 學生이 만흔 困難을 當하게 되었섯다 그後 任時 假橋를 노와섯스나 잇해 前 洪水에 다시 떠나매 三一女校長 美羅氏의 獨擔으로 金世煥先生의 監督 아래에 훌륭한 다리가 되었스니 금년 장마에 梅香橋가 떠나간 후에는 매일 5-600명에 달하는 來往客이 오로지 이 삼일교로 만 다니게 되었으니 水原



그런데 삼일여학교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김세환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자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三一女子普校) 隆熙3년에 와서 米國宣敎夫人 詰萬氏가 設立者로 學部大臣의 認可를 得하는 同時에 現在位置에다 100餘坪에 洋制로 校舍를 建築하였으며 現在校長인 美羅氏가 校長으로 就任하며 따라 金世煥先生께서 學監으로 就任하여 不斷한 努力과 있는 誠意를 다하여 內容充實과 實力養性에 오로지 힘쓴 結果 校運은 날노 隆盛하여 今年 봄에 와서는 女子普通學校로 昇格하였으며 現在 六學級에 在學生 數는 180餘名에 達하며 그동안 14年の 卒業生은 72名이라한다 현재 校舍로는 날노 增加되는 學生을 充分히 收用할수 업서서 7000圓에 巨額을 投하여 方今 40坪에 校舍를 煉瓦制로 增築 中이라는 봐來月이면 그 落成을 보리라는대 압호로 더 새로운 희망의 曙光이 빛칠 것을 生覺하니 水原에 女子界를 爲하여 만흔 깃뽀을 이길수 업다.<sup>25)</sup>

위의 내용에서 보면 삼일여학교는 현재의 교장인 밀러가 취임한 후 김세환선생이 학감으로 부임하여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다해 오로지 교육 내용의 충실과 실력양성을 위해 힘쓴 결과, 학교의 운이 날로 융성하게 되어 여자보통학교로 승격하게 되었다고 소개하는 한편, 삼일여학교의 이 같은 발전은 수원 女子界의 큰 기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김세환은 1927년 4월 29일에는 동아일보 본사 건물 新築落成紀念의 일환으로 수원종로교회에서 개최된 少年少女顯賞討論會에서 심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심사위원으로는 수원시내 각 학교의 선생님 5분과 동아일보 수원지점 고문 김세환 선생 및 총무가 맡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김세환이 『동아일보』와 일정한 연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sup>26)</sup>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세환은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 이전에 이미 근대적 신

---

에서는 三一橋을 이글 수 업스며 따라 달밤에 다리우로 거니는 趣味도 여간 사람의 興을 도음는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이것을 우리 水原에 新名物로 紹介하기에 붓끄림이 업다.’

24) 이덕주, 「수원선교와 매향여학교의 역사적 맥락」, 2013년 5월 28일,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youn24&logNo=60192884217&proxyReferer>

25) 「巡廻探訪(199) 停車場近處부터 日人이 蠶食<4>」,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

26) “少年少女顯賞討論會를 오는 二十九日 下午 八時 水原鐘路教堂 內에서 開催할터인바 等級(등은 三等까지인데 一等에는 本社 特製 紀念銀메달이며 二,三等에는 亦是 銅메달을 贈呈할 터이며 當日에 審判으로는 水原市內 各學校 先生님 5분과 本報 수원지점 高文 金世煥先生과 總務이며 參加規正은 如左하더라. 時日 4月 29日 午後 八時 定員 二十名 場所 鐘路 教堂 申請期日 4月28日까지 申請場所 本報水原支局” 「本社新築落成紀念 卅日前後 하여 各地一齊히」, 『동아일보』 1927년 4월 26일.

학문과 기독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지식인이었으며, 1910년 경부터 고향인 수원에서 수원강습소와 삼일여학교를 중심으로 근대교육에 힘쓴 대표적인 교육가 및 민족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민족대표 48인으로서의 활동과 민족의식

1918년 11월 18일 독일이 항복한 후, 1919년 1월 18일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되며, 이보다 앞선 1월 8일에는 미국대통령 윌슨에 의해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발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천도교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3·1운동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기독교세력은 朴熙道와 李甲成을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YMCA) 등의 학생세력이 조직화되면서 운동의 기운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김세환은 박희도와와의 인연이 계기가 되어 민족대표 48인의 일원으로 3·1운동 참가했는데 당시 박희도는 미감리회 전도사이며, YMCA 학생부 간사로 청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sup>27)</sup> 민족대표 48인으로서의 김세환의 활동에 대해서는 警察取調書 및 그에 대한 재판기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sup>28)</sup>

김세환은 우선 삼일여학교의 교원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박희도를 찾아갔다가 그로부터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있음으로 조선이 독립할 때라는 말을 듣고 이에 찬동하여 3·1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2월 21일에는 세브란스 병원 내 이갑성의 집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는 咸台永 · 李昇薰 · 安世桓 · 朴희도 · 吳華英 · 吳基善 · 申洪植 · 玄楯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회의에서는 일본정부나 조선총독부 및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청원서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3·1운동에 참여할 동지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印章을 받기로 하였다. 이때 김세환은 박희도로부터 3·1운동 계획을 지방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지들을 모집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여비 20원과 모집된 동지들이 조인할 美濃紙 15매를 받아 '순회위원'의 직함으로<sup>29)</sup> 충청도와 수원지방을 담당하기로 하고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신흥식은 평양으로, 이갑성은 경상도로 가기로 했으며, 현순은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서면을

27) 김권정, 「일제 강점기 김세환의 기독교 민족운동」, 『송실사학』18, 송실사학회, 2005, 50쪽.

28) 이병헌, 『三一運動秘史(金世煥先生 取調書)』, 時事日報社, 1959, 725-729쪽.

29) 유준기, 「최연소 3·1운동 민족대표 이갑성」, 『春潭 劉準基博士 停年退任記念論叢』, 국학자료원 2009, 207쪽.

가지고 上海로 출발하였다.

한편, 김세환이 당시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만났던 인물에 대해서는 그의 재판기록에도 일부가 나타나고 있다.

問 경성을 출발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答 최초로 忠淸南道 海美(現 唐津)郡邑 내 감리교목사 金秉濟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말을 하여 찬성을 얻고서 승낙서에 날인하여 늦어도 二十六일까지는 朴熙道에게 가지고 가라 하였고 그후 곧 洪城을 다녀 天安서 기차로 鳥致院에 와서 자동차로 公州까지 갔었다 公州에서는 감리교목사 玄錫七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와서 朴熙道에게 보고한 다음 水原으로 가서 南陽교회 목사 董錫基를 만나 취지를 말하였더니 朴熙道에게서 들었다고 하면서 승낙하였다 집에 와서 하루자고 二十七 利川교회목사 李康白에게서 찬성을 얻어 조인을 받은 후 烏山에서 金光植을 찾아 찬성을 얻었다. 水原서는 任應淳을 찾아 말한 후 조인을 받아가지고 朴熙道에게 가니 시간이 늦어서 안되었다 하므로 숙옥에 와서 소감하였다.<sup>30)</sup>

위의 내용에서 보면 경성을 출발한 김세환은 해미, 홍성, 천안, 조치원, 공주 등지를 순회하며 金秉濟 등과 만났으며, 수원, 남양, 이천, 오산 등을 돌며, 董錫基, 金光植, 李康白, 任應淳 등을 만났다. 특히 해미에서는 읍내의 감리교회 사경회를 인도하러 온 홍성교회의 김병제 목사에게, 그리고 남양교회에서는 동석기 목사에게 3·1운동의 계획을 설명하고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동석기목사는 일찍이 미국 유학을 다녀와 영국과 미국의 외교관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세계정세에 대해 누구보다 밝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이 강한 목회자로 유명하였다.<sup>31)</sup> 또한 임운순은 수원 종로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다.<sup>32)</sup> 김세환은 약 40여명의 서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이는 그가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up>34)</sup> 그러나 이들과 함께 민족대표로 서명하기로 했던 김세환은

30) 위의, 『三一運動秘史(金世煥先生 取調書, 大正八年五月二十日)』, 727-728쪽.

31) 김익진, 「동석기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8, 1998, 221~223쪽.

32) 앞의, 「일제 강점기 김세환의 기독교 민족운동」, 51쪽.

33) 앞의, 『水原地方 三一運動史』, 129쪽.

34) 김세환과 함께 경상남북도 순회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갑성은 마산·대구 등지를 다니며 동지를 구했으나 한 사람도 얻지 못해서, 재차 다른 사람을 파송해서 진주·울산에서 약간 명을 얻었다고 한다. 앞의, 『三一運動秘史』, 303-306쪽.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독립선언서의 記名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었고 갖고 있던 동기들의 명단을 숙소에서 소각하였다고 한다.

3월 1일 김세환은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 나가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자신도 종로에서 무교동을 거쳐 京城日報社 앞까지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 하였으며, 12일 경성 唐珠洞에서 체포되었다.

한편 투옥된 김세환은 검사의 신문과 재판과정에서 민족대표서의 당당함으로 주위를 감동케 했다.

① “아무리 세계대세로 병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모든 물건을 대할 때 초목에서 흐르는 이슬도 눈물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에 정정당당히 조선사람은 권리를 찾고 일본 사람은 권리를 돌려 줄 시기가 돌아올 줄 알았다.”<sup>35)</sup>

② “본래 합병을 조선사람이 싫어하였으나 대세에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도 독립운동에 진력을 하려 하였더니 이번의 전쟁이 처음에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으나 미국이 전쟁에 참가한 뒤에는 군국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에 대한 평화주의의 전쟁이니까 강화회의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민족자결을 적용하게 될 것을 따라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합이요”<sup>36)</sup>

위의 ①은 김세환의 ‘공소공판기’ 중 “한일 합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상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②는 ‘선언 동기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김세환의 재판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 기사이다. 이들 내용에서 보면 김세환은 우선 조선이 아무리 세계 대세로 병합되었다고 하나 항상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초목에 흐르는 이슬도 눈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을 지경이었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본래 합병은 조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었으나 대세에 어찌하지 못했지만, 나도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에 진력을 다하려 했다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에 조선 사람에게는 정정 당당히 권리를 찾고 일본 사람에게는 권리를 돌려 주게 할 시기가 올 줄 알았다고 하여 그의 3·1운동 참여가 기독교 민족주의에 바

35) 「김세환 공소공판기」, 앞의 『水原地方三一運動史』 295쪽.

36) 「宣言動機의 眞實한 告白 朝鮮民族代表四十七人の 公判」, 『동아일보』 1920년 7월 16일.

탕을 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서는 국군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는 평화주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바탕을 둔 3·1운동과 한국의 독립 역시 평화주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명확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밖에도 그는 “금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간결하게 답함으로써, 그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다.<sup>37)</sup> 이후 김세환은 1920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복심법원에서 구류 360여 일 만에 宋鎭禹, 玄相允, 金道泰 등과 함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언도받고 감옥에서 풀려 나왔으며, 수감된 지 만 1년만의 일이었다.<sup>38)</sup>

또한 김세환의 지방순회 활동은 수원지역 3·1운동의 발발과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세환은 3·1운동의 순회위원으로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동지들을 규합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향 마을인 水原面의 3·1운동을 기획·지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세환은 이미 남양 교회의 동석기목사를 만나 3·1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데 그는 남양지역 감리교의 책임자로 평소 사당 비봉을 순회하며 목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김세환은 자신이 다니던 수원 종로교회의 전도사 임응순에게도 3·1운동의 계획을 설명하였고 이천의 이강백목사와 오산의 김광식목사 등도 그의 뜻에 동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세환의 이같은 노력으로 수원 인근 중요지역 기독교세력의 3·1운동 참여는 그 기운이 높아 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sup>39)</sup>

김세환은 1919년 2월 말 3·1운동의 준비를 위한 마지막회의를 수원강습소에서 개최하였다. 그는 제자인 김노적을 수원면 만세운동의 책임자로 임명했으며, 이 회의에는 박선태·이선경·임순남·최문순·김석호·김병갑·이희경 등의 기독교 청년들이 참석하고 있었다.<sup>40)</sup>

이들은 삼일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이후 수원 시내를 거쳐 화성학원까지 가는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일제 경찰에 의해 상황이 탐지되었다는 정보가 있자 시위는 3월 1일 저녁의 횃불시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3월 1일 서울에서 3·1운동의 구

37) 위의, 『三一運動秘史(金世煥先生 取調書, 大正八年五月二十日)』, 727쪽.

38) 앞의 『水原地方 三·一運動史』 130쪽.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에 김세환이 1920년 1월 30일에 석방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http://www.mpva.go.kr>) 「人事」, 『동아일보』 1829년 9월 22일자에는 “金世煥씨 廣文社 사무를 帶하고 22일發 충청북도 각지에 출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의 출옥일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39) 수원지역의 3·1운동에 대해서는 김권정, 「수원지방 기독교계의 3·1운동과 이후 동향」, 『역사와 교육』 11, 2010을 주로 참고하였다.

40) 李梯宰, 「水原地方 獨立運動 先驅者 金露積 先生」, 『水原의 옛 文化』, 효원문화인쇄, 1995, 154쪽

체적인 움직임이 촉발되자 그날 저녁 수원 北門안 용두각에 수백 명이 모여 햇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이때 만세소리를 듣고 각처에서 모여든 군중이 수천 명이었다고 한다.<sup>41)</sup> 이날 밤 화성 동쪽의 봉수대에서도 햇불이 올랐고 팔달산 서장대를 비롯한 20여 곳의 성곽에서 일제히 봉화가 타올랐으며, 남문 밖 객주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도 합세하였다.

3월 1일 밤 수원면에서의 만세시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이에 놀란 일제 경찰은 김노적·박선태·이선경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체포했으며,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는데 김노적은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 한 쪽이 함몰되었고 왼쪽 손목은 거의 못 쓸 정도로 으깨졌다고 한다. 실제로 3·1운동 이후 김노적은 대부분의 사진에서 왼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찍었다고 한다.<sup>42)</sup>

수원읍에서는 3월 16일 장날을 기해서도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데 팔달산 서장대와 동쪽문 연무대에서 각각 수백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시위와 관련해 日警이 삼일여학교를 급습하여 사무실을 파괴한 것으로 볼 때, 이 역시 김세환의 영향 하에 진행된 만세운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박희도와와의 인연으로 3·1운동에 민족대표로 참가한 김세환으로 충청도와 경기도지역의 순회위원으로 동지의 규합과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포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 3·1운동의 정당성과 자신의 강력한 민족의식을 당당하게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고향인 수원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3·1운동을 기획·주도함으로써 적어도 경기남부지역에서 3·1운동이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4. 3·1운동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과 김세환

##### 1) 기독교 문화운동의 전개

3·1운동 이후 출옥한 김세환은 학교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1) 앞의, 『三一運動秘史』, 868쪽.

42) 앞의, 『수원사람들의 독립운동』, 150쪽.

43) 앞의, 「수원지방 기독교계의 3·1운동과 이후 동향」, 36-69쪽.

김세환선생은 금년에 32이라는 아직 젊으십니다 출옥 후에 교편을 들고 있던 水原三一女學校에 일을 볼 목적을 가지고 잇섯스나 환경의 간섭으로 뜻과 가치되지 못하고 밤을 도리켜 수원 읍내에서 곡물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상업을 한답니다.<sup>44)</sup>

위의 내용은 3·1운동 이후 민족대표 48인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는 1925년 10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를 통해서 보면 출옥 후 김세환은 ‘교편을 들고 있던’ 삼일여학교에서 일을 보려고 했으나 ‘환경과 간섭으로’ 뜻과 같이 되지 않아 수원 읍내에서 穀物商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던 김세환은 종로교회와 감리교 교단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문화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1운동 이후 무단통치의 한계를 절감한 일제는 새로운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민간언론의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이 같은 분위기 하에서 『開闢』, 『新生活』, 『新天地』, 『新女性』, 『青年』, 『我聲』, 『別乾坤』, 『批判』 등의 다양한 잡지들이 출간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sup>45)</sup>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계 잡지들의 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29년까지 대체로 41개의 잡지가 발행되었으며, 일본 동경의 YMCA에서 발간한 『現代』(1920)를 비롯하여 경성 YMCA에서 발간한 『청년』(1921), 주일학교연합회에서 발행한 『主日學校雜誌』(1925), 基督教青年勉勵會에서 발행한 『眞生』(1925) 등이 출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계 문서운동 주체의 하나로 1921년에 朝鮮基督教彰文社(이하-창문사)<sup>46)</sup>가 설립되었으며,<sup>47)</sup> 잡지 『新生命』이 발간될 수 있었다. 『신생명』은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sup>48)</sup> 초기의 명칭은 조선기독교 광문사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書籍商 중에 광문사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였다.

창문사에는 YMCA 관련 인사들과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이승훈·김창준·김백원·김지환 등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김세환은 옥고를 같이 치른 동지이며,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민족지도자 접이 인연이 되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본금 100만원으로 기독교서적의 간행과 판매 및 일반 인쇄업과 교육용품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실

44) 「己未年運動과 朝鮮의 四十八人(七) 最近消息의 片片」, 『동아일보』 1925년 10월 7일

45) 황민호, 『일제하 잡지발행 식민지시대자료총서』, 개명문화사, 1992.

46) 『기독신보』 1923년 2월 7일.

47) 「廣文社發起」, 『동아일보』 1921년 8월 13일.

48) 황민호, 「박동완의 국내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33,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제로 『동아일보』 1921년 10월 21일자 기사에 의하면 김세환은 廣文社 사무를 데리고 각 지방에 출장 중 지난 12일에는 驪州에 도착하여 倉里禮拜堂에서 信者들에게 광문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충북지방으로 향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었다.<sup>49)</sup> 당시 광문사에서는 강연단을 조직하고 전국을 돌며 순수 한국인 자본으로 설립된 문서신교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주식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했는데 김세환은 충청도지역의 강연단을 맡아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0)</sup>

또한 1923년 1월에는 수원엠플청년회의 총간사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월 13일 下午 7시 鐘路禮拜堂 內에서 水原엠플青年會 정기총회를 開하였는데 改選된 任員은 總幹事 崔相勳 金世煥, 宗教部幹事 崔文夫 金炳浩 劉富榮, 文藝部幹事 柳基東 金露積, 運動部幹事 申相均 金德根, 會計幹事 金顯東, 書記幹事 高仁寬 金元伯 등 卅이오. 各部幹事 中 一人씩 모혀서 회칙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후 10시에 폐회하였더라.(水原)<sup>51)</sup>

위의 내용에서 보면 김세환은 종로예배당에서 개최된 수원엠플청년회 정기총회에서 최상훈과 함께 총간사에 선출되었으며, 문예부 간사에는 김로적, 종교부 간사에는 김병호 등이 선출되어 그를 돕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세환이 청년회의 총간사에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가 향후 종로교회의 청년회를 중심으로 수원지역의 기독교 문화운동과 민족진영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엠플청년회의 총간사가 된 김세환은 1922년 10월 5일 趙喆鎬가 소년운동의 일환으로, 8명의 단원을 기초로 조직한 조선소년군의 수원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주도하였다. 조철호의 조선소년군은 순수 보이스카우트 정신 하에 ‘조선소년군은 조선사람의 조선군’이라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sup>52)</sup>

이후 조철호는 조선소년군의 취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순회를 진행했는데 1923년 3월 인천을 시작으로<sup>53)</sup> 4월 2일에는 수원 종로예배당에서 연예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소년군 일행 18명은 대장 趙喆鎬 씨의 인솔 하에 지난 2일에 수원에 도착하여 그 날 하오 8시부터 종로예배당에서 金世煥 씨의 사회로 연예회를 열었었는데 오백여명 관

49) 「金世煥氏의 動靜」, 『동아일보』 1921년 10월 21일.

50)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교문사, 1990, 80~82쪽.

51) 「水原엠플青年總會」, 『동아일보』 1923년 1월 21일.

52) 김형목, 「관산 조철호와 조선소년군의 역사적 위상」, 『중앙사론』 42, 중앙사학연구소, 2015, 93쪽.

53) 「소년군의 선전, 인천에서 첫 선전 오는 삼십일 밤에」, 『동아일보』 1923년 3월 28일.



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당석에서 동정금이 35원 50전에 이르렀다 하며 그날밤은 장소의 협착으로 입장을 거절한 어린학생일반을 위하여 그 이튿날 되는 3일 하오 2시에 다시 개최하고 사백명이나 되는 학생을 위하여 연예회를 열었고 그날밤 9시차로 경성을 향하여 떠났더라.(수원)<sup>54)</sup>

조철호를 대장으로 하는 18명의 조선소년군 일행은 2일에 수원에 도착하여 저녁 8시에 종로 예배당에서 김세환의 사회로 연예회를 개최했는데 500여명의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즉석에서 동정금 35원 50전이 거뒀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입장이 ‘거절’되었던 400명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 3일 오후 2시에 다시 연예회를 개최할 정도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1923년 8월에는 고국을 방문하는 포와(布哇-하와이) 조선인기독교학원 학생 들에 대한 환영 행사를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6월 경 고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有效한 동정으로 此行을 왕성히 迎하기를 切望한다고 하였다.<sup>55)</sup> 이에 수원에서는 지역 유지들이 환영준비회를 조직하고 김세환, 池公淑, 嚴柱喆, 高仁寬, 尹龍熙를 상무위원으로 선출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sup>56)</sup>

布哇學生 고국방문단 일행은 去 16일 上午 7시 40분 水原에 도착하였다. 십여일에 攄 한 支離한 霖雨도 그치고 天郎氣晴한 是日에 열광적 환영의 衷情을 가진 다수 軍중과 각 사립학교 生도는 水原驛頭로 運집하였다. 환영회 대표로 大田까지 出迎한 金世煥 씨의 인도로 일행은 驛外에 出現되자 主客은 禮를 맞히고 水原水旅館에 投게 되었다. 일반 환영군중의 一遺憾으로 思想은 경찰당국의 忌諱로 만세일창도 못함이었다. 朝饌을 맞치고 자동차로 高等農林學校와 勸業模範場을 觀覽하고 11시 반에 西湖杭眉亭에서 환영회가 잇섯으며 다시 자동차로 시내 主要地를 周覽하고 訪花隨柳亭에서 洪思勛 씨의 午餐招待會를 맞치고 靑年俱樂部 운동장으로 향하여 오후 3시부터 布哇大全水原軍의 野球戰이 始開되니 최후 승리는 20대 7로 布哇軍에게 歸하였었다. 同 6시 반에 漢城銀行 水原支店長 韓相鳳 씨의 晚餐招待會를 맞치고 同 8시 반부터 水原劇場에서 강연음악회를 開하였는데 만원의 대성황을 致한 중에 三一女學校 生도의 합창과 水原風化堂의 朝鮮古樂의 합주가 亦有하여 12시에 폐회한 후 일행은 梁聖寬氏第에 투숙하였고 翌 17일 朝 9시 車로 京城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오즉 遺憾으로 思想은 일행의 사정으로 예정과 如히

54) 「少年軍의 歸京, 수원의 연예를 맞치고」, 『동아일보』 1923년 4월 5일.

55) 「布哇學生團의 故國訪問計劃 사랑과 동정으로 일행을 祝함」, 『동아일보』 1923년 2월 4일.

56) 「水原서도 歡迎準備」, 『동아일보』 1923년 7월 23일.

花山隆陵과 健陵에 拜觀치 못하게 됨과 龍珠寺 초대에 副應치 못함이였다. 당일 기부인 사는 소비조합 5圓, 水原面長 近藤虎之助 10圓, 비취의 모듬 5圓, 車錫泳手巾 및 水原風景繪葉書, 水原電氣會社 조선인직공 제군의 8백여 燭電光이었스니 이는 일반 동정금과 共히 환영회에서 京城으로 송부한다더라.(水原)<sup>57)</sup>

위의 내용에서 보면 8월 16일 수원에 도착한 하와이 학생단에 대해 김세환 등 수원지역의 유자들은 식사와 관광, 친선야구경기, 환영공연 등을 개최하고 동정금까지 거둘 정도로 극진하게 환영하여 동포애를 과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보면 3·1운동 이후 김세환은 종로교회와 수원지역 감리교계의 중심에서 다양한 기독교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 2) 신간회와 수원체육회에서의 활동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김세환은 신간회 수원지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던 신간회운동에 기독교계의 대표로 朴東完·李甲成·박희도·吳華英·鄭春洙 등의 민족대표와 趙炳玉, 曹晚植 등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水原支會에 김세환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견 당연한 것이었다.<sup>58)</sup>

이 운동은 1920년대에 들어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에 대항해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의 대학설립을 목표로 추진된 교육 구국운동이었다. 1922년 11월 李商在·현상윤·韓龍雲·이승훈·許憲·송진우·張德秀·李甲成·南宮薰·洪惠裕 등 47명의 각계 인사가 서울에서 모여 민립대학기성준비회를 조직하였으며, 이듬해인 1923년 3월 29일에는 서울 YMCA회관에서 1,170명의 발기인 가운데 46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립대학기성회 발기총회를 개최하였다.<sup>59)</sup>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세환은 1923년 3월 24일 경 李圭宰, 朴琦泳, 林冕洙, 尹龍熙와 함께 수원군의 대표로 민립대학설립운동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sup>60)</sup> 이밖에 김세환은 1924년 7월

57) 「布哇學生團 到處大歡迎」, 『동아일보』 1923년 8월 21일.

58) 앞의, 「박동완의 국내민족운동」, 28쪽.

59) 이명화, 「民立大學 設立運動의 背景과 性格」, 『한국독립운동사연구』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60) 「民大發起人, 새로 선발된 발기인」, 『동아일보』 1923년 3월 24일. “민립대학 발기총회도 압력으로 겨우 닳새를 격한 오늘에도 江原道에서는 이삼군을 제한 외에 다수한 군이 아득 아모 소식이 업스니 이 큰 사업에 실로 유감되는 일이라 하겠스며 또 새로이 온 발기인의 씨명은 아래와 갓더라. ◇京畿 坡州郡 鄭永軫, 李輝龍, 宋基彪,

12일에는 商業視察의 명목으로 15·6일 예정하고 일본 고베[神戸]와 오사카[大阪] 등지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1)</sup>

신간회 수원지회는 크게 보면 수원지역의 성공회와 감리교 및 천도교 등의 종교세력과 화성학원과 삼일학교 관련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공석정, 우성규 등의 사회주의세력의 합작으로 조직될 수 있었다.<sup>62)</sup>

1927년 10월 8일 3·1운동 이후 구국민단을 조직하여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인사들과 수원의 유지들이 처음으로 북수리 천도교당에 모여 신간회 수원지회 문제를 논의하고 조직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이어 1927년 10월 17일 수원천도교당에서 수원 신간지회가 조직되었는데, 김노적의 사회로 개회하여 그의 개회사가 있는 후, 경과보고, 임시집행부 선거, 회원심사, 임원 선정, 중앙본부에서 파견한 이관구의 취지 설명, 내빈축사, 언론집회의 자유획득 등 안건 결의의 순서로 결성을 마쳤다. 이때 선출된 임원으로는 회장 김노적, 서무부 총무간사 김병호, 서무부 상무 박영식, 재무부 총무간사 이각래, 재무부 상무 최신복,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공석정, 조사연구부 상무 우성규, 조직선전부 총무간사 홍종각, 조직선전부 상무 박봉득, 간사 이연숙, 김현조 등이었다.<sup>63)</sup>

그런데 김세환의 신간회 수원지회 참여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인물로는 박선태, 김노적, 김병호 등을 들 수 있다. 박선태는 성공회계열의 인물로 휘문보고를 졸업하였으며, 3·1운동 당시 김세환의 지도 아래 수원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또한 진명구락부의 운동부장으로 활동했으며, 1930년에는 신간회 수원지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김노적은 성공회 교회의 신자로서 수원상업강습소와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3·1운동 당시 김세환의 지도를 받아 박선태와 함께 수원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진명구락부의 도서부장을 역임하였으며, 구국민단과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화성학원과 삼일학교의 교사로서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병호는 김세환과 같이 종로교회의 교인으

---

李鍾哲, 尹興秀, ◇慶南 陝川郡 陳圭奐, 鄭淳鍾, ◇京畿 水原郡 李圭宰, 朴琦泳, 林冕洙, 尹龍熙, 金世煥 ◇咸南 利原郡 姜賢秀, 金鐸, 朱翼鎰, 金河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은 『매일신보』에도 보도되었다. 「民立大學發起人, 앞으로 닦새바게」, 『매일신보』 1923년 3월 24일

61) 「地方人事消息」, 『동아일보』 1924년 7월 14일. “지방인사소식 ▲金世煥 씨 (前 水原 三一女學校 校監) 商業視察次로 십오륙일 예정하고 일본 神戶 大阪 등지에 去 12일 오전 8시 반 車로 水原驛 출발.(水原)” 이는 일본이 김세환을 회유하기 위해 일본 시찰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성운, 「192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과 일본시찰단」,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2007.

62) 수원지역 신간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성운, 「日帝下 水原地域의 新幹會運動」, 『역사와실학』 15·16, 역사실학회, 2000을 주로 참고하였다.

63) 「新幹水原支會 17일에 설립」,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로 수원삼일학교의 교사, 수원기자동맹, 수원엠플청년회, 3·1부인야학의 강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이들은 당시 김세환과 함께 수원지역 기독교계의 중심 세력으로서 수원지역 우익진영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었으며, 김세환은 이들의 후원 하에 1928년 8월 19일의 임시대회에서 지회장에 선출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新幹會水原支會에서는 去 19日 下午 3時에 北水里 同會館內에서 臨時大會를 總務幹事 金炳浩氏의 司會로 開會하고 開會辭와 各部 經過報告가 있슨 후 臨時執行部 選舉에 朴勝極氏가 議長으로 金道成氏가 書記로 被任되어 順序를 따하 進行할새 오랫동안 保留해오든 支會長 選舉에 入하야 無記名 投票로 金世煥氏가 絶對多數 得點되어 選舉된 후 그 以下 幹部 全部의 改選이 有한 中(중략) 左記 議案을 順序대로 討議하고 同 五時 三十分에 閉會하얏는데 閉會 時 新幹支會 萬歲를 부르려 하얏스나 臨席警官의 禁止로 中止되었더라 (수원)<sup>64)</sup>

위의 내용에서 보면 김세환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절대 다수의 표를 얻어 지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원지역 민족운동 세력 내에서의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회원들은 폐회식에서 '신간지회 만세'를 외치려 했으나 임석 경관의 금지로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김세환은 그 해 12월 16일에 열린 제3회 정기대회에서 또다시 지회장에 선출되었으며,<sup>65)</sup> 1930년 4월 25일의 임시대회에서 감사위원에 선출되기도 하였다.<sup>66)</sup>

한편 김세환은 1929년 8월 30일에는 수원체육회를 결성하여 수원지역 민족진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水原體育協會는 지금으로부터 이년 전에 창립되었으나 오늘날까지 하등의 활동함이 업다 하야 일반에 한 말성 거리가 되어 오든 중 이를 유감으로 여기든 수원 유지 몇몇 사람은 체육협회 간부와 상의한 결과 무능력 한 회를 해체하고 다시 힘잇고 활동 잇는 신 단테를 맨드는 것이 조켓다 하는 결론 하에 얼마 전에 체육회 간부가 모이어 동회를 해체 하기로 가결하야 즉시 해체를 하자 그 자리에서 水原體育會를 조직키로 준비회를 열은 후 각 방면으로 활동하든 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반에 公會堂에서 수원체육회 創立總

64) 「水原新幹會大會」, 『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65) 「신간 수원지회 정기총회」, 『조선일보』 1928년 12월 23일.

66) 앞의, 『수원의 종교와 교육』, 239쪽.

會를 金世煥씨 사회로 개최하고 경과 보고와 임시 집행부 선거로 역시 김세환씨가 의장에 피선되어 일사천리로 규측 통과와 다음과 같은 임원선거가 있은후 기타사항에 이르러 9월 안에 水原市民大運動會를 개최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그에 대한 모든 실행 방법은 이사회와 간사회에 일임하기로 한 후 동야 11시 30분에 산회하였다더라 ◇被選된 任員 會長 金世煥, 副會長 朴善泰, 理事 洪思勳氏外 九人, 幹事 方九鉉氏 外 十二人.<sup>67)</sup>

이 내용에서 보면 수원체육회에서는 오래전에 창립되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수원체육협의 간부들과 협의해 이를 해산하고 1929년 8월 30일 수원공회당에서 有志 諸氏의 열렬한 지지 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의 사회는 김세환이 보았으며, 회장에는 김세환, 부회장은 박선태, 이사는 홍사훈 외 9명이 선출되었고 조직선전부, 서무부, 競技部에 각각 상무간사를 두었으며, 축구부, 야구부, 정구부, 육상경기부, 빙상경기부를 두었다.<sup>68)</sup>

그리고 이들은 9월안에 수원시민대운동회(이하-대운동회)를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하였으며, 이를 이사회와 간사회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세환은 총회의 사회를 직접 맡고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사실상 체육회를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김세환이 체육회의 성립을 주도했던 것은 사회주의진영이 수원지역 청년운동을 장악하고 신간회지회 내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는 상황에서 그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양측의 갈등은 대운동회와 관련해 수원청년동맹 운동장의 사용문제에서 드러났다. 8월 28일 운동회를 개최하기로 한 수원체육회에서는 수원청년동맹의 운동장을 청년회의 사전 양해 없이 사용하겠다고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청년회에서는 체육회는 우리 사회단체와 실질상 다를 뿐 아니라 청년회의 아무런 허락 없이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광고한 것은 문제이며, 이는 청년회의 운동장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음모라고까지 하고 있었다.<sup>69)</sup> 그런데 양측의 이러한 대립은 적어도 김세환을 대

67) 「水原體育協會創立 종래잇는 체육협회 해산 市民大運動會, 九月內開催하기로 決意」, 『동아일보』 1929년 9월 5일.  
 68) 「水原에서 體育會創立」, 『중외일보』 1929년 9월 2일. “지난 30일 오후 8시에 水原公會堂에서 수원체육회 창립총회가 열리었는데 本會는 일찍이 成立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내려오던 바 有志諸氏의 열렬한 찬조로 겨우 金世煥氏의 사회 하에 개최되었는데 피선된 임원은 左와 如하고 순서에 따라 폐회후 幹事會까지 열었다더라. 회장 김세환, 부회장 박선태, 이사 洪思勳, 김병호, 洪思嫻, 金世琬, 車義舜, 李昌鎔, 申鉉益, 李完善, 梁奎鳳, 洪思先. 組織宣傳部常部(務-필자)幹事 方九鉉. 幹事 金升煥 申枯均. 庶務部常務幹事 金道生 幹事 李鍾陸 金顯模 朴点童 競技部常務幹事 洪思克. 蹴球部 金在權, 野球部 李甲成 庭球部 車哲舜 陸上競技部 張保羅, 氷上競技部 李大鉉 一, 開會順序 一, 開會辭, 一, 經過報告 一, 臨時執行部選舉 一, 規約通過 一, 其他事項 一, 閉會辭  
 69) 조성운, 「1920年代 水原地域의 青年運動과 水原青年同盟」,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258~259.

표로하는 수원지역 민족진영의 활동이 1920년대 후반에도 사회주의진영과 활발하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해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체육회는 창립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1935년 10월 15일 수원지역의 중심지대인 南昌리에 '초현대식 洋屋으로 會館을 건립하고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水原體育會는 지금으로부터 十一年前 水原體育界 重鎮인 金世煥氏와 洪思勳 諸氏의 發起로 創立되어 爾來十一個 星霜이나 가진 波瀾을 거둬가며 모든 運動에 總指導機關이 되어 만흔 功績을 남기었고 各種 事業을 한결같이 繼續 進行中인바 늘 會館이 없어 이를 建築하기로 數年 前부터 懸案 中이든 바 今春에 諸般 案을 革新함과 同時에 面目을 一新하고 會館 建築準備 工作에 着手하여 同 會長 梁奎龍氏 外 各 幹部는 物論이오 會員 諸氏의 熱烈한 活動으로 지난 七月 初에 水原 中央地帶인 南昌리에 起工式을 舉行하여 九月 末에 竣工이 되어 지난 十五日 午後 四時 新築 會館 內에서 落成式을 盛大히 舉行하였는데 同 會館은 最新式 洋屋으로서 總 坪數 四十三坪에 二十八坪의 大建物이라하며 同會는 아프으로 더욱더 發展하여 간다고 한다.<sup>70)</sup>

즉 위의 내용에서 보면 수원체육회는 11년 전에<sup>71)</sup> 수원지역 체육계의 중진인 김세환과 홍사훈 등에 의해 창립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그동안 갖은 파란을 거둬왔으나 수원지역 모든 운동의 총 지도기관으로서 많은 공적을 남기고 각종 사업을 한결같이 진행해 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김세환과 수원지역의 민족주의세력은 수원체육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여전히 나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김세환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1939년 수원 삼일교회가 새롭게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서 수원 갑부인 최상희씨를 움직여 폐교 직전의 학교를 구하였으며, 1941년에는 홍사훈 선생을 설득하여 수원상업학교를 설립하여 해방되기 까지 교육에 힘쓰다가 해방된 직후인 1945년 9월 16일에 숨을 거두었다.

따라서 이상을 통해서 보면, 김세환은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고 일제하에서 민족교육을 강

70) 「幹部와 會員의 活動으로 水原體育會館落成」, 『동아일보』 1935년 10월 26일.

71) 「水原體育會館 新築落成式, 다년간 현안이 실현」, 『동아일보』 1935년 10월 25일. “水原體育會(수원체육회)에서는 다년간 숙제로 되어잇던 동 회관 건축문제는 지난 여름에 기공하게 되어 지난 九월 말에 준공한 후 十월 十五일를 기하여 회관 신축 落成式을 동 회관 내에서 거행하였다는 바 공전의 성황을 이루었다 하며 식이 끝난 다음에 계속하여 임시총회까지 개최하고 금후의 만반을 결의하였다는데 동 체육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十一年 전에 金世煥 洪思勳씨의 발기로 창립되어 이래 만흔 공적과 만흔 파란을 거둬가며 오날까지 각종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원체육회가 창립 된지 11년전 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인 듯하다.

력하게 추진한 교육가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3·1운동에서는 운동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민족대표의 한 사람이었으며, 1920년대 이후에는 기독교문화운동과 신간회운동에서 강력한 민족주의 노선을 고수했던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고 할 것이다.

##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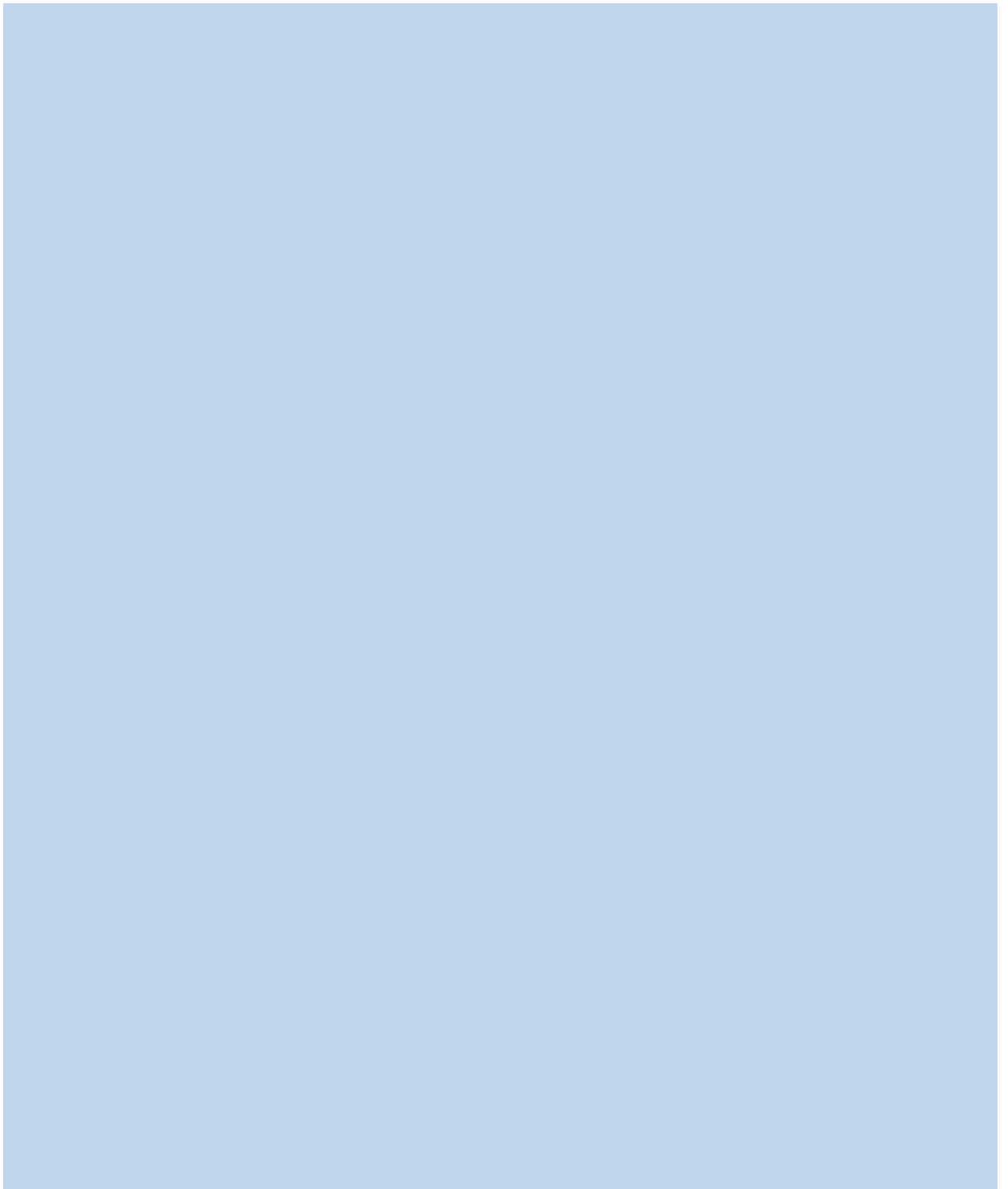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3·1운동에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불리며, 일제하 수원지역 민족 진영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김세환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8년 11월 18일 경기도 수원군에서 출생한 김세환은 어려서부터 수원 종로교회에 출석하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였으며, 한성관립외국어학교와 일본의 중앙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근대 학문을 수용하였으며,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 직후부터 수원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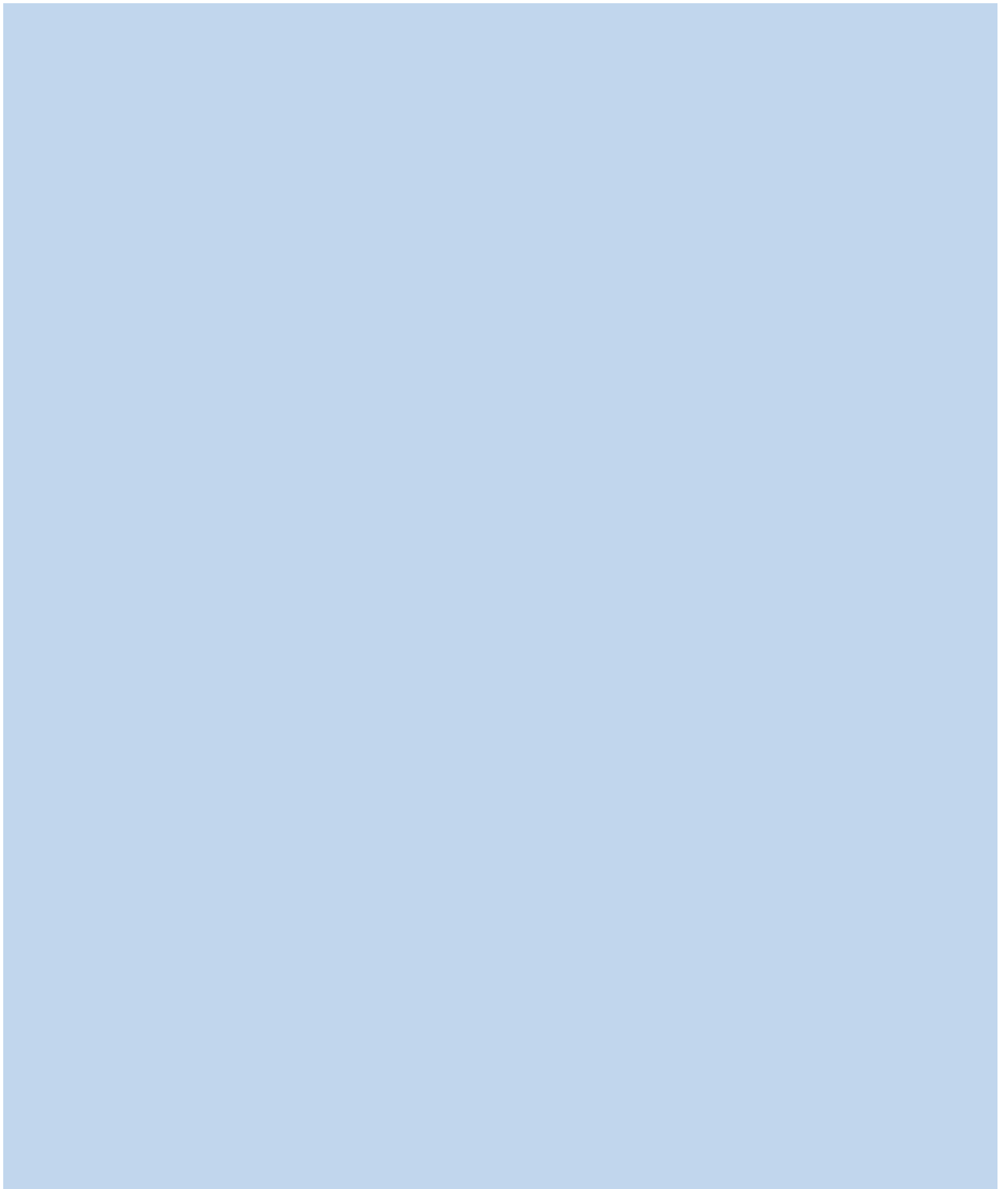
그는 수원상업강습소와 삼일여학교에서 근무하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교육계의 중심인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는 그가 민족대표의 일원으로 3·1운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1운동 과정에서 민족대표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김세환은 경기도와 충청도지역의 순회위원 자격으로 동지들의 규합과 3·1운동의 취지를 알리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세환은 민족대표들의 서명이 끝난 후에 서울에 도착함으로써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환은 재판 과정에서 3·1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일제의 조선지배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민족대표로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노적, 박선태, 이선경 등을 통해 수원지역에서의 3·1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는데 김세환의 이러한 노력은 적어도 경기 남부지역에서 3·1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환은 3·1운동 이후에도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했는데 조선기독교 창문사를 통한 기독교문화운동의 전개와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참여 및 신간회운동의 주도와 수원체육회를 통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운동과 경쟁할 수 있는 대중적 토대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민족운동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권태휘의 생애와 민족운동

조규태(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 〈목 차〉

1. 머리말
2. 출생과 성장
3.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 1) 3·1운동과 태평양회의 계기 독립운동
  - 2) 혁청운동과 신간회운동
  - 3) 조선문화 수호 운동
4. 해방 후의 정치 활동
5. 맺음말

## 1. 머리말

權泰彙(본명 權益洙, 1897~?)는 평택 북면 가곡리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며 사회운동가이다.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 1학년생으로 평택지역의 3·1운동의 발생 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태90대를 맞았던 그는 1920년 모종의 독립운동자금 모집 사건으로 징역 10월, 1921년 태평양회의에 맞추어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려다가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뿐만 아니라 그는 3·1운동 후 혁청단을 조직하여 인간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어 인간을 개조하고 사회문

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는 1920년대 중반 소위 자유주의세력의 자치운동에 맞서 사회주의세력을 결집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신간회를 조직하고 신간회 경성지회와 수원지회의 임원 등으로 이를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는 신조선사를 설립하고 조선 문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민전 등에서 활동하면서 통일 정부를 수립을 통해 민족의 분열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면에서 그는 평택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다. 그리고 그는 1920년대 공창폐지운동을 벌이고,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여권신장운동과 사회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신국가 건설을 위해 활동하였던 정치인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평택시와 평택문화원<sup>1)</sup>, 안재홍기념사업회와 원심창기념사업회, 김방·성주현·김인식·서태정 등의 연구로 평택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많은 점이 밝혀졌다.<sup>2)</sup> 안춘경 등 평택인의 의열투쟁, 대한제국기의 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이 소개되었고, 평택지역에서의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참가자·사상자 등이 종합·정리되고, 이 지역 3·1운동의 특징이 밝혀졌다. 아울러 진위 청년회 등의 청년운동, 박인중·이두중·이종필·이희수·김창기·최수일 등의 사회주의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 원심창 등의 아나키즘운동, 원심창·김상완·신순우 등 평택인의 해외 독립운동, 평택인의 전시체제 저항 운동 등이 알려졌다. 그러나 권태회에 대해서는 1921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경고문의 등사·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는 사실이 소개된 정도에 불과하였다.<sup>3)</sup>

1) 평택시, 『평택 3·1독립운동사』(평택시, 1997).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평택시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4).

2) 김방, 『평택지방의 항일독립운동사』(한울출판사, 2011).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숭실사학』 24, 2010. 성주현, 「해방 후 원심창의 민족운동과 통일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2010. 성주현, 「평택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식민지시기 종교운동과 민족운동』(도서출판선인, 2013). 서태정,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김인식, 「안재홍의 ‘기미운동’과 임정법통성의 역사의식」,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선인, 2014). 윤대식, 「안재홍, 그 체에없는 정전의 삶」, 동상서. 김명섭,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과 육삼정 의거」, 동상서. 성주현, 「일제강점기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 동상서. 박철하,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선인, 2014). 김방, 「평택지방의 3·1독립만세운동」, 동상서.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의 계검토와 전개 양상」, 동상서. 김해규,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동상서.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아라, 2014).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경제의 근대적 진로-외압주도 경제의 역기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7, 2016.

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이며 사회운동가인 권태휘의 민족과 사회를 위한 치열한 삶의 모습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그의 출신과 성장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그의 3·1운동과 3·1운동 직후의 독립운동, 1920년대의 혁청운동과 신간회운동, 1930년대의 조선문화운동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 후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추적해보도록 하겠다.

## 2. 출생과 성장

權泰彙의 본명은 權益洙이다. 泰彙는 어릴 때 집에서 부르던 이름인데, 이에겐 권태휘가 ‘큰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있는 듯하다. 또 다른 별명으로 權益相이란 이름도 사용하였다. 권태휘는 1920년 이후 독립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줄곧 권태휘란 이름을 사용하였다.<sup>4)</sup>

권태휘는 1897년 음력 11월 12일(양력 12월 24일) 경기도 진위군 북면 가곡리(현재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331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안동 권씨인 權鍾林이었고, 어머니는 전주 이씨였다.<sup>5)</sup> 위로 형 權學洙, 형수 金洙連이 있고, 남동생으로 權吉洙, 權思洙, 누이동생으로 權連洙, 조카로 權俊植이 있었다.<sup>6)</sup>

그는 양반 출신이었다.<sup>7)</sup> 아버지 權鍾林(1856년생)은 벼슬을 하지는 않았지만 進士였다. 그리고 조부 章圭(자 洛瑞, 1830년생), 증조부 會觀(자 仰余, 1796년생), 고조부 時興(자 敬綏,

3) 『평택시향일독립운동사』(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4), 337쪽.

4) 「공판시말서」(경성복심법원, 1922.1.1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5) 『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안동권씨추밀공파대보』(안동권씨추밀공파대보소, 1983), 亥. 『왜정시대인물사료』에는 1898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족보와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897년생으로 되어 있음. 생월과 생일은 양력인지 음력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시는 일반적으로 음력을 사용하였으므로 음력일 가능성이 높다.

6) 『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안동권씨추밀공파대보소, 1983), 現. 『왜정시대인물사료』에는 1898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족보와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897년생으로 되어 있다. 생월과 생일은 양력인지 음력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시는 일반적으로 음력을 사용하였으므로 음력일 가능성이 높다.

7) 「권익수신문조서」(1921.9.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일제 관헌의 신문에 권익수는 자신의 신분이 양반이라고 답하였다.

1769년생)도 과거에 합격하거나 벼슬을 한 기록은 없다. 다만 권태휘의 7대조인 克中(1648년생)이 佐郎을 지냈다고 한다.<sup>8)</sup> 그는 자신이 양반이라고 답하였지만, 부·조부·중조부·고조부가 벼슬을 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집안은 권세 있는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경제적으로, 그의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다. 일제의 정보문서에는 1920년대에 아버지의 재산이 부동산 500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sup>9)</sup> 그가 서울에서 의학전문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동산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1921년 당시 권태휘가 10정보(30,000평)의 전답을 소유하였다고 밝힌 점<sup>10)</sup>으로 보아, 그의 아버지는 적어도 중소지주였다고 보인다.

그의 키는 5척 3촌에 불과하였고, 둥근 얼굴에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배일사상을 갖고 음으로 양으로 그 사상을 선동할 우려가 있는 인물로 파악되었다.<sup>11)</sup> 키도 작고, 피부도 희고, 얼굴도 둥글어 유약한 듯 보이나 의지만은 강했던 것 같다.

그는 15~16세 무렵까지 한학을 공부하였다. 『소학』, 『통감절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뿐만 아니라 약간의 諸家의 문집도 읽었을 것 같다. 이는 그가 1930년대 홍대용, 정시한 등의 문집을 편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진위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sup>12)</sup> 언제 입학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그가 1918년 4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1912년 무렵으로 보인다. 그의 나이 16살 때였다. 양반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는 근대 교육을 빨리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통치한 후 서구적 질서로의 재편이 공고화되자, 그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근대적 교육을 받아들였다.

그가 입학하였을 당시의 진위공립보통학교는 진위군 읍내에 있었고, 3년제<sup>13)</sup>로 학년 당 두 학급, 일본인 교사 1명과 조선인 교사 1명이 있는 소규모의 학교였다.<sup>14)</sup> 당시 太鼓矢五一이 本科 訓導, 9관등인 李必善이 專科 副訓導로 있었다.<sup>15)</sup>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규칙으로 미루

8)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안동권씨추밀공파대보소, 1983), 玄. 『승정원일기』에 1678년 곡산부사에 임명된 權 克中이 확인된다.

9) 『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10) 「권익수 신문조서」(1921.9.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11) 『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12) 『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13) 1911년 8월의 공포된 조선교육령과 동년 10월 20일 공포된 보통학교규칙에 따르면 공립보통학교는 4년 과정이 일반적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1년 정도 단축될 수 있었다(김영우·피정만, 『최신 한국교육사 연구』 1997), 335쪽).

14) 「을중 공립보통학교 교원과 학생수」(1911년 3월말 현재),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진위공립보통학교는 1899년 2월 진위군 읍내에 설립되었다. 1911년 당시 3년제로 학년 당 두 학급이었고, 일본인 교사 1명과 조선인 교사 1명이 있는 소규모의 학교였다.

어 보아, 그는 수신, 국어(일본어), 한글 및 한문, 산술, 이과, 창가, 체조, 도화, 수공, 상업초보, 농업초보를 배웠음<sup>16)</sup>에 틀림이 없다.

그는 경성 鳳鳴學校에 입학하여 3년간 수학하였다고 한다.<sup>17)</sup> 그의 입학 연도는 1915년으로 짐작된다. 1908년 李鳳來가 설립한 鳳鳴學校는 3년 과정의 고등과와 4년 과정의 보통과를 운영하였는데<sup>18)</sup>, 그는 상업을 가르치던 3년 과정의 고등과를 졸업하였다.

그런데 권태휘가 다닌 이 봉명학교는 민족적 성격이 강한 학교였다. 봉명학교의 교장인 李鳳來는 1906년 경 内部 協辦을 지냈던 인물로 일본의 통감통치에 대한 비판적 언행과 행동을 하여 구류·구속당했던 인물이었다.<sup>19)</sup> 그리고 고종황제 재위기의 내부 협판이었던 이봉래가 고종이 퇴위당한 다음 해인 1908년에 봉명학교를 설립한 사실에서도 이 학교의 민족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권태휘는 민족적·근왕적 성격이 강하였던 이봉래가 설립한 봉명학교를 다니면서 민족의식, 항일의식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권태휘는 1918년 4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sup>20)</sup> 조선총독부의원 부속강습소에서 1916년 4월 새롭게 출범한 경성의학전문학교는 4년제로 탄탄한 교수진을 갖춘 관립의학고였다. 출범 당시 조선총독부의원의 주임급 교수진 18명, 의원과 조수 등 21명 중에서 대부분 경성의전의 교수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권태휘가 입학하였을 무렵, 교원들은 하가 교장과 교수 19명, 조교수 13명, 강사 4명의 거의 다 일본인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내과학, 의과학, 산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정신병과, 의화학, 병리학, 법의학, 수학, 약물학, 치과 등의 전문가였다.<sup>21)</sup> 이런 점으로 볼 때, 권태휘가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것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생각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근대적인 의학기술을 습득하여 출세하려던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듯싶다.

1918년 권태휘는 진위에 거주하면서, 오산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통학하였다. 당시 그가 만난 사람으로 휘문고보에 다니던 두세 살 밑의 兪亨植(18)과 徐廷淋이 확인된다. 유형식은 경기도 시흥군 북면 노량진리 231번지가 본적으로 양반 출신이었고, 서정림의 신분 및 인

15) 『조선총독부 직원록』 1910년, 공립보통학교(을).

16) 김영우·피정만, 『최신 한국교육사 연구』(1997), 335-336쪽.

17) 『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18)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황」(1910년 10월말 현재),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19) 「궁내협판 閔景植 외 2명 구속 건」(1906.6.16.), 『통감부문서』 3.

20) 「중인 유형식 신문조서」(1921.9.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21) 신규환, 「일제시기 ‘의전체제’로의 전환과 의학교육 - 세브란스의전과 경성의전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20권 1호, 2017, 31쪽.

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sup>22)</sup> 당시 권태휘가 유형식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유형식이 휘문고보 졸업 후 경기도청 소속의 교원으로 활동하였고, 1921년 권태휘가 유형식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하였을 때 거부한 점<sup>23)</sup>으로 미루어보면, 권태휘가 유형식과 교류하면서 민족적 각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 유형식이 자신과 같은 양반 출신이었기에 권태휘는 그와 교류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그가 경성의학전문학교 다니던 1918년 말에서 1919년 초는 격동의 시기였다. 제1차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이 1918년 1월 국제연맹의 창설과 함께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고,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9년 1월부터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각지에서 독립 문제에 대한 협의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8년 중엽 일본 유학생인 장덕수 등과 협의하여 신한청년단(당)을 조직해오던 여운형은 그 해 11월 28일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창당하고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고, 국내와 일본,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 사람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sup>24)</sup> 미국에서는 서재필·안창호·이승만 등이 재미한인대표자회의를 열고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보내고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선독립청년단이 주축이 되어 2·8독립선언을 하였고, 국내에서도 천도교·기독교·불교가 중심이 되어 3·1운동을 준비하였고, 전문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도 독립만세시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였다.<sup>25)</sup>

권태휘의 민족의식의 형성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그가 다니던 경성의전 학생들과의 교류 및 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그가 경성의전을 다니던 1918년 무렵, 경성의전의 한국인 학생수는 한 학년에 50명 정도<sup>26)</sup>로 총 200명 남짓하였다. 이 중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3·1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 즉 학생들의 3·1운동을 주도한 金炯璣(4), 金鐸遠(4), 崔景河(4), 李檀(2), 李亨垣, 宋榮燦, 張世九, 韓偉健, 金昌滉(1), 羅昌憲(2)이 경성의전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하여 재판을 받은 1학년생인 김종하, 김창식, 오용천, 오태영,

22) 「중인 유형식 신문조서」(1921.9.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유형식은 신문에 대한 답에서 당시 권태휘가 유형식과 서정립에게 각기 영어사전과 물리책, 구두를 빌리고 갚지 않았고, 무료로 자신의 집에서 취식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23) 「중인 유형식 신문조서」(1921.9.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24) 강덕상, 김광열 역, 『여운형평전 I』(역사비평사, 2007),

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1971, 64-72쪽.

26) 신규환, 「일제시기 '의전체제'로의 전환과 의학교육 - 세브란스의전과 경성의전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20권 1호, 2017, 31쪽. 경성의전은 1916년 한국인 학생 54명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유완영, 이형원, 전진극, 정인철, 현창연, 황용주, 함병승, 김승진 등은 권태휘와 동급생이었다.<sup>27)</sup> 선배와 동기들의 독립만세운동 준비를 목격하고, 그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다.

### 3.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 1) 3·1운동과 태평양회의 계기 독립운동

權泰彙가 다니던 경성의전 학생들의 대다수가 3·1운동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던 만큼, 권태휘는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이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의 3·1운동 참여 사실이 문서와 증언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권태휘는 서울에서 전개된 3·1운동의 횃불을 자신의 고향인 수원과 평택에서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초순 振威郡 浦升面 希谷里 李敏百의 집에 가서 “지금 조선 각지에서 금번의 조선독립을 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고창하고 있는데 수원군과 진위군만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있지 않는다. 기일은 곧 통치하겠으니 그 때 里民을 지휘하여 만세를 고창케 하라”고 권유하였다.<sup>28)</sup> 그런데 권태휘의 고향인 가곡리와 이민백의 거쳐 회곡리는 각기 평택의 동쪽과 서쪽에 있었다. 이렇게 권태휘가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한 회곡리에 간 것은 그의 회곡리행이 특수 목적을 띤 의도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는 가곡리에서 회곡리에 이르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말해, 평택 지역 독립만세운동의 발생에 미친 권태휘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일로 권태휘는 1919년 4월 경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다.<sup>29)</sup> 그리고 1919년 9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그는 상고하였

27) 김상태, 「3·1운동과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 서울대학교병원, 『3·1운동 99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선배들의 그 날 그 함성-』(2018.2.26.,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1층), 85-8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1971, 112쪽.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8, <공판시말서(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5권.

28) 「권익수관결문」(경성복심법원, 1919.9.22.). 『倭政時代人物史料』 2권. 「권익수 회생정부 조직 및 독립격문 배포사건 경찰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29) 「증인 정도준 신문조서」(1921.9.1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으나, 결국 1919년 9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 90度’로 감형되어 체형을 받았다.<sup>30)</sup>

형을 치르고 나온 권태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스코필드 등 기독교계 인사들의 주도로 설립된 革淸團에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잘못된 사회기풍의 혁신과 청산을 목표로 한 단체로 1919년 11월부터 남대문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스코필드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공창폐지를 위해 조직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설립이 지지부진하여 참여자를 청년과 학생으로 확대한 후 1920년 2월 5일 혁청단이 발기되었는데, 이 때 권태회가 이에 참여하였다. 일제 정보문서에 따르면, 발기 당시 혁청단의 임시단장은 權基觀, 위원은 權泰會, 沈相玟, 鄭華基, 洪禹基, 申明燾 등이었는데<sup>31)</sup>, 권태회가 혁청단의 단장 등으로 활동했던 점으로 보면, 여기에 보이는 權泰會는 權泰彙의 오인으로 판단된다. 이 혁청단의 취지에서 따르면, 혁청단은 정치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인 공창폐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단체는 공창폐지라는 문제를 갖고 공격적인 언사로 조선총독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권태회는 3·1운동으로 형을 겪고 나온 후, 정치적 독립운동이 아닌 사회문제의 해결을 표방하는 개량적 단체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개량적인 운동에 만족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인도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징역 2년을 받고 평양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기에<sup>32)</sup>, 그의 항일투쟁의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던 것 같다.

1920년 중반, 그는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활동하다가 1920년 7월 19일 경성지방 법원에서 절도·횡령·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sup>33)</sup> 권익수는 자신의 죄를 ‘제령 위반’이라고 하였는데<sup>34)</sup>, 그의 언급으로 보면, 그의 행위는 결코 단순한 절도·횡령·사기죄는 아니었다.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1920년 11월, 그는 평양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부인을 병으로 잃는 슬픔을 맛보아야만 하였다.<sup>35)</sup> 그는 만기까지 옥고를 치르고 1921년 5월 18일에 출옥하였다.<sup>36)</sup>

30) 「권익수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9.9.22.). 『倭政時代人物史料』 2권. 「권익수 희생정부 조직 및 독립격문 배포사건 경찰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31) 「경성민정회보: 공창폐지운동」(1920.2.13.), 『대정8년내지10년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공7책 기5』. 이 자료에는 권태회의 이름이 權泰會로 나온다. 그런데 권태회가 3·1운동 후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려 하였고, 1920년 대 중반 혁청단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권태회는 권태회의 착오로 판단된다.

32) 「권익수신문조서」(1921.9.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33)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21.11.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3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권익수 신문조서>(1921.9.15.). 권익수는 자신의 죄명을 제령 제7호 위반이라고 하였다.

35) 「권익수신문조서」(1921.9.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36)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21.11.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출옥 후 권태회는 고향에 돌아가 머무르다가 1921년 8월 5일 상경하였다.<sup>37)</sup> 항상 국권회복에 뜻을 두던 권태회는 1921년 11월 태평양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독립을 위해 大同團과 革新團에 관계하던 柳世觀, 李時雨, 李能雨, 金熙淳, 李起河 등과 함께 태평양회의에 「조선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격문을 배포하여 한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결심하였다.<sup>38)</sup> 권태회는 동지를 모집하기 위하여, 1921년 8월 12~13일 함께 천도교인 李一心(李曾魯)을 방문하여 태평양회의에 「조선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격문을 배포하고,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그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회생적 정부를 조직하기로 모의하고 이기하와 이시우를 이에 가입시키고 상해의 임시정부와 태평양회의에 파견하려고 하였다.<sup>39)</sup>

권태회는 1921년 8월 27·28일 경 이일심의 집에서 회합하고 8월 29일 ‘국치기념일’에 경성부에 독립문서를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권태회는 1921년 9월 2일 밤 관철동 이기하의 집에서 이기하, 이시우와 회합하여 1921년 9월 3일 경복궁에서 소위 ‘황태자 전하 귀국 봉영축하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동 축하회에 조선인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격문을 제작·배포하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아, 슬픈 우리 민족이여 자각하라. 자유가 없는 우리 민족이여 자각하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적을 위하여 봉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해를 가할 지어다. 조심하여라. — 국기를 게양하지 말라. —. 봉축 장소에 참가하지 말라. 민국 三年 九月 三日 독립단 여자부 고지”라고 되어 있는 경고문 40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권태회는 이 경고문 한글본과 한문본 5~6매를 9월 3일 종로 광익서관 외 4~5개의 가옥에 배포하였다.<sup>40)</sup>

또한 그는 1921년 9월 6일 오전 10시 경, 9월 13일 오전 10시 경, 9월 14일 정오 12시 경 노랑진에 살고 있던 후배 兪亨植을 방문하여 “너도 조선민족이므로 요즈음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유형식이 나는 공부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자 그에게 “(1921년) 11월에 태평양회의가 개최되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배포하여 조선민족의 민심을 조성시키고, 조선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였다. 또 그는 의형제를 맺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하자고 간곡히 설득하였다.<sup>41)</sup> 그렇지만 그의 응락을 얻지는 못하였다.

37) 「공판시달서」(경성지방법원, 1921.11.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38) 「이일심 신문조서」(1921.9.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39) 「의견서」(1921.9.2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권익수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11.2.), 「권익수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2.1.16.), 「권익수판결문」(고등법원, 1922.2.16.).

40) 「공판시달서」(경성지방법원, 1921.11.2.), 「의견서」(1921.9.2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41) 「증인 유형식 신문조서」(1921.9.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이처럼 태평양회의에 맞추어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던 그는 1921년 9월 초 李起河의 밑고로 거사 계획이 발각됨으로써 원만히 계획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도피를 다니면서도 이 일을 추진하였다.<sup>42)</sup> 권태회는 9월 초순 경 3·1운동 직후 함께 투옥되었던 천도교청년회장을 지낸 鄭道俊을 찾아가 도피자금과 의복 등의 편의를 받은 후 원산을 거쳐 해외로 망명하려 하였다.<sup>43)</sup>

그런데 그는 1921년 9월 12일 발생한 ‘조선총독부 폭탄투척사건’의 혐의자로 수배를 받았다.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던 그는 결국 9월 14일 서울 신교동 許炯의 집에 있다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15일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되어<sup>44)</sup> 9월 28일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그는 1921년 11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후 상고하였으나 1922년 1월 16일 경성복심법원, 그리고 1922년 2월 16일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고 옥고를 치렀다.<sup>45)</sup>

## 2) 혁청운동과 신간회운동

1923년 8월 경 출옥한 권태회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청강생이 되었다.<sup>46)</sup> 그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다니면서 각 전문학교의 학생들과 1923년 12월 21일 오후 7시 인사동의 중앙에배당에서 玉順喆, 權五淳, 崔底平 등과 革淸團을 조직하였다.<sup>47)</sup> 혁청단은 활동의 목표를 社會風紀의 혁청, 특히 學生風紀의 혁청에 두어<sup>48)</sup> 공창폐지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학생의 정신·습관 개조 같은 영역으로 활동 목표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학생풍기의 개조를 표방하는 개량적인 활동에 주력하였다.

원칙적으로 혁청단은 정신의 개조에 의해 문화를 바꾸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꾸려던

42) 「증인 정도준 신문조서」(1921.9.1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43) 「증인 정도준 신문조서」(1921.9.1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44) 「유치명령서」(1921.9.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45) 『동아일보』 1921.9.30., 3면 4단, <동궁전하어귀조봉축일에 “일본국기를 달지 말라, 봉축을 하지 말라”는 불온문서를 돌린 권익수는 검사국에>. 『동아일보』 1921.10.11., 3면 8단, <독립단여자부의 명의로 불온문서를 배부한 권익수, 황태자봉축당일사건, 지방법원 공판에>. 「권익수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11.2.), 「권익수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2.1.16.). 「권익수판결문」(고등법원, 1922.2.16.). 『왜정시대인물사료』. 「권익수 희생정부 조직 및 독립격문 배포사건 경찰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46) 『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47) 『고등경찰관계년표』, 1923·12.21.,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7권』.

48) 『동아일보』 1923·12.21., 2면 4단, <혁청단의 창립총회 개최>.

문화주의적 단체였다. 다만 수립하려던 문화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 김성수·이광수 등의 동아일보계,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자, 기독교의 문화운동론자들과 사뭇 달랐다. 1924년 11월 27일 북창동에서 열린 혁청단의 총회에서, 그는 조봉암, 김한경, 김석연, 김약천, 주병서 등과 함께 혁청단의 임원에 선발되었다. 이 때 채택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무산계급전(無産階級戰)의 진영을 어지럽히는 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엄격히 제재할 일, 둘째 본단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각지에 선전대(宣傳隊)를 파송할 일, 셋째 무산계급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회 및 강연회를 수시 개최할 일 등이었다.<sup>49)</sup> 그는 개량적인 단체에서 활동하지만, 경쟁과 실력 위주의 엘리트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니라 계급의식과 사회주의를 확산하는 계급적·사회주의적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유교적 공동체 사상을 갖고 있던 데에 더하여 조봉암 등 사회주의자와 교류하여 사회주의사상을 갖게 된 결과였다.

권태회는 혁청단의 조사부장이 되어 서울 시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일적 사상이 농후한 연설 활동을 하였다.<sup>50)</sup> 권태회는 1925년 8월 4일 오후 9시 안성의 공회당에서 「혁청단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sup>51)</sup> 그리고 1925년 8월 10일 오후 9시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감리교회에서 「모든 것을 혁청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sup>52)</sup> 또 그는 8월 20일 오후 8시 경북 영주의 영주청년회관에서 옥순철과 함께 각기 「농촌의 진흥」,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다가 3~4차례 주의를 받은 후 결국 강연중지를 당하기도 하였다.<sup>53)</sup>

권태회는 1926년 1월 17일 오후 1시 한양청년연맹회관에서 임시대회를 열고 革淸團을 革淸黨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지방부를 두고, 서력 기원을 폐지하고 혁청 기원을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는 이 임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sup>54)</sup> 1926년 1월 30일 평양면 옥노동조합 주최로 천도교당에서 열리려던 강연회에서 혁청당의 강사로 「내가 본 사회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려다가 관헌에게 사전에 금지당하기도 하였다.<sup>55)</sup>

1926년 4월 22일 권태회는 혁신적 청년들과 혁우청년동맹을 조직하고 활동하였다.<sup>56)</sup> 그는

49) 『동아일보』 1924.11.28., 2면 2단, <혁청단총회 세 가지를 결의>.

50) 『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이 자료에는 혁신단이라고 나오나, 이는 혁청단의 착오로 판단된다. 그는 1925년 이래 각지를 횡행하며 강연을 하면서 불온한 행동을 하고 있고, 배일사상이 농후한 인물로 파악되었다.

51) 『동아일보』 1925.8.8., 3면 9단, <경성혁청단순강단 안성에서 강연>.

52) 『동아일보』 1925.8.15., 4면 10단, <혁청단순회강연>.

53) 『동아일보』 1925.8.25., 4면 2단, <혁청단 강연중지>.

54) 『시대일보』 1926.1.19., 2면 2단, <‘단’을 ‘당’으로 변경한 혁청단, 혁청기원 사용>.

55) 『시대일보』 1926.1.29., 3면 5단, <강연금지 언사가 불온?>.

56) 『동아일보』 1926.4.24., 5면 7단, <혁우청년동맹 창립, 사회운동에 분투하던 시내 청년들이>. 이 기록에는 권

1928년 9월 18일 공평동에서 개최된 혁우청년동맹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혁청활동을 지도하였다.<sup>57)</sup>

혁청단·혁청당을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1923~1925년 동아일보, 천도교, 기독교의 인물들이 연정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자치 부여에 준비할 즈음<sup>58)</sup>, 권태회는 사회주의자 및 사회주의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먼저 그는 1924년 12월 21일 오후 7시에 낙원동 화요회관에서 경성에 있는 사회운동자 50여명과 회합하고 ‘재경사회운동자간친회’를 발기하였다. 1925년 1월 3일에 열린 회의에서 권오설, 송봉우, 임원근, 김약수, 김한경, 이석, 이충모, 이민한, 주세죽, 조보암, 윤덕정 등과 함께 준비위원에 선임된 권태회는 운동선 통일에 관한 건, 청년운동 연령제한에 관한 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의 집회금지에 관한 선후책의 건, 운동선 방해자 및 반동단체에 관한 건, 개인의안 등을 협의하였다.<sup>59)</sup>

또한 그는 사회주의세력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1925년 9월 초 재동 84번지의 경성청년회 내에서 한양청년연맹 주최로 열린 국제무산청년데이 기념간담회<sup>60)</sup>, 1925년 9월 17일 오후 7시 돈의동 중국요리집에서 개최된 형평사 간부 환영회<sup>61)</sup>, 1925년 12월 5일 오후 8시 공평동 대서관에서 열린 金演羲, 李在益, 李容鐸, 金智鎬 등 노동당원 출옥자 위로대회<sup>62)</sup>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선기근구제회 주최로 수해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경 각단체 유지대회’가 1925년 7월 15일에 오전 11시 45분 수표정 교육 협회에서 개최되었을 때, 이승원, 金鏞, 옥순철, 임형일과 함께 혁청단의 대표로 참석하였다.<sup>63)</sup> 1926년에는 이승원, 김봉식 등과 프로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좌절되기도 하였다.<sup>64)</sup>

---

대회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지만 뒤에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7) 「혁우청년동맹 집행위원회 개최의 건」(1928.9.19.),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4』.

58) 조규태, 「1920년대 민족주의세력의 자치운동의 전개 양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2, 2017, 93-116쪽.

59) 『시대일보』 1924.12.23., 1면 4단, <주의자친목회, 오는 1월 3일에>.

60) 「한양청년연맹 주최 국제무산청년데이 기념간담회에 관한 건」(1925.9.7.),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그는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평소 과격한 언동을 일삼아 강연을 중지당하였다.

61) 「형평사 간부 환영회에 관한 건」(1925.9.18.),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62) 「노동당원 출옥자 위로회에 관한 건」(1925.1.26.),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63) 「재경 각단체 유지대회」(1925.7.15.),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2』. 이 회의는 신흥청년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만야교육사업동맹, 경성청년회, 양화직공조합, 경성노동연맹, 경성인쇄직공조합, 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 경성양장직공조합, 조선교육총회, 무산자동맹, 조선노동당, 서울청년회, 조선일보, 북풍회, 민생사, 조선기근구제회, 여성동우회, 형평사본부, 화요회, 경성노동회, 경성무산청년회, 경성노동청년회 등이 참가하였는데 신흥청년동맹과 화요회 등의 화요회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64) 『신한민보』 1926.8.26., 2면 4단, <조선푸로학교기성회 창립>.

1926년 4월 14일 화요회, 북풍회, 조선노동당, 무산자동맹 등 4단체 합동위원회가 해체되고 정우회로 통합될 때, 권태휘는 '재경 각 단체 유지대회'에 참석한 혁명당의 책임자로서 정우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집행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전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중앙집행위원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정우회의 연구부 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sup>65)</sup>

1926년 11월 정우회선언에서 '과벌투쟁의 청산과 사상단체의 통일', '대중의 조직화',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과 민족협동전선의 전개, 이론투쟁' 등의 노선을 발표하자<sup>66)</sup>, 권태휘는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과 민족협동전선의 전개' 등의 노선에 공감하고 이와 보조를 함께 하였다. 얼마 뒤 권태휘는 신간회의 발기(1월 19일) 직후인 1927년 2월 21일에 열린 정우회 임시대회에 참석하여 정우회를 해산함으로써<sup>67)</sup> 신간회에 참여하였다.

신간회의 창립 후, 권태휘는 신간회 본부의 임원으로 활동하기보다 제 사회단체의 신간회 참여를 독려하고, 신간회 지회의 조직과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1927년 5월 17일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 참여하여 신간회의 참여를 독려하다가 검속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1927년 10월 20일 신간회 수원지회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1927년 말 신간회 경성지회에 소속되어 특별선전대원 등으로 활동하였다.<sup>68)</sup>

그는 이 무렵 여러 번 검색당하고 검거되었다. 그는 1927년 5월 17일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 참여하여 신간회의 참여를 독려하다가 검속을 당하였다.<sup>69)</sup> 1928년 11월 13일 새벽 그는 삼청동 자택에서 자다가 집을 수색당하고 검거되었다.<sup>70)</sup> 그리고 1929년 4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지방 야체이카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부인 李瓊嬪(22세)와 함께 체포되었다.<sup>71)</sup> 비록 1930년 12월 10일 예심에서 면소되어<sup>72)</sup> 형을 받지 않았지만 1년여의 옥고를 치러야만 하였다.

1931년 초 그는 신간회의 해소에 참여하였다. 1931년 4월 19일 신간회 경성지회의 제 1회 해소위원회에서 연락조직부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그는 정희찬, 윤기정, 이적효, 정종명, 임

65) 「정우회 임시총회에 관한 건」(1926.4.20.),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1』.

66) 박종린, 「정우회선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사전』 6, 2004, 285쪽.

67) 「정우회 임시총회에 관한 건」(1927.2.22.),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2』.

68) 「신간회 경성지회의 선전대 조직에 관한 건」(1927.11.4.),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3』.

69) 「신간회 경성지회의 선전대 조직에 관한 건」(1927.11.4.),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3』.

70) 『동아일보』 1928.11.14., 2면 9단, <감태휘씨 검거 본정서에>.

71) 『중의일보』 1929.5.7., 2면 1단, <전북도사건 송국, 관계자 33명>.

72)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권태휘)」,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화, 김혁, 조만, 원세훈, 김세진, 민중식 등과 함께 신간합법대회 파견대표로 신간회의 해소를 위해 활동하였다.<sup>73)</sup>

### 3) 조선문화 수호 운동

신간회의 해소 직후 권태회는 잠시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적 단체의 인물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1931년 10월 30일 형평사 본부의 전선형평사대회에 참석하여 장지필을 만나 형평사 본부의 해소를 축하하였다.<sup>74)</sup> 1931년 10월 21에는 조선학생혁명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사망한 丁寬鎭의 장례에 참석하여 조의를 표하기도 하였다.<sup>75)</sup>

그런데 1932년 무렵 그는 조선일보사의 사원으로 동향 선배인 안재홍과 함께 언론문화 활동을 하였다. 권태회가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일보사가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석우·최선익 대 이승복·안재홍, 사원회의, 임경래가 대립하던 1932년<sup>76)</sup> 그의 존재가 확인된다. 사원회의 한 사람인 그는 1932년 8월 15일 권태회는 최선익계의 김창영이 인솔한 10여명이 습격하여 안재홍, 한기악, 유진태, 이승복, 조설현 등 조선일보사의 구 이사회 회의장을 습격하였을 때 이를 막다가 손이 부러지고 구둣발로 불기 짝을 차여 부상을 입었다.<sup>77)</sup>

권태회는 1933년 7월 방응모가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전지동 111번지의 조선일보사 사옥을 태평로로 옮긴 후 『조선일보』의 발간에 중점을 두고 조선일보사의 사원회에서 발간하다 정간된 『신조선』을 무시하자 이의 속간을 책임졌다.<sup>78)</sup> 권태회는 황금정 2정목 22번지에 신조선사를 설립하고 1934년 9월에 『신조선』 5호를 속간하였다.<sup>79)</sup> 이후 권태회는 1934년 10월 제6호, 1934년 12월 제7호, 1935년 1월 제8호, 1935년 3월 제9호, 1935년 5월 제10호, 1935년 6월 제11호, 1935년 8월 제12호, 1935년 12월 제13호, 1936년 1월 제5권 제1호

73) 『동아일보』 1931.4.21., 3면 3단, <신간경정지회 해소위원회 결의>.

74) 「형평사본부 동정에 관한 건」(1931.10.19.), 『사상에 관한 정보 1』.

75) 「丁寬鎭 형집행정지자 사망에 관한 건」(1931.10.22.), 『사상에 관한 정보 1』.

76) 장신, 「1930년대 초 『조선일보』의 부침과 잡지 『신조선』」, 『근대서지』 8, 2013, 73쪽.

77) 『매일신보』 1932.8.18., 2면 1단, <조선일보구이사회 석상에 폭한 난입>.

78) 조선일보사의 사원회는 사원회와 사장인 임경래가 대립하던 1932년 9월 조선일보사가 있던 전지동 111번지에서 나와 황금정 2丁目 65번지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하고 1932년 9월 『신조선』 3호, 1932년 10월 『신조선』 4호를 발간한 바 있었으나 두 호만 내고 내부 갈등으로 정간하였다. 장신 앞의 글, 70-78쪽, 참조.

79) 장신 앞의 글, 80쪽, 참조.

를 발간하였다.<sup>80)</sup> 권태회는 『신조선』을 발간하는 것과 함께 1934년 10월 朴勝濟가 저술한 『신문잡지신어사전』을 황금정 2정목 22번지 신조선사에서 발간하였다.<sup>81)</sup> 안재홍이 『신조선』을 배경으로 조선학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권태회의 신조선사 운영이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권태회가 신조선사를 통하여 행한 대표적 사업은 여유당전서의 간행이었다. 권태회는 35,000원의 경비를 들여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疆域考』, 『大東水經』, 『雅言覺非』, 『風水集議』, 『醫零』, 『經集』, 『禮論集』, 『樂集文集』 등 정약용의 저서를 모아 76책의 전서를 간행하기로 하였다. 권태회는 간행책임자가 되고, 외현손인 金誠鑣을 편찬자, 정인보와 안재홍을 교열 책임자로 삼아 1934년 9월 15일에 이 사업을 착수하였다.<sup>82)</sup> 그리고 그는 1935년 7월 16일 다산 선생의 생일을 맞아 열린 茶山世逝百年記念會에 참석하여 윤치호, 유진태, 권내훈, 설태희, 한용운, 김성수, 박한영, 유억겸 등과 다산선생을 기리는 한편 이들의 후원을 요청하였다.<sup>83)</sup> 그리하여 권태회는 윤치호, 공성학, 김사정 등의 원조와 장길상의 원고 제공과 일반인의 구독 예약 등에 힘입어 1938년 10월 27일 400부를 간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sup>84)</sup>

『정다산전서』의 간행을 위해 노력하던 1936년 4월 1일, 그는 신조선사의 사옥을 황금정 22번지에서 前 大東商業學校 자리인 가회정 208번지로 옮겼다. 이는 『정다산전서』의 간행으로 인한 社部의 확장과 『신조선』의 속간을 위한 고려 때문이었다.<sup>85)</sup>

1939년 1월 권태회는 영조대의 가정실학자이고 규수문학의 최고봉인 이씨의 문집 『憑虛閣叢書』를 간행하였다. 이 전서는 『閩閣叢書』, 『淸閩博物志』, 『憑虛閣稿』로 구성되었다. 『閩閣叢書』는 酒食, 산업, 기복 등으로, 『淸閩博物志』는 천문, 지리, 세시, 초목 등으로, 『憑虛閣稿』는 자작시, 한문, 태고신설발, 父文獻公單表 등으로 구성되었다.<sup>86)</sup>

그리고 1939년 1월 권태회는 담헌 홍대용의 저서 7책과 여암 신경준선생의 저서 11책을 계속 간행하기로 발표하였다.<sup>87)</sup> 동년 3월 『湛軒書』를 간행하여 배본하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測天, 量地, 計時, 安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88)</sup> 1939년 9월 권태회는 실학자 申景濬의

80) 편집부, 『『신조선』 영인 및 소장 현황』, 『근대서지』 8, 2013, 84쪽.

81) 『동아일보』 1934.10.14., 3면 6단, <박승제저 신문잡지신어사전, 경성부 황금정 신조선사발행>.

82) 『동아일보』 1935.7.16., <다산서서백년기념회합>.

83) 『동아일보』 1935.7.16., <다산서서백년기념회합>.

84) 『동아일보』 1938.10.28., 2면, <정다산전서 조선출판계의 금자탑>.

85) 『조선중앙일보』 1936.4.3., 2면 10단, <신조선사 이전 확정>. 『동아일보』 1936.4.3., 2면 9단, <신조선사 이전>. 그런데 1936년 4월 이후 『신조선』의 속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86) 『동아일보』 1939.1.31., 2면 1단, <가정실학의 웅편거장>.

87) 『동아일보』 1939.1.11., 2면 5단, <湛軒 旅菴의 叢書를 발간, 신조선사에서 예약판으로>.



旅庵全書(20권) 간행에 착수하여 1940년 발간하였다.<sup>89)</sup>

권태휘는 사·문학 문집의 발간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는 1937년 조선시대 丁時翰의 저술을 모아 신조선사에서 『愚潭先生文集』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12권 6책이었으며, 크기는 가로 31.1cm, 세로 20.3cm였다.<sup>90)</sup> 그리고 같은 해 『우담선생문집: 부록』을 목판본으로 14권 7책으로 발간하였다.<sup>91)</sup> 권태휘는 1937년 조선시대의 錦史 具翰書가 저술한 시집인 『錦史詩鈔』와 『금사시초: 부록』을 鉛活字로 발간하였다.<sup>92)</sup> 또 권태휘는 박중화, 김동환, 한설야, 엄홍섭 등과 함께 회월 박영희의 시집 『懷月詩抄』의 발간하고 그 축하회를 1939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황금정 아서원에서 개최하였다.<sup>93)</sup>

#### 4. 해방 후의 정치 활동

해방 후 권태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45년 8월 22일 건준 중앙위원회에서 1국 12부로 조직을 확대하였을 때 권태휘는 李昇馥과 함께 교통부를 담당하였다.<sup>94)</sup> 그의 건준 참여는 안재홍의 행보와 관련이 있을 듯싶다. 안재홍과 같은 동향 출신이란 점 외에, 그가 안재홍의 참모 역할을 한 이승복<sup>95)</sup> 휘하에서 교통부 부원으로 활동한 점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

다만 권태휘는 안재홍과 이승복이 건준의 좌경화에 반대하여 건준에서 나와 1945년 9월 1일 조선국민당을 창당할 때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1945년 9월 29일 조선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임원 명단에는 권태휘가 확인되지 않는다.<sup>96)</sup> 이는 그가 안재홍의 중도 우파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88) 『동아일보』 1939.1.31., 2면 1단, <홍담헌 유작 간행>.

89) 『동아일보』 1939.9.22., 1면 1단, <사설: 여암전서의 출현>. 『旅庵全書』 1-6(신조선사, 194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90) 『한국고전종합목록』.

91) 정시한, 『우담선생문집: 부록』(신조선사, 19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92) 구한서, 『금사시초』(신조선사, 1937). 버클리대 소장. 구한서, 『금사시초: 부록』(신조선사, 19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93) 『동아일보』 1939.7.16., 3면 6단, <시집 『해월시초』 출판기념회>.

94) 『동아일보』 1982.6.21., 3면 1단, <비화 미군정삼년(39)>.

95) 오영섭, 「해방 후 평주 이승복의 신국가 건설운동」, 『승실사학』 24, 2010, 148-145쪽.

96) 오영섭, 앞의 글, 161쪽.

그는 1945년 9월 4일 건국준비위원회의 3차 조직 개편시 金炯善과 함께 교통부 책임자에 선임되었다.<sup>97)</sup> 1945년 9월 6일 오후 9시 경기고녀 강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고 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는 건준 교통부 부원으로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98)</sup>

1945년 9월 30일 그는 구호동맹, 재외이재동포원호회, 불법연구회구호부, 조선사회사업협회, 조선청년단구호부, 고려동지회구호부,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 건준후생부, 전재동포원호동맹, 불교단구호부, 조선인민원호회, 건국부녀동맹, 경성실업자동맹구호부 등의 구성원과 함께 조선원호단체대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정태회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대회에 권태회는 위원으로 활동하였다.<sup>99)</sup>

그는 1946년 1월 3일 오후 1시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될 ‘신탁통치 반대 시민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동원부장에 선임되었다. 당시 회장은 洪命熹, 부회장은 鄭魯滉이었다.<sup>100)</sup> 신탁통치 반대 시민대회는 열리지 않았으나, 이 무렵 권태회는 홍명희, 정로식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6년 1월 12일 권태회는 서울시의 297개 정연합회 대표의 한 사람으로 정로식 외 1인과 함께 군정청 농상당국을 찾아가 공정미가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현재의 가격으로 배급을 계속하되, 거리의 매매는 자유가격에 맡겨달라고 요청하였다.<sup>101)</sup>

권태회는 서울시민대회의 일원으로 1946년 1월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미소공위 대표단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선을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재건하며,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잔재를 급속히 청소하며, 삼팔도선을 철폐하고 행정경제의 모든 문제를 통일조정하기 위해서 열리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염원하였다. 미소공위의 대표단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 시민대회에서 崔元澤, 조선공산당 李舟河, 조선인민당 李傑笑의 환영사가 있는 후, 권태회는 「미소공위대표단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였다.<sup>102)</sup>

1946년 1월 말 권태회는 통일정권의 수립을 염원하여 사회 각 중립단체의 인물과 비상국민회의주비회에서 탈퇴한 인사를 중심으로 통일정권축성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인사

97)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52, <해방정국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98) 『매일신보』 1945.9.6., <건준,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개최, ‘인공’ 임시조직법안 상정 통과>.

99) 『매일신보』 1945.9.30., <13개원호단체, 조선원호회단체대회 구성>.

100) 『자유신문』 1946.1.1., 2면 1단, <탁치반대 시민대회, 시인민위원회와 町聯 주최>.

101) 『동아일보』 1946.1.13., 2면 6단. <공정미가철폐하라>.

102) 『자유신문』 1946.1.24., 2면 3단, <미·소 두 대표단 환영, 작일 시민대회와 행진>.

는 金恒圭, 金容起, 鄭道永, 鄭樂倫, 李景錫, 朴治(迨: 필자)鎬, 李祐植, 李秉一, 朴鉉煜, 金乘龍, 尹德炳, 劉錫鉉, 權五翼, 金觀濟, 李極魯, 鄭淳甲, 金乎, 李炯雨, 權泰彙, 李時穆, 閔丙斗, 裴成龍, 李遂榮, 金成壽, 朱義國, 鄭烈模, 金淵鎭 등이었다. 권대휘는 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여 생산기능의 전면적 허비, 각종 파렴치배의 채용, 폭리배들의 자행, 빈번한 비문화적 폭력의 발호 등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이 이상 통일을 천연하는 것은 민족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작과 회합은 단연히 행동을 중지하거나 해산하고 통일노선으로 일로매진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만이 민중들이 염원하는 유일의 목표라고 주장하였다.<sup>103)</sup>

1946년 1월 19일 29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민주주의민족전선 선발전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공산당과 근로인민당이 중심이 되어 민전의 결성이 추진되었다.<sup>104)</sup> 이후 무렵인 1946년 1~2월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제외할 것, 3상회의결정의 원칙 하에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에 노력할 것, 기성정부의 법통을 고집하지 말 것, 명실상부하는 민주주의단체의 비례제를 승인할 것의 4원칙 하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할 때 그도 동참하였다.<sup>105)</sup> 그는 2월 5일 민전준비회의 임시사무소에서 사무총국회를 열고, 22명의 성원자격심사위원 중 한 사람으로 결성대회에 참석할 각 당, 대중단체, 종교, 문화, 과학, 기술, 교육, 군사, 언론계의 대표자 자격, 인원수 선용방법 등을 협의함으로써 2월 15일의 민전 결성대회를 준비하였다.<sup>106)</sup>

민전 결성대회에서 그는 305명 중의 한 중앙의원을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47명의 중앙상임위원회에 선정되지는 못하였다.<sup>107)</sup> 그렇지만 그는 1946년 2월 23일 김철, 권동욱 등 22명과 함께 민전 식량대책위원회에 선임되어<sup>108)</sup> 1946년 4월 초 식량난과 실업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자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sup>109)</sup>

한편 그는 1946년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장곡천정에서 42개 단체 928명이 참가한 가운데

103) 『자유신문』 1946.2.1., 1면 1단, <이 이상 통일 천연하면 민족 멸망을 초래>.

104) 양동주, 「해방후 좌익운동과 민주주의민족전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한길사, 1988), 93쪽.

105) 『자유신문』 1946.2.8, 1면 1단, <심사위원회를 설치, 민족전선대회의 초청자 전형>.

106) 『중앙신문』 1946.2.8., 1면 5단, <민족전선성원심사위원 결정>. 당시 선정된 민족전선성원심사위원은 金良璇, 林和, 康基德, 洪南杓, 劉英俊, 韓斌, 白庸熙, 洪增植, 李吳濟, 許憲, 李重燦, 李錫玖, 權泰彙, 金振宇, 李萬珪 등이었다. 『자유신문』 1946.2.8., 1면 1단, <심사위원회를 설치 민족전선대회의 초청자 전형>.

107) 『자유신문』 1946.2.18., 1면 2단, <47명의 상임위원 민선서 선거>.

108) 『자유신문』 1946.2.26., 1면 8단, <민전 식량대책위원>.

109) 『중앙신문』 1946.4.6., 2면 3단, <실업자위원회>. 위원장 趙東佑, 부위원장 권대휘, 부위원장 成有慶, 상임위원 朴瑋愚, 金鳳喜, 朴春秉.

데 열린 ‘서울시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金恒圭, 玄文玄, 金光洙, 徐丙寅, 金龍岩, 辛義卿과 함께 서울시민전 임시집행부의 위원에 선출되었다.<sup>110)</sup> 그리고 1946년 5월 중순 그는 서울시민전 위원에 선임되었다.<sup>111)</sup>

민전 본부의 중앙집행위원과 서울시민전의 위원 등으로 그는 여러 행사 시 사람을 동원하는 일을 책임졌다. 그는 1946년 3월 1일 인민당, 신한민족당, 공산당, 독립동맹, 조선민주당의 5당이 합동으로 3·1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 ‘삼일절기념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때 그는 동원부 책임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였다.<sup>112)</sup> 그리고 1946년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민전 주최의 ‘민주적 통일임시정부 수립 촉진대회’ 시 권태휘는 회장 여운형 휘하에서 동원부 위원으로 사람을 동원하였다.<sup>113)</sup> 그리고 그는 1946년 4월 초 민전이 주도하여 4월 12일 루즈벨트대통령의 사망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회 준비위원 중 한 사람으로 하였다.<sup>114)</sup> 그리고 그는 1946년 6월 10일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6·10만세운동을 기념하며 미소공동회의 속개를 위해 촉진하기 위해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을 때 총무로 이를 준비하였다.<sup>115)</sup>

한편 그는 좌·우익의 분열로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고, 대립으로 인한 살상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그는 1946년 7월 민전 산하 각 정당사회단체와 대한독립축성회, 좌우합작축성회 등 대표 80여명과 함께 ‘해방1주년기념행사’를 좌우합작으로 열기로 결정하고 金咸圭, 金光洙, 玄又玄, 金基道 등과 준비위원으로 이를 준비하였다.<sup>116)</sup> 그는 1946년 8월 민전 조사부에서 구성한 ‘불상사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선임되어 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sup>117)</sup>

1947년 2월 남한에서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권태휘는 이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였다. 1947년 2월 18일 서울시 민전에서 의장단과 서기국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월 20일 ‘지방선거 민

110) 『중앙신문』 1946.4.14., 4면 1단, <서울시민전결성식>.

111) 『중앙신문』 1946.5.14., 1면 9단, <인사>.

112) 『자유신문』 1946.2.18., 1면 3단, <3·1기념운동에 총동원>.

113) 『자유신문』 1946.4.10., 2면 8단, <민전 주최, 시민대회의 위원과 부서 결정>. 회장 여운형, 부회장 김원봉, 총무부 문갑송 외 5인, 재정부 김성동 외 5인, 동원부 권태휘 외 42인, 선전부 최익한 외 13인이었다.

114) 『중앙신문』 1946.4.6., 2면 1단, <고루씨추도회 준비위원 결정>.

115) 『중앙신문』 1946.6.6., 4단, <래십일 시민대회>. 위원장은 金恒圭, 총무는 權泰暉 외 11명, 선전은 威鳳石 외 15명, 동원은 金應彬 외 37명, 재정은 金基道외 10명이었다.

116) 『동광신문』 1946.7.24., 1면 5단, <8.15기념행사 합작요인 십씨에게 일임>.

117) 『독립신보』 1946.8.25., 2면 5단, <불상사대책위원회 민전서 대책확립에 만전기코저>.

전강령 실천대책 서울시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44명의 위원을 선정하였을 때, 그는 위원으로 선임되었다.<sup>118)</sup>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그는 1947년 2월 7일 오후 11시 반 삼청동에 있던 그의 집에서 십여 명의 '테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신체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가슴이 파괴당하여<sup>119)</sup> 심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였다.

해방 직후 좌익 편에 섰던 그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갑자기 정치적 노선을 바꾸어 국회의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49년 10월 19일 일본 정부에서 재일교포 학교를 폐쇄하거나 일본법을 따라 정비하도록 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재일교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0)</sup> 또, 1949년 11월 문교사회위원회의 기초위원으로 문교부 공보처에서 초안한 공연법을 폐기하고, 공연법 초안을 기초하는 활동을 하였다.<sup>121)</sup> 그의 이러한 정치적 노선의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런데 1950년 6·25전쟁 이후, 남북인지 월북인지 불명확하지만, 그는 다시금 북한으로 갔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실력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체제보다 구성원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체제를 동경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북한행의 한 요인일 것이다.

그는 북한에서 1956년 7월 2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에서 대외섭외부장에 선임되어<sup>122)</sup> 평화통일을 위한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그의 사망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50년대 후반 남로당의 숙청 이후 그의 정치적 지위도 약화되었으리라 짐작된다.

## 5. 맺음말

태휘는 1897년 경기도 진위군 북면 가곡리(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331번지에서 양반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었다. 그는 키도 작고, 피부도 고왔으나 항일의지만은 남달리 강했다.

118) 『독립신보』 1947.2.20., 1면 10단, <서울시민전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은 개인대표 金容起, 張建相 외 43명, 연정대표 金龍岩 權泰彙, 孫俊洪, 薛炳澮, 朴泰遠, 崔成基, 丁邦勳, 鄭然昌, 崔潤廷, 成達鏞, 具昌根, 全星宇, 金仁鶴, 李丙爽, 李漢台, 金炯載, 李遠應, 吳泳, 黃在一, 金熙在 등이었다.

119) 『중외경제신보』 50호, 1947.2.9., 2면 9단, <권태휘씨택에 테로>.

120) 『자유민보』 1949.10.30., 1면 6단, <재일한교학교문제 국민교육법에 의함이 타당, 국회의원 출장조사키로 문사위결의>.

121) 『경향신문』 1949.11.11., 2면 3단, <공연법 초안 폐기, 문화위서 재기초>.

122) 정창현, 「1950년대 북한의 통일노선과 통일정책연구」, 『국사관논총』 75, 1997, 241쪽.

양반의 자제로 출생한 그는 어려서 한학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1912년 경 진위공립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근대적인 지식을 경험하였고, 1915년 서울의 봉명학교에 들어가 상업 등의 근대적인 학문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가 의학을 전공하려고 하였다. 그의 근대적 학문의 수학은 민족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는 의식과 아울러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출세하고픈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1918년 1월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국내와 국외의 민족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그는 민족적 각성을 하였다. 특히 경성의 전의 선후배들이 3·1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자 그도 독립운동의 노선에 동참해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던 그는 수원과 평택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촉발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태 90대를 맞고 나온 권태회는 1920년 모종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려다가 징역 10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소위 일본 황태자의 귀국 환송 행사에 한인이 참여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태평양회의의 개최에 맞추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독립만세시위를 하려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형을 치렀다.

1923년 8월 경 출옥한 권태회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등의 정신과 가치를 개조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혁청단에 참여하여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다만 그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신문화가 아니라 계급주의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신문화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1923~1925년 동아일보, 천도교, 기독교의 인사들이 일본의 자치 부여 소문에 맞추어 소위 자치운동을 전개하자, 권태회는 사회주의단체 혹은 사회주의적 단체의 인물들과 제휴하여 결속을 다져나갔다. 그리고 1926년 4월 화요회, 북풍회, 조선노동당, 무산자동맹의 4단체가 해소되어 정우회가 조직될 때 이에 참여하였다.

그는 1927년 정우회를 해산되고 신간회를 조직하였다. 신간회에서 그는 본부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는 대신에 경성지회와 수원지회 등의 지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조직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1931년 신간회의 해소 후, 그는 잠시 조선일보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며 언론문화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1932~1933년 경 『조선일보』의 운영을 둘러싸고 조선일보사 내에서 신석우·최선익계와 안재홍계의 내분이 있자 조선일보사에서 나와 1934년 경 신조선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그는 『신조선』을 발간하여 안재홍의 조선학운동을 후원하는 한편 『정다산전서』, 『담헌서』, 『여암전서』, 『빙허각전서』 등 실학자의 전집을 발간하여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조선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해방 직후 안재홍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런데 1945년 9월 건준이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할 때, 그는 안재홍과 결별하고 사회주의자와 연계하여 인민공화국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남한의 정치 인사들이 좌·우익으로 분열할 때 그는 민전에 참여하였다. 이후 그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여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남북한의 분열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7년 과도입법정부가 수립될 때, 그는 민족의 분열을 우려하여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 좌익 편에 섰던 그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돌연 정치적 노선을 바꾸어 국회의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이후, 자유주의체제보다 사회주의체제를 동경한 그는 다시금 북한으로 갔다.

그는 북한에서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대외섭외부장에 선임되어 평화통일을 위한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 후반 남로당의 숙청 이후 그의 정치적 지위도 약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